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워크숍 개요

□ 배경

- 2010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 삶의 질 통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회의를 통해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 측정 경험을 공유하고 측정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 시 : 2015. 11. 24.(화), 10:00 ~ 17:30

□ 장 소 : 대전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유관기관, 연구소, 학계전문가 및 학회 등 약 80명

□ 주 제 :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 주요 의제

세션명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기조 강연	·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한준 (연세대학교)	김주현 (충남대학교)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Ⅰ 세션별

○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세션 1)

· 국민 삶의 질 지표 · 농어민 삶의 질 지표 · 노인의 삶의 질 지표 · 지역 삶의 질 지표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민수 (서울대학교)	좌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성호 (공주대학교) 오성익 (지역발전위원회)
--	--	---

○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세션 2)

·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 · 비교성향과 행복 · 아동의 주관적 웰빙 ·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심수진 (통계개발원)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좌장 서은국 (연세대학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설예승 (보건복지부)
--	---	---

□ 프로그램 일정표

구 분	시 간		주제 및 발표 구성(안)	비고
등 록	10:00~10:20	20분	•등록	
개 회	10:20~10:30	10분	•개회사	정규남 (통계청 차장)
기조강연	10:30~11:20 11:20~11:50	80분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전문가 토론	강연 : 한준(연세대) 토론 : 김주현(충남대) 서중해(KDI)
오 찬	11:50~13:00	70분	—	—
세 셴 1	13:00~15:00	120분	•주제: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 국민 삶의 질 지표 (이희길, 통계개발원) - 농어민 삶의 질 지표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인의 삶의 질 지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 삶의 질 지표 (손민수, 서울대학교)	좌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홍성호(공주대) · 오성익(지역발전위원회)
휴 식	15:00~15:20	20분	(coffee break)	(음료 및 다과)
세 셴 2	15:20~17:20	120분	•주제: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 -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 (심수진, 통계개발원) - 비교성향과 행복 (김희삼, KDI) - 아동의 주관적 웰빙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좌장 · 서은국(연세대) 토론 · 최슬기(KDI) · 설예승(보건복지부)
폐 회	17:20~17:30	10분	•폐회사(통계개발원장)	(요약 및 평가)

목 차

기조강연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1
---------------------------------------	---

1세션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1-1. 국민 삶의 질 지표	15
1-2. 농어민 삶의 질 지표	35
1-3. 노인의 삶의 질 지표	51
1-4. 지역 삶의 질 지표	69

2세션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

2-1.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	99
2-2. 비교성향과 행복	119
2-3. 아동의 주관적 웰빙	129
2-4.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149

기조강연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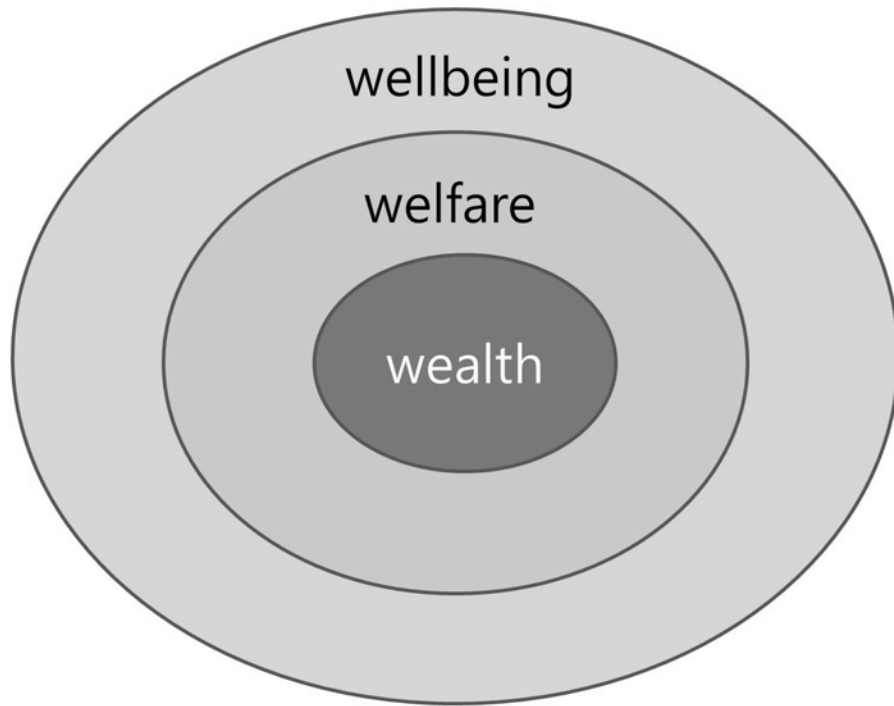
삶의 질 측정의 의의와 정책적 활용

한 준

왜 삶의 질인가?

- 국제적 경험:
 - 성장의 한계와 Beyond GDP
 -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위기
 - Subjective Wellbeing의 추구
- 한국의 경험:
 - 압축적 성장의 한계와 후유증
 - 지속가능성의 위기
 - 동기부여와 의미의 추구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의 질은 왜 측정하는가?

- 국가 발전의 척도
- 공공정책의 성과 평가
-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 설정
- 정책연구와 개발의 지침
- 국민과의 소통

삶의 질 측정의 쟁점들

-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판단
- 투입의 정도 vs 성과의 수준
- 국민의 의견 vs 전문가 평가
- 욕구의 충족 vs 능력과 선택
- 기준의 동일성 vs 기준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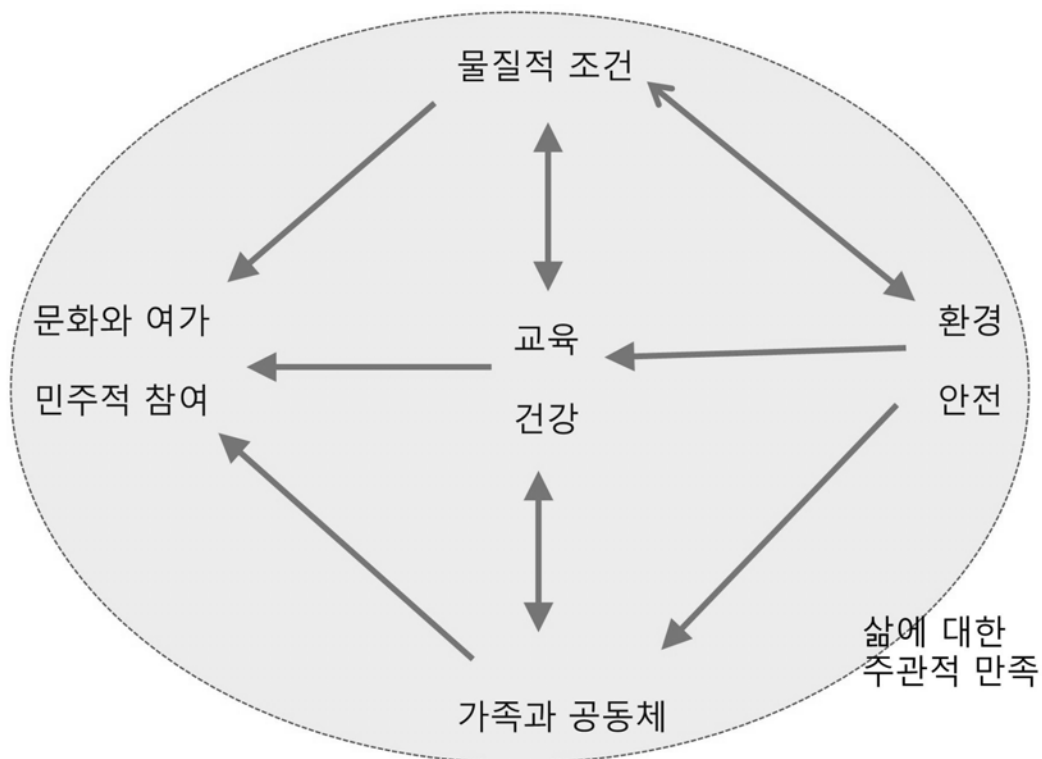
삶의 질 측정의 영역들

삶의 질 지표	OECD How's Life
주관적 만족	life satisfaction
경제적 조건	housing
	income
	jobs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가족과 공동체	community
문화와 여가	work-life balance
시민적 참여	
안전	safety
환경	environment

PERMA 모형과 삶의 질 영역

- Pleasure: 환경, 안전, 물질적 조건, 건강
- Engagement: 여가와 문화
- Relationship: 가족과 공동체
- Meaning: 민주적 참여와 가버넌스
- Accomplishment: 교육, 물질적 조건

삶의 질 영역간 관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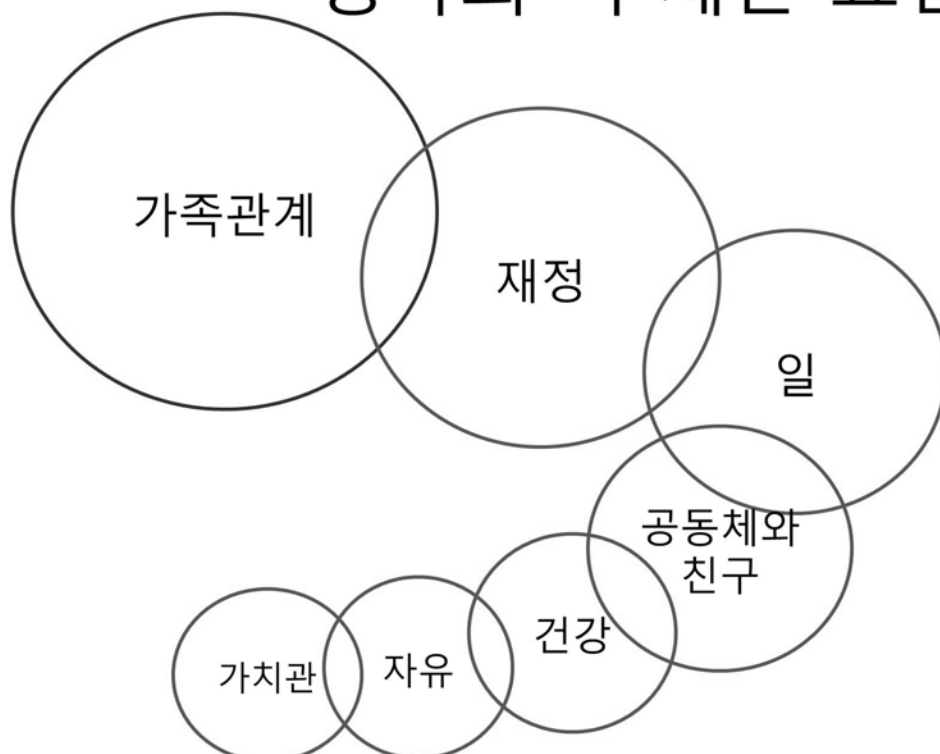


삶의 질의 수준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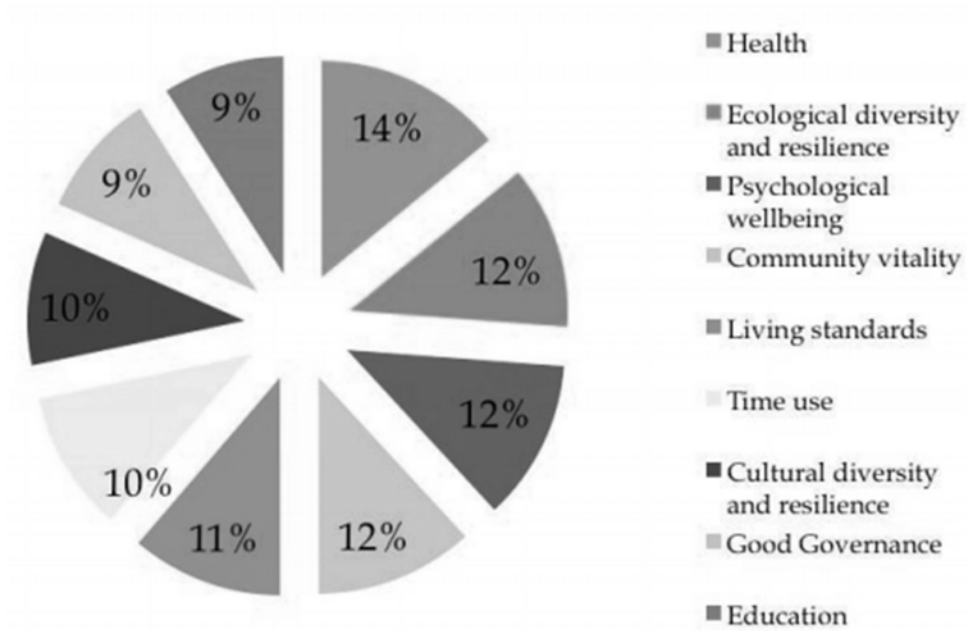


- 역량 있는 개인
-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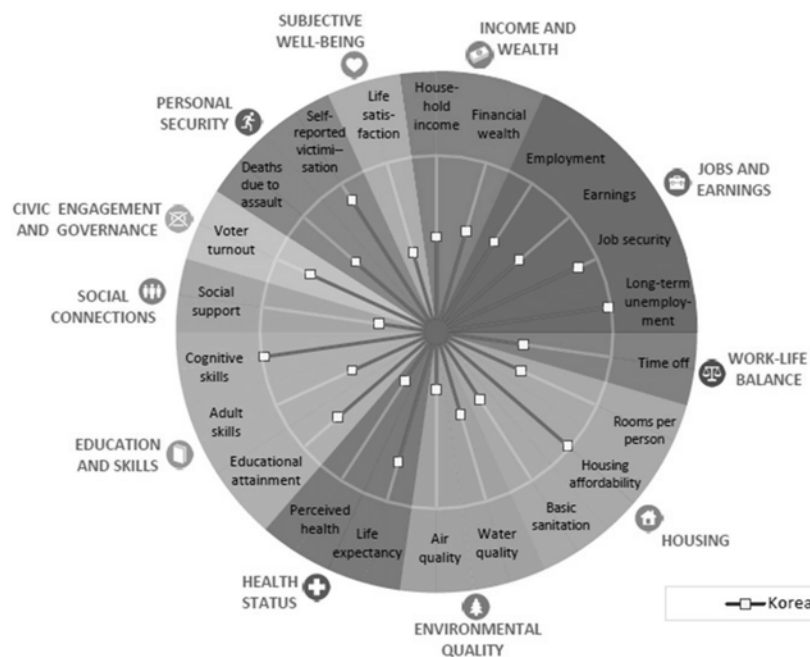
행복의 빅 세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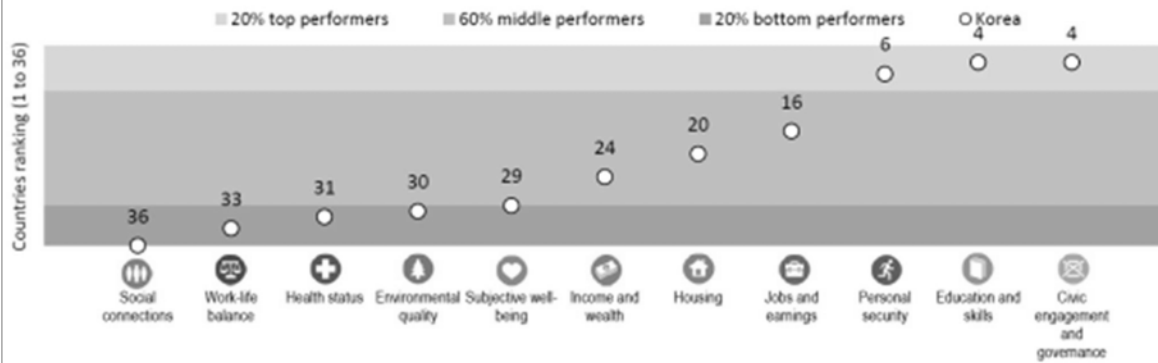
Subjective Wellbeing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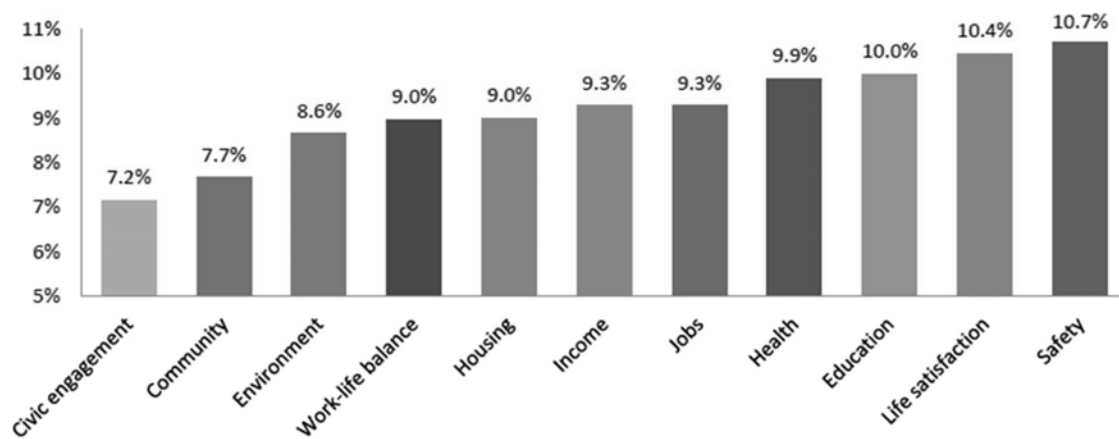
삶의 질 측정: BLI



BLI 영역별 국제비교



BLI 한국인 방문자의 가중치



정책목표로서 삶의 질과 쟁점들

- 삶의 질 측정의 정확성
- 정책적 개입수단의 모호성
- 정책 투입-산출의 black box
-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논란
- 국가 개입과 개인 자유의 상충

정책적 쟁점들: 불평등

-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등 주요 영역에서 불평등 증가
- 영역별 불평등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 불평등은 국민의 subjective wellbe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정책적 쟁점들: 불안과 위험

- 안전, 일, 건강 등 주요 영역에서 위험과 불안의 증가
- 위험과 불안의 원천들에 따라 예방과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불안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 수단은 무엇인가?

정책적 쟁점들: 돌봄과 지지

- 고령화와 질병 등 돌봄의 필요가 높아지며, 돌봄의 주체로서 가족의 기능 약화
-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저출산이 지속되어 인구감소의 위협이 현실화
-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며 특히 취약계층 및 고령층에서 심각한 상황
-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효과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는가?

정책적 쟁점들: 교육

- 뛰어난 교육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성이나 만족도가 낮고 학습에 대한 흥미는 떨어짐
-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뒤떨어지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비 부담이 발생
- 교육을 본연의 역할과 내용으로 되돌리면서 행복한 삶을 실천하며 살도록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1세션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과제





1-1

국민 삶의 질 지표

(이희길,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해결과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이희길, 심수진, 김홍희

2015.11.24

Contents

- I. 서론
- II. 추진과정: 쟁점과 대응방안
- III. 측정결과
- IV. 정책활용 방안

I. 서론

1. 추진배경 및 목적

“ ...growth is not an end in itself,
but rather an instrument for creating
better conditions of life”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다[OECD 각료회의, 1970]

I-1.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의 사회적 상황

- 민주화, 상용화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직면
-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관심전환 필요

국제적 웰빙 측정 확산

- 관심전환: 경제 중심에서 삶의 질 및 지속가능성으로 이동
- 국가 단위의 측정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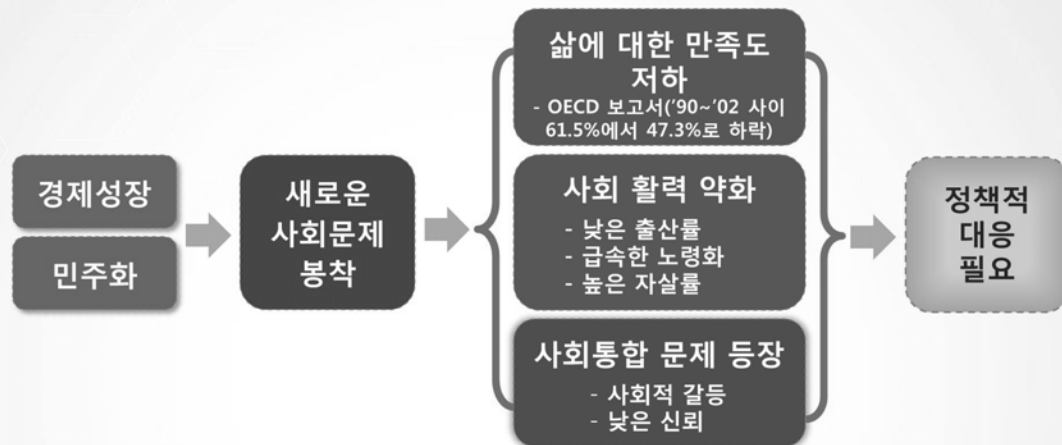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 필요성 대두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체계적 점검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I-1.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내 상황

-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다양한 사회문제 직면
 -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 사회적 활력 약화, 사회통합문제 등장



I-1.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제 변화: 국제적 웰빙 측정 확산

☑ 국제적 관심의 확산

- 1990년대 이후 경제중심에서 삶의 질과 환경 중시로 전환
 -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대두
 - 경제 중심의 GDP 한계 극복 필요

☑ 국제 및 국가단위의 측정노력

- OECD 글로벌 프로젝트('04년)→제3차 부산포럼('09년)→ BLI 보고서 발간
-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09년)
- 국가사례
 - 캐나다 -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 호주 - MAP(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 영국 - MNWB(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일본 - MNWB(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부탄 - GNH(Gross National Happiness)
 - 이탈리아 - BES(Benessere Equo e Sostenibile)
 - 멕시코
 - 포르투갈

I-2. 추진연혁

◀ 추진경과

연도	내용	세부내용
'09년		• OECD 세계포럼 개최시(3차, 부산) '국민 삶의 질 측정' 대한 자체 연구 수행
'11년		•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수행(한국사회학회와 공동)
'12~'13년	미생산 지표 생산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지표 '사회통합실태조사('13년)'에서 생산
	지표 검토	• 지표체계 타당성 내부 검토 및 보완: 전문가 의견수렴('13년 9, 11월)
	의견 청취	• 국가통계 발전포럼(6월) 및 별도 포럼(12월) 개최
'14년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4월) • 국가통계위원회(사회제2분과)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상정(6월) • 청내 및 관련부처(8개) 의견 수렴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30일~)
'15년	지표 고도화 및 추가지표 공개	• 지표검토위원회 개최 • 청내 사이트 개선의견 수렴 • 추가지표 공개: 9월, 12월(지표 공개완료)

II. 추진과정: 쟁점과 대응방안

1. 삶의 질 측정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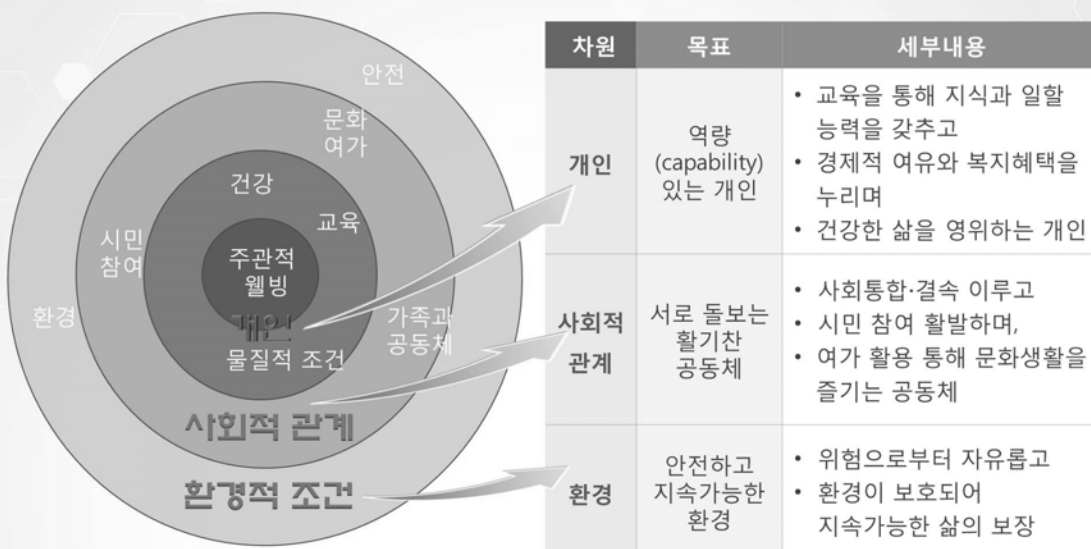
쟁점	내용	문제제기
작성주체 (통계청 vs. 민간)	• 국가통계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가치개입) • 누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언론, 학계
지표선정의 중립성	• 지표선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부기관 추진 시 왜곡가능성) • 국민 체감지표 선정을 위해 상향식 선정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언론, 학계
결과물 산출방식 (지표제공 vs. 종합지수)	• 중립 지수화를 위해서는 가중값 부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 언론, 학계, 국회
지표 제공방법	• 보고서 작성, 온라인 제공 등 지표 제공방법	

II-2. 쟁점별 해결방안

쟁점	접근방법	해결방안
작성주체 (통계청 vs. 민간)	• 전문가 및 학계의견 수렴(포럼 2회 개최) • (해외사례 검토) 주요국가 통계청에서 작성되거나 통계청과 정부기관 공동 작성	• 다양한 접근법에 기초한 국민 삶의 질 측정에 필요한 정확한 지표통계 생산 및 제공(스티글리츠 위원회 권고)
지표선정의 중립성	• 해외사례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의견 수렴	•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 운영 • 국민의견 제시 가능한 온라인 공간 운영 • 한국사회학회 용역 결과 활용
결과물 산출방식 (지표제공 vs. 종합지수)	• 해외 통계청의 경우 지표값만 제공 • 포럼 개최 결과 → 지표생산 중점 • 스티글리츠 위원회 권고→중립성 논란 • 지표검토위원회 의견 수렴	•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음 - 개별 지표값만 제공
지표 제공방법	• 해외사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 시계열 지표값을 보정 없이 온라인 제공

II-3. 측정방법: 프레임워크

☑ 삶의 질 측정 만다라: 3개 차원, 12개 영역으로 구성



II-3. 측정방법: 지표구성

▣ 영역별 지표수 ('15년 9월 기준)

영역		전체 지표수	공개 지표수
물질 부문 (4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8	8
	고용·임금	6	6
	사회복지	3	3
	주거	5	5
	소계	22	22
비물질 부문 (8개 영역)	건강	9	8(1)
	교육	9	9
	문화·여가	6	6
	가족·공동체	8	8
	시민참여	7	7
	안전	9	8 (1)
	환경	8	8
	주관적 웰빙	3	3
	소계	59	57
전체		81	79

II-3. 측정방법: 측정지표

영역	하위 영역	객관지표 (57종)	지표수	주관지표 (24종)	지표수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6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2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5	일자리 만족도(+)	1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3	-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비용(-)	4	주거환경 만족도(+)	1
비물질 부문	건강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7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2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교육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7	-	2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II-3. 측정방법: 측정지표

통계개발원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57종)	지표수	주관지표 (24종)	지표수
비물질 부문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4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2
		문화활동		-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6	가족관계 만족도(+)	2
		가족형태		-	
		사회적관계		-	
		공동체참여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참여	정치참여	2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5
		시민적의무		시민의식(+)	
		시민적권리		부패인식지수(+)	
		신뢰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7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2
		사고		-	
	환경	에너지	6	-	2
		대기		-	
		물		-	
		폐기물		-	
		기후변화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의 질		체감 환경 만족도(+)	
주관적 웰빙	-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3

II-4. 측정결과 온라인 서비스

통계개발원

☑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qol.kostat.go.kr

통계청 | 통계개발원 | KOSIS | e-나라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KOREAN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우리의 수준은? 국내외 동향 관련 자료 참여공간

Korean Quality of Life

"... growth is not an end in itself, but rather an instrument for creating better conditions of life"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OECD 각료회의, 1970]

가구 평균 순자산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에 해당하는
23,055 만 원 34 만 원
12개 영역의 81종 지표로 구성됩니다.

물질 부문	비물질 부문
소득 · 소비 · 자산	교육
고용 · 임금	건강
사회복지	문화 · 여가
주거	가족 ·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W 교육 시민참여

고용 임금 건강 안전

사회복지 문화 여가 환경

주거 가족 공동체 주관적 웰빙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4

II-4. 측정결과와 온라인 서비스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KOREAN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우리의 수준은?

국내외 동향

관련 자료

참여공간

통계청 | 통계개발원 | KOSIS | e-나라지표

영역

Home • 우리의 수준은? • 영역

국민 삶의 질 지표 

전체 8종 지표 중 현재 공표 가능한 지표는 70종이며, 이 중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상향표

개선 3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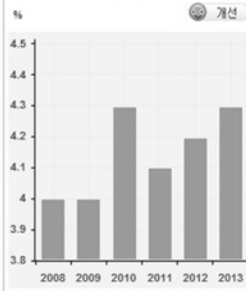
악화 22종



문화·여가 문화활동

문화여가 지출 비율

가구의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문화여가비: 영상문화기기, 사진영상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문화 및 정보기기수리, 악기, 장난감, 취미용품, 생활문화 관련 상품, 화폐, 예금통장 관련 용)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5

II-4. 측정결과와 온라인 서비스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KOREAN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우리의 수준은?

국내외 동향

관련 자료

참여공간

종합상향표

전체 지표

지표

Home • 우리의 수준은? • 지표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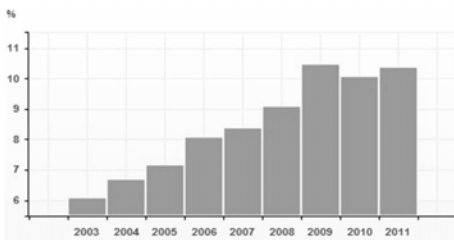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열병



사회복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지표정의	OECD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로 공적재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함
측정방법	(사회복지지출액 / GDP) × 100
규정방향	*
작성주기	1년 (다음 업데이트 예정: 2014. 12)
출처	보건복지부, 행정통계 (OECD 계층 통계자료)
지표의의	전체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임
관련파일	3.1.2_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xlsx

※ 사회복지

지표명	단위	분석년도								규정방향	최근증경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적연금 가입률	%	61.4	62.8	62.6	63.3	64.8	66.3	67.3	68.4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8.1	8.4	9.1	10.5	10.1	10.4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45.2	44.9	45.1	43.3	43.6	44.6	45.5		↘	

※ '-' 표시는 실측값이 없는 연도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6

II-4. 측정결과와 온라인 서비스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7

III.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1. 국민 삶의 질 지표 (2015. 9. 기준)

* 판정기준: 지표방향(±)을 고려 '개선/악화': 최근변화율 > 1/2 | 평균변화율
'보합': 최근변화율 ≤ 1/2 | 평균변화율

영역	전체 지표수	공개 지표수	최근 변화추세		
			개선(▲)	보합(≒)	악화(▼)
물질부문	소득·소비·자산	8	6(75.0%)	2(25.0%)	0(0.0%)
	고용·임금	6	3(50.0%)	0(0.0%)	3(50.0%)
	사회복지	3	2(66.7%)	0(0.0%)	1(33.3%)
	주거	5	3(60.0%)	0(0.0%)	2(40.0%)
	소계	22	14(63.6%)	2(9.1%)	6(27.3%)
비물질부문	건강	9	7(87.5%)	0(0.0%)	1(12.5%)
	교육	9	6(66.7%)	2(22.2%)	1(11.1%)
	문화·여가	6	4(66.7%)	1(16.7%)	1(16.7%)
	가족·공동체	8	1(12.5%)	1(12.5%)	6(75.0%)
	시민참여	7	2(28.6%)	2(28.6%)	3(42.9%)
	안전	9	5(62.5%)	0(0.0%)	3(37.5%)
	환경	8	2(25.0%)	4(50.0%)	2(25.0%)
	주관적 웰빙	3	0(0.0%)	1(33.3%)	2(66.7%)
	소계	59	27(47.4%)	11(19.3%)	19(33.3%)
	전체	81	41(51.9%)	13(16.5%)	25(31.6%)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8

Ⅲ-1.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개발원

▣ 개별 지표별 최근 추세판정 결과 종합

영역			지표	추세	영역	지표	추세
물질적 영역	소득 · 소비 · 자산	1인당 GNI	▲	고용 · 임금	고용률	▲	
		균등화 중위소득	▲		실업률	▼	
		균등화 중위소비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가구평균 순자산	≈		근로시간	▼	
		지니계수	≈		저임금근로자비율	▼	
		상대적 빈곤율	▲		일자리 만족도*	▲	
		소득만족도*	▲	주거	1인당 주거면적	▲	
		소비생활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사회 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		통근/통학 소요시간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주거비용	▲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주거환경 만족도*	▼		
비물질적 영역	건강	기대수명	▲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	
		고혈압 유병률	▲		고등교육 이수율	▲	
		당뇨 유병률	▼		평생교육 참여율	▲	
		주관적 건강평가*	▲		학업 중단율	▲	
		스트레스 인식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비만율	▲		PISA 백분위 순위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대졸생 취업률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학교 교육의 효과*	≈	
					학교 생활 만족도*	▲	

Ⅲ-1.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개발원

영역			지표	추세	영역	지표	추세
비물질적 영역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	가족 · 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	
		여가활동 만족도*	▲		가족관계 만족도*	▼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		한부모 가구 비율	▼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독거 노인 비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자살률	≈	
		문화여가 지출 비율	▲		사회적 관계망	▼	
	시민 참여	투표율	▲		사회단체 참여율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지역사회 소속감*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강력범죄 발생률	▲		
		시민의식*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부패인식지수*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대인신뢰*	▲	도로 사망률	▲		
	환경	개인신뢰*	▼	아동안전 사고 사망률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미세먼지 농도	▼	산업재해율	▲		
		하수도 보급률	≈	화재 발생 건수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긍정정서*	▼	
		기후변화 불안도*	≈		부정정서*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체감 환경 만족도*	▼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0

Ⅲ-1. 측정결과: 국민 삶의 질 지표

❖ 추세분석 결과

- 공개지표(79개) 중 비교대상 전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지표가 많음
 - 개선 41개(51.9%), 보합 13개(16.5%), 악화 25개(31.6%)
- 물질 부문에서 개선지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물질 부문은 악화지표의 비율이 물질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물질부문: 공개지표 22개 중 개선 14개(63.6%), 보합 2개(9.1%), 악화 6개(27.3%)
 - 비물질 부문: 공개지표 57개 중 개선 27개(47.4%), 보합 11개(19.3%), 악화 19개(33.3%)
- 영역별 개별지표 변화추세
 - 개선: 소득·소비·자산, 건강, 교육, 문화·여가, 안전
 - 악화: 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Ⅲ-2. 측정결과: 국제비교

☑ 각 지표별 한국의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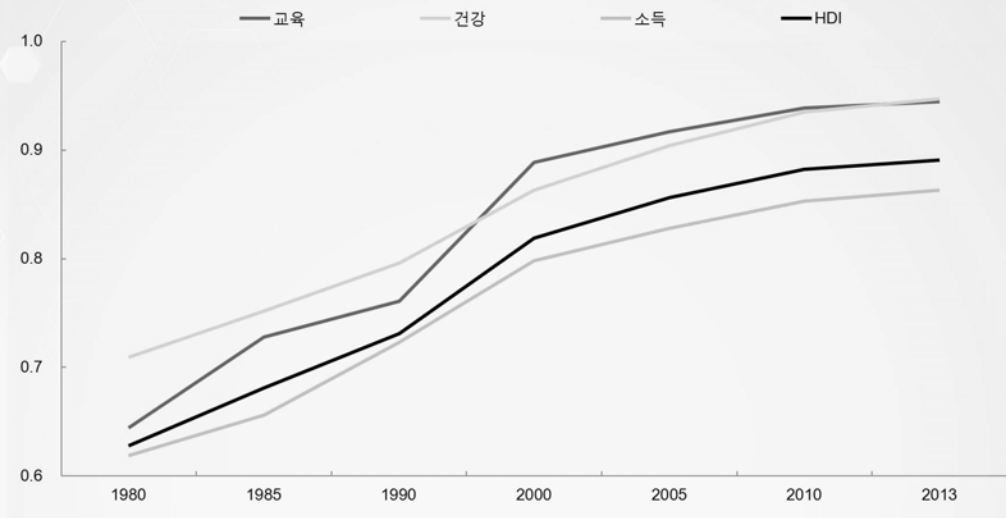
		HDI(2013)		BLI(2015)
		HDI	IHDI	
세계 평균		0.702	0.541	-
OECD		0.876	0.758	-
한국		0.891	0.736	-
한국 순위	세계	15/187	-	-
	OECD	14/34	-	27/36

주: 1) IHDI는 불평등을 반영한 수치로 HDI에서 수명, 지식 및 생활수준에 대한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면 IHDI는 감소, 이 경우 집계하지 않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Ⅲ-2. 측정결과: 국제비교

통계개발원

▣ 한국의 HDI 및 구성요소별 지수값의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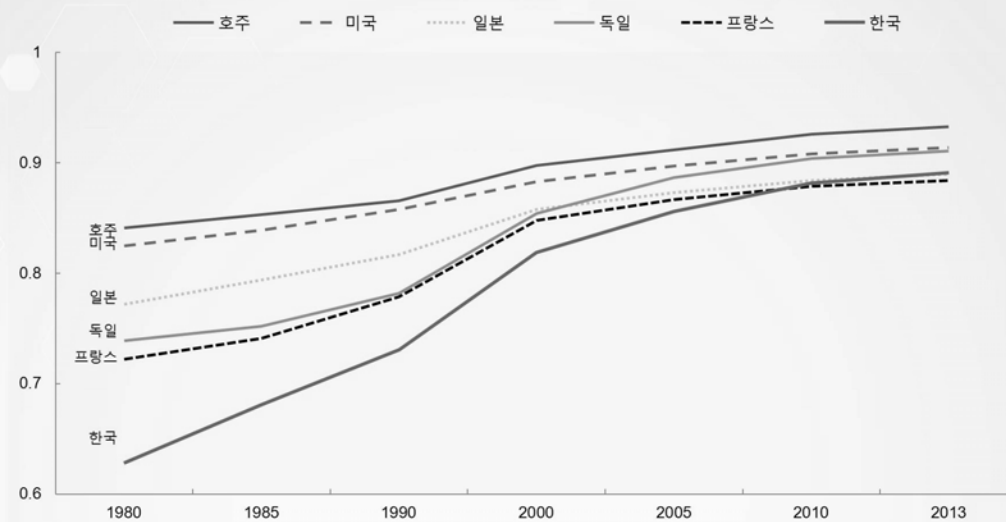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3

Ⅲ-2. 측정결과: 국제비교

통계개발원

▣ 한국과 주요국가의 HDI 값의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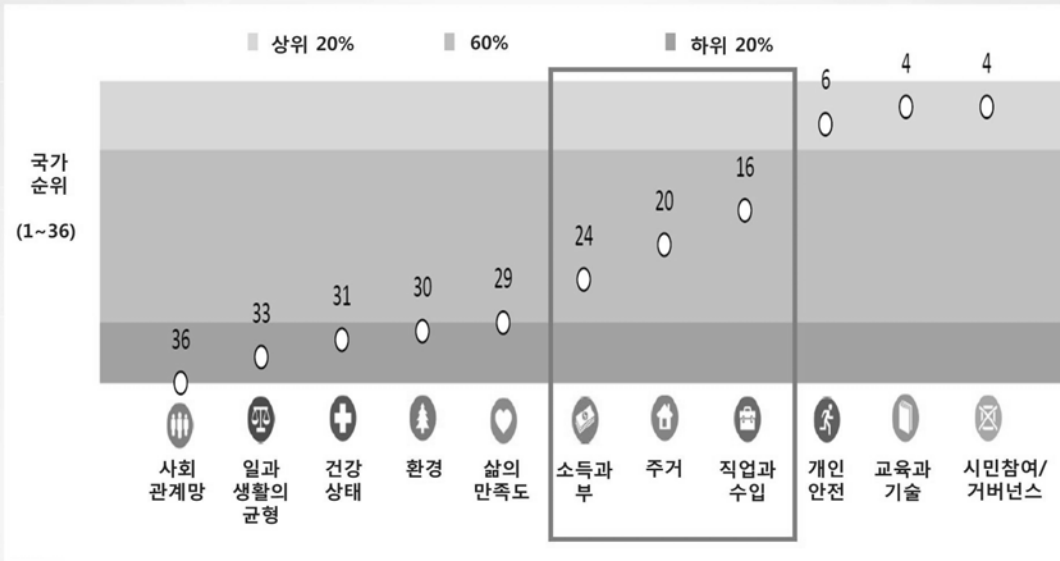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4

Ⅲ-2. 측정결과: 국제비교

통계개발원

▣ BLI 영역별 한국의 순위 비율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5

Ⅲ-2. 측정결과: 국제비교

통계개발원

▣ BLI 영역 및 지표별 한국 순위

영역	지표명	지표 순위	영역 순위
물질적 조건	주거	주거관련지출	20위(중간 60%)
		기준시설을 갖춘 주거	
		개인당 방수	
	소득과 부	가구당 금융순자산	24위(중간 60%)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업과 수입	직업안정성	16위(중간 60%)
		개인소득	
		고용률	
삶의 질		장기 실업률	36위(하위 20%)
	사회 관계망	지원관계망의 질	
		기대교육기간	
	교육과 기술	학생들의 기술	4위(상위 20%)
		교육 성취	
		교육 성취	
	환경	수질	30위(하위 20%)
		대기의 질	
	시민참여/거버넌스	규칙제정에서의 협의	4위(상위 20%)
		투표 참여율	
	건강상태	자기보고 건강상태	31위(하위 20%)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29위(하위 20%)
		살인률	
	개인 안전	살인률	6위(상위 20%)
		폭행 피해율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33위(하위 20%)
		장시간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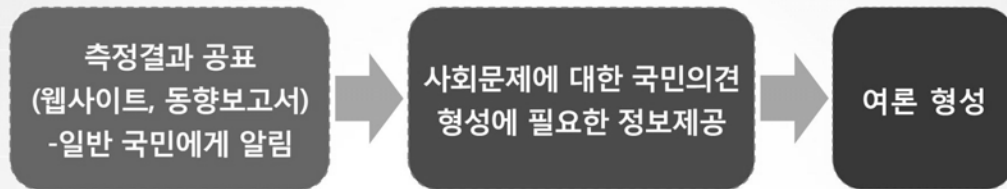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6

IV. 정책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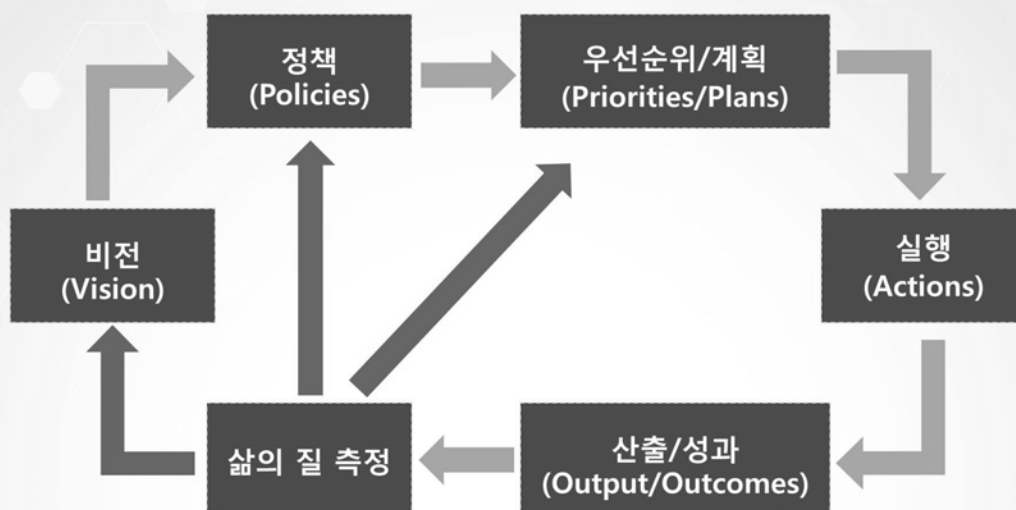
1. 삶의 질 측정의 활용방법(Noll, 2004)

- 계몽적 기능: 민주주의의 인프라 기능



IV-1. 삶의 질 측정의 활용방법(Noll, 2004)

- 정책적 활용



▶(평가) 계몽기능은 성공적, but 정책활용은 기대에 못미침

IV-2. 정책적 활용 미흡 사유 : lesson from social indicators movement

❖ Esping-Anderson(2000)

- 1960-70년대 진행된 사회지표에 대해 이론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기술적이며 (pure descriptive), 정태적, 비역사적이라 비판
- 사회동향을 추적하는 개별적 측정에 기초함

❖ Cobb(1998)

- 사회지표의 측정결과가 왜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정책활용으로 나아가지 못함
-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인과적 연구성과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IV-3. 정책적 활용을 위한 조건

- ❖ 삶의 질 측정 연구 및 지표작성 작업은 통상적으로 측정에서 정책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음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지표) 개발



(2단계) 인과요인 파악과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표 개선



(3단계) 삶의 질 개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지표 활용

IV-4. 정책적 활용 전략 : 이스라엘 사례(국가단위)

통계개발원 

◀ 웰빙 측정의 목적

시민에게
웰빙의 상태와
비교의 준거가 되는
포괄적 보고서 제공

정부에도
웰빙의 상태에 대한 분석 및
증거기반
정책 형성을 위한
포괄적 보고서 제공

* 정부결의안으로 채택(2012)

IV-4. 정책적 활용 전략: 이스라엘 사례

통계개발원 

◀ 접근방법: SPORTS

	세부내용
이해관계자 (Stakeholder)	-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고, - 지표와 동향을 설명할 수 있으며 - 정치인들과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존경 받을 만한 사람
후견 (Patron)	- 지원해주는 저명한 정치가 필요
책임부여 (Ownership)	- 다른 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이 처음부터 과정을 담당하고 각 영역을 책임짐
보고 (Report)	-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동향을 제시함
전략 (Tactics)	- 매년 장관계획에 따라 지표를 통합하여 정책입안에 단기적 영향을 끼침
계획수립 (Strategy)	- 정부 전략계획의 지표와 동향을 통합하여 정책에 장기적 영향을 끼침

IV-4. 정책적 활용 전략: 이스라엘 사례

통계개발원

◀ 지속적인 진행과정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33

IV-5. 향후과제

통계개발원

◀ 측정결과 홍보강화

- 분석보고서 작성: '09~'14년 1차 지표 개발완료→분석 보고서 작성
- 웹사이트 개선: 지표값 공개 완료 및 세분화 노력 필요

◀ 측정의 고도화

- 지표개선/세분화: 지속적 지표개선 및 측정의 신뢰성 제고

◀ 국내 네트워크 강화 및 모임 정례화

- 삶의 질 측정 연구자 및 관련부처와의 협력 강화
- 측정결과 활용 유도
 - 종합지수화 등 제공 지표를 가공한 분석작업 유도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34





1-2

농어민 삶의 질 지표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11.24 심재현

목차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





농어촌 삶의 질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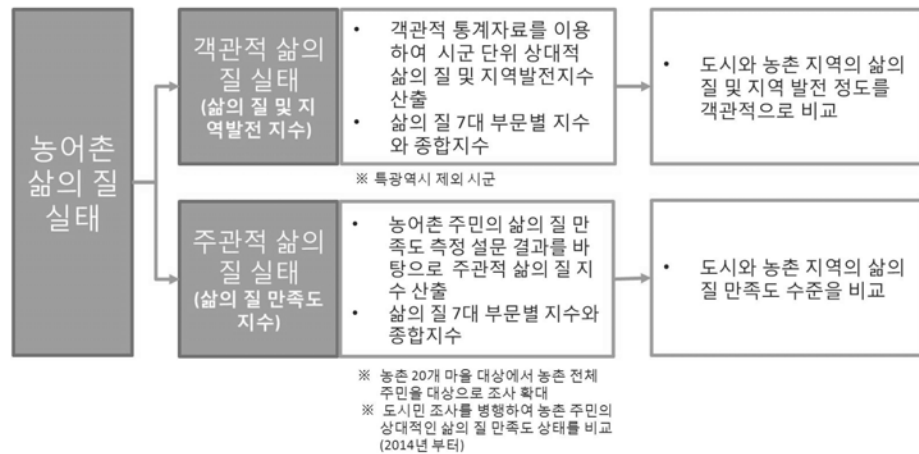
주요 내용과 변천사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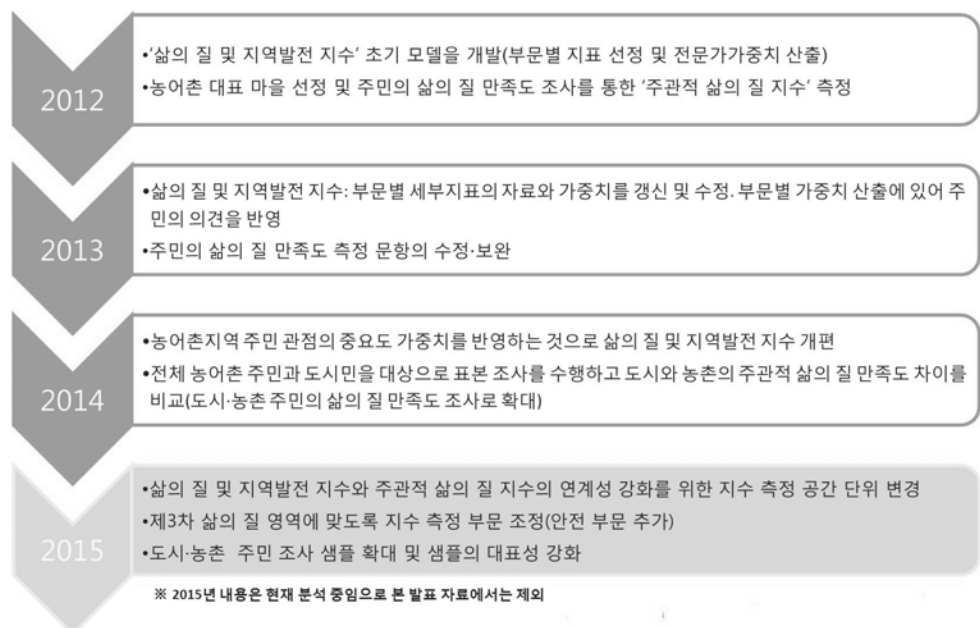
- 농어촌 삶의 질 현황 파악과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를 목적으로 지역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수행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 2004년부터 5년 단위 제1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이 수립
 - 현재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임(2015~2019)
 - 본 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주요 내용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조사 추진 연혁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측정 방법과 결과

객관적, 주관적 측면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측정



객관적 삶의 질 수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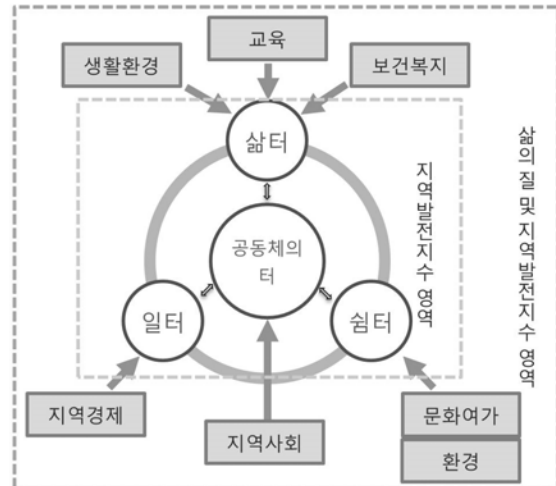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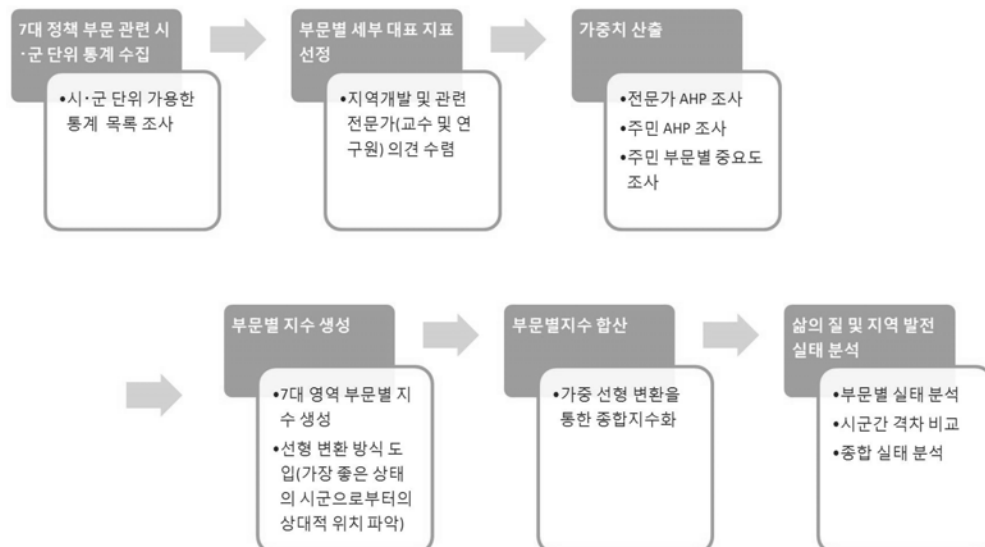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내용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 발전지수'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질에 관련되는 7대 정책 부문에 맞춘 7개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

- 생활환경: 주거, 생활 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지역사회: 사회 활력과 성장 잠재력 관련 부문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환경: 심터로서의 지역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 별로 지표를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구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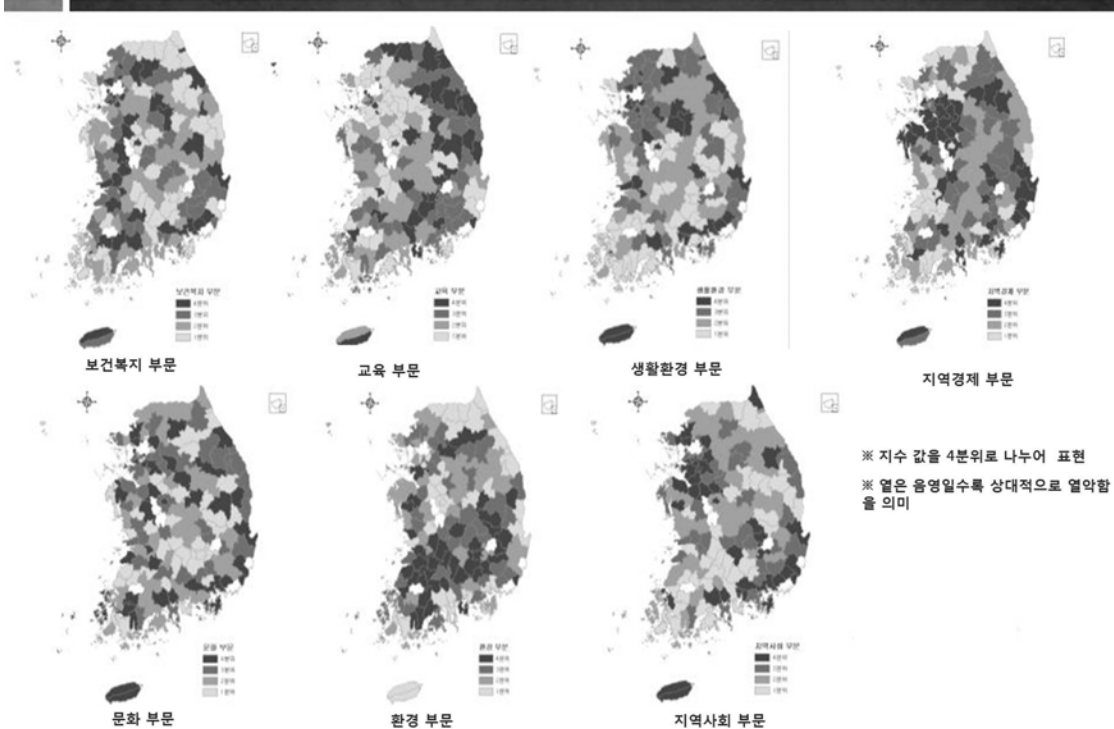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 지표

구분	지표	내용
보건 · 복지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의료인 수/인구)×1,000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당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수/시·군 면적)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65세 이상 인구)×1,000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원 수/인구)×1,000
교육	1㎢당 학교 수 (초·중·고·특수학교)	·총 학교수(초·중·고·특수학교)/시·군 면적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수/교원 수
	대학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자(4년제, 2년제 포함)/졸업자 수)×100
생활 환경	노후주택 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상·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2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생활서비스 종사자수/인구)×1,000 ·생활서비스: 슈퍼마켓, 약국, 목욕탕,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세부 지표(계속)

구분	지표	내용
지역 경제	고용률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총 사업체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1,000
	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자체수입: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세입기준)
문화 · 여가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	·공원: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환경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 인구 ·생활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시·군 면적(km ²)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총 인구)×100
지역 사회	인구 1천 명당 순인구이동	·(순인구이동/인구)×1,000 ·순인구이동: 전입인구-전출인구
	전출률	·(지역 외부로 이동 인구/인구)×1,000
	연평균 인구 성장률	·(당해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자살자 수/인구)×100,000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산출 결과(2014년 부문별 지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산출 결과(2014년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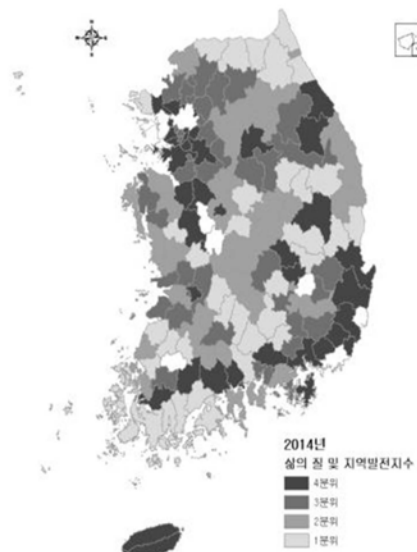
지수 상위 25% 시군

- 상위 35개 시·군: 기장군, 제주시, 화성시, 김해시, 양산시, 구미시, 창원시, 서귀포시, 화순군, 용인시, 진주시, 포항시, 아산시, 계룡시, 거제시, 순천시, 공주시, 강릉시, 안동시, 울주군, 원주시, 영암군, 칠곡군, 광양시, 김포시, 경주시, 천안시, 정선군, 파주시, 사천시, 경산시, 완주군, 춘천시, 홍성군, 제천시

지수 하위 25%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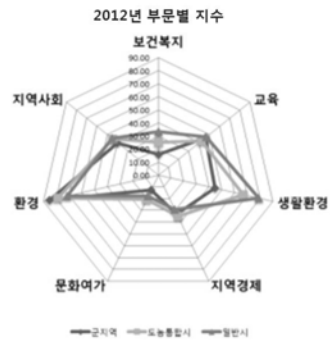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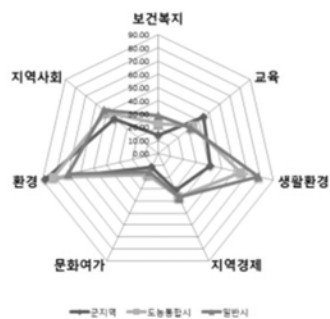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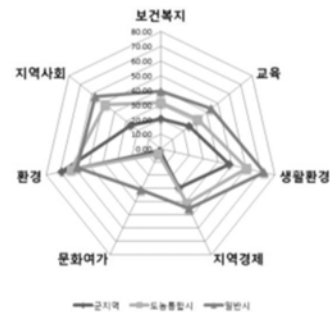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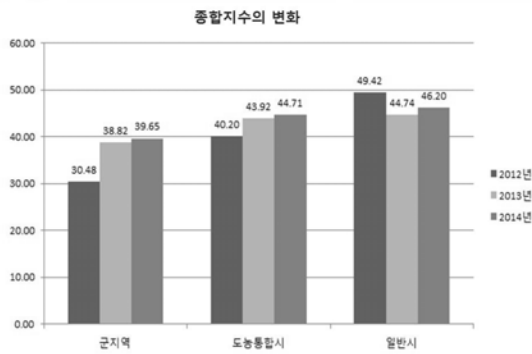
- 하위 35개 시·군: 옹진군, 해남군, 고성군, 울릉군, 봉화군, 의성군, 완도군, 합천군, 함평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화천군, 강화군, 군위군, 양구군, 장성군, 청양군, 영주시, 양양군, 의령군, 하동군, 영덕군, 진안군, 보은군, 괴산군, 보성군, 성주군, 함양군, 논산시, 장흥군, 고창군, 단양군, 장수군, 철원군

※ 일반시를 제외한 138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정리



※ 열은 읍영일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의미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변화(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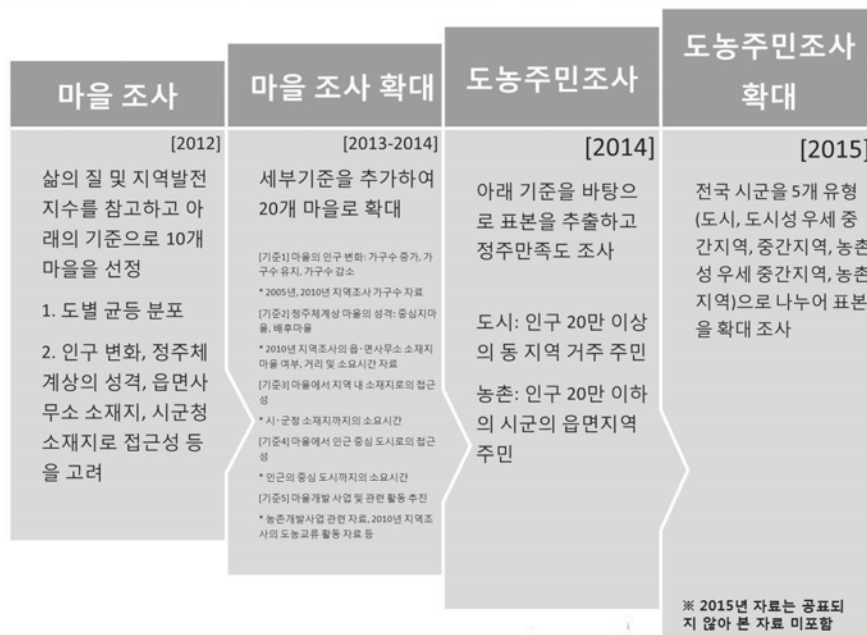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내용

-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질 여건, 그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및 정주지(시·군, 마을)에 대한 인식을 파악
 -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를 도출
-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2014년 기준)

삶의 질 만족도	정책 부문별 중요도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 정주 여건을 고려한 삶의 질 만족도 • 정주지(마을 및 시·군)의 향후 발전에 대한 인식	• 7대 부문 + 안전: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도입될 '안전' 부문을 추가하여 조사	• 보건·복지,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경제, 문화·여가, 환경·경관, 지역사회, 안전 등 8대 부문별로 2~4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2013년도 조사에서는 안전을 제외한 7대 부문에 대하여 조사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조사 방법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 수행
 - 2014년 기준으로 마을 조사는 20개 마을 679명 조사
- 2014년 도농 주민 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수행
 - 2014년 기준 도시 610명 농촌 1,168명 조사



주관적 삶의 질 지수 구축 방법

7대 정책 부문별 정주 만족도 조사

- 7대 정책 영역별로 대표적인 만족도 문항을 11점 척도로 조사(0점~11점)

부문별 지수 산출

- 부문별 세부문항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부문별 만족도 지수를 산출

가중치 산출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의 가중치(부문별 중요도를 고려한 순위가중치)를 부여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가중 평균 값을 계산하여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도출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농촌 마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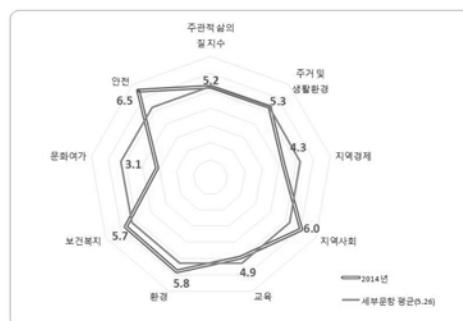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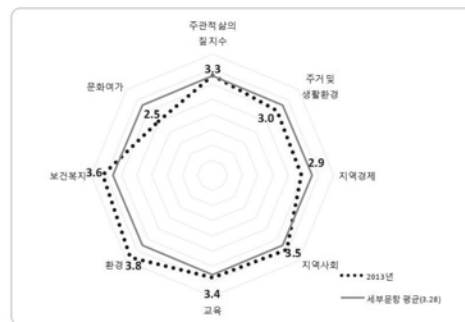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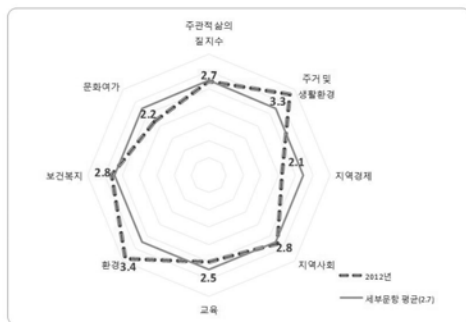
부문	평균 점수			상대적 여건('14)	세부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보건 복지	2.8	3.61	5.69	5.62 ▲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5.16 ▽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되고 있다
				5.74 ▲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되고 있다
				5.88 ▲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2.5	3.39	4.94	5.27 ▲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
				4.68 ▽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이 양호하다
주거 및 생활 환경	3.3	3.02	5.29	5.78 ▲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	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4.82 ▽	생필품 구입, 목욕탕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57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지역 경제	2.1	2.92	4.28	4.15 ▽	적절한 소득기회(일거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4.55 ▽	최근 1년간을 볼 때,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좋아졌다
				4.29 ▽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 여가	2.2	2.52	3.15	3.55 ▽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있다
환경 경관	3.4	3.82	5.79	5.72 ▲	환경과 경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름답다
				5.83 ▲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지역 사회	2.8	3.46	6.04	6.06 ▲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98 ▲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안전	-	-	6.53	6.73 -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전 체	2.7	3.25		5.26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주3: 상대적 여건은 22개 세부항목의 평균점수(5.26점)와 비교 시 상대적 높고(▲)·낮음(▽)을 의미함.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농촌 마을 조사)



2014년 부문별 지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도농 주민 정주 만족도)

도시민의 삶의 질 중요도 순위		만족도 평균점수		
중요도 순위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	도시	농촌	(농촌-도시)
1	보건·복지	6.61	5.07	-1.54
2	주거 및 생활환경	7.29	4.8	-2.5
3	교육	6.22	4.41	-1.82
4	지역경제	5.15	3.84	-1.31
5	안전	6.54	5.83	-0.71
6	문화·여가	6.03	2.87	-3.16
7	환경·경관	6.35	5.26	-1.09
8	지역사회	5.18	5.45	0.27



향후 계획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의 개편



주요 개편 방향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 부문과 연계한 삶의 질 지수 구성
 - '안전'을 포함한 7대 부문으로 재구성하여 부문별 지수를 생성
 - 정책 영역별 농어촌 삶의 질 현황 모니터링
- 주관적 삶의 질 지수와 객관적 삶의 질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안 마련
 - 부문별 지역 삶의 질 여건(객관적 지표)과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주관적지표)의 변화 측정, 분석(매년)
 - 정책 추진에 따른 삶의 질 여건 개선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도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성과 모니터링 등에 활용
- 농어촌 삶의 질 통계 DB 구축과 자료 제공 서비스 구축
 - 지수와 더불어 지표 형태의 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련한 연구,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노인의 삶의 질 지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삶의 질 지표: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2015. 11. 2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주요 발표내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논의의 배경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지표의 적용

4 향후과제

논의의 배경

| 1. 논의의 배경

② 노인인구의 급증

-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은 662만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3.1%, 662만4천명의 규모
- 향후도 지속될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급증 →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이 한국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급증

③ 노인인구의 다양화

- 노인내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

〈 인구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명

구분	2015년	2026년
전체인구	5,061만7천명	5,204만2천명
65세이상 인구	662만4천명	1,084만명
고령화율(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중)	13.1%	20.8%
고령화율(전체인구 중 70세이상 인구비중)	8.9%	13.4%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② 국제기구의 고령화 관련 지표체계

- EU의 Active Ageing Index(28개국 비교)
- Helpage International의 Global AgeWatch Index(91개국 비교): 다양한 연령기준을 혼용하여 지수 산정

〈국제기구의 고령화 관련 지표〉

Active Ageing Index		Global Age Watch Index	
고용	55~59세 고용율/60~64세 고용율 65~69세 고용율/70~74세 고용율	소득보장	연금소득범위/노인빈곤율(60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복지(60세 이상)
사회참여	55세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55세 이상 자녀(손자녀)돌봄제공율 55세 이상 노인(장애인)돌봄율 55세 이상 정치활동참여율	건강상태	60세 기대여명 60세 건강기대수명 심리적 안녕감(50세 이상)
독립적,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55세 이상 운동실천율 55세 이상 의료(치과치료)미충족율 75세 이상 중 단독가구율 65세 이상 상대적 중위소득 55세 이상 안전감 55~74세 평생교육참여율	능력(고용과 환경)	노인고용율(55~64세군) 노인교육수준(60세 이상)
		우호적 환경	사회적 연계망(50세 이상) 안전감(50세 이상) 시민적 자유(50세 이상) 대중교통 접근성 만족도(50세 이상)

자료 : UNCE/European Commission(2015), Active Ageing Index 2014; Help Age(2015), Global AgeWatch Index 2014.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② 국외: 개별국가의 노인관련 지표체계

- 미국: Older Americans: Key Indicators of Well-being(2012)

영역	개별지표
인구	고령자수/인종과 민족 구성/결혼 상태/교육 수준/생활 수준/고령 퇴역군인
경제	빈곤/소득/소득원/순자산/노동참여/총지출/주택문제
건강상태	수명/사망률/만성질환/감각장애 및 구강건강/주관적 건강상태/우울증/기능제한
	예방접종/유방촬영/영양수준/운동/비만/흡연/대기상태/시간의 사용
	건강관리서비스 사용/의료지출/처방약품/건강보험자원/자부담 의료비 지출액/건강관리서비스 지불비용의 자원 /퇴역군인 건강관리/재가서비스/개인 자원 및 장비
	임종(end of life)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② 국외: 개별국가의 노인관련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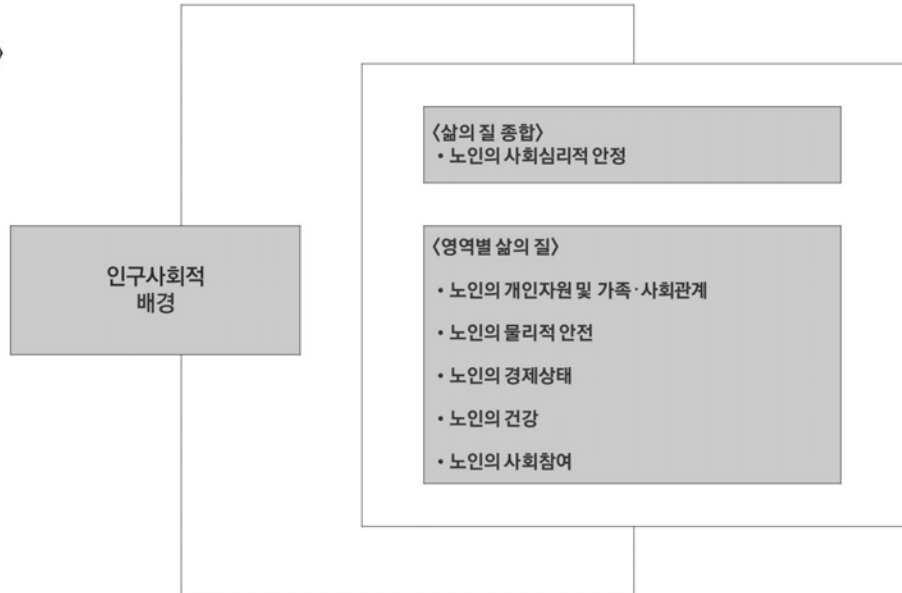
- 뉴질랜드: Positive Ageing Indicators(2007)

영역	개별지표	영역	개별지표
소득	가처분 소득/사적 소득/생활수준/저소득	마오리 문화정체성	Te ao Maori/Te reo Maori speakers
건강	65세 기준 기대여명 일반건강/낙상과 낙상으로 인한 상해/흡연/미충족 1차의료/감기예방접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	대도시의 서비스 접근성/ 인터넷 접근도
거주	거주의 질/ 주택소유실태/가격 적절성	노화와 노인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신체활동/연령차별인식도
교통	운전면허소지율/공공교통수단 이용	고용	유급고용/시간당 임금
지역사회에 서의 생활	일반주택거주율/장애수당/범죄피해/ 범죄에의 두려움/타인에 대한 신뢰	기회	자원봉사활동 /외로움/교육활동참여/문화 및 예술활동 참여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②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②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 활용된 자료원: 행정통계나 인구 및 주택총조사와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각종 실태조사처럼 표본조사에 기초한 자료로 양분(주거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가계중향조사, 사회조사 등)
- 전체구성: 7개 영역-21개 중응역-48개 하위영역-146개 개별지표

대영역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수	대표지표	자료원 현황		
					정의에 상응하는 자료원 있음	정의와 유사한 자료원만 존재	정의에 상응하는 자료 없음
0. 인구사회적 배경	4	9	25	6	21	0	4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1	2	8	4	5(2)	2	1
2.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3	7	20	3	16	3	1
3. 노인의 물리적 안전	2	5	19	5	15	2	2
4. 노인의 경제상태	5	9	21	6	15	5	1
5. 노인의 건강	3	8	32	7	30(1)	0	2
6. 노인의 사회참여	3	8	21	4	17	2	2
종합	21	48	25+121	35	21+98(3)	14	4+9

주: 괄호안은 개별지표의 정의에 상응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자료 미공개 상태이거나 지표 정의에 상응하는 통계치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원자료 분석이 필요한 개별지표수임.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⑤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개별지표(1)

대영역	중영역-개별지표	
인구사회학적 배경	인구동향	노인인구비/노인가구비/노인부양비/노령화지수/평균수명/건강수명/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재정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노인복지지출의 구성/노인의료비 비율/공동모금액 대비 노인복지배분액 규모
	시설기반	장기요양시설 총족률/노인 만명당 노인복지관 수/노인 만명당 경로당 수/노인 만명당 노인교실 수/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노인 만명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수/노인 만명당 치매상담센터 수/노인 만명당 시니어클럽 수
	인식	노년기 희망 거주형태/노인복지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부모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노인에 대한 차별인식/노인연령기준
사회심리적 안정	노인의 행복감/노인의 자아존중감/노인의 계층의식/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노인자살률/노인의 학대경험률/노인의 범죄피해율/노인 범죄율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⑤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개별지표(2)

대영역	중영역-개별지표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 관계	개인자원	노인의 교육수준/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족관계	노인의 결혼상태/노인의 생존 자녀 수 노인의 생존 형제·자매 수/노인의 가구형태 노인의 배우자와의 활동 공유정도/노인의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노인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빈도/노인의 자녀와의 지원의 교환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노인의 친한 친구·이웃 수/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노인의 외출빈도 수/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노인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안전	거주환경	노인의 주택소유율/노인의 주택유형/임대주택분양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노인의 가정안전장치 설치율/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노인의 가정 내 불편한 환경존재율/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노인가구의 비자발적 주거이동률/노인가구의 슈바베 계수
	교통환경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의 자가운전율/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률 실버존 설치 수/노인의 안전교육 이수자 수/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도시철도 E/S 및 E/V 설치달성률/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⑤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개별지표(3)

대영역	중영역	개별지표
경제상태	소득	노인의 월평균 가구/균등화소득/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노인의 개인소득 구성/노인의 절대빈곤율/노인의 상대빈곤율/노인의 비소득 빈곤율/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자산 및 부채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노인의 소득·자산 소유 유형 노인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노인의 주 부채사유
	지출	노인가구의 가구지출액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
	소득 안전망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평균 수급액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절대빈곤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율 노인의 개인연금 수급률/노인의 퇴직연금 수급률/노인 중 주택연금 수급자 수
건강	건강수준	노인의 ADL 제한율/노인의 IADL 제한율/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노인의 낙상경험률/노인의 영구치우식 유병률/노인의 시력보조기(안경) 사용률/노인의 청력보조기(보청기) 사용률/노인의 등록장애인 비율/노인의 월간 와병경험률/노인의 치매유병률/노인의 우울증 비율/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별 비율/노인의 주관적 저작불편호소율
	건강관리	노인의 흡연율/노인의 과음주율/노인의 운동실천율/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노인의 구강검진 수검률/노인의 치매 조기검진율/노인의 암검진 수진율/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건강정책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노인의 치매 진료율/만성질환관리제 등록노인 수/노인의 2주간 외래이용률/노인의 연간 입원율/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노인의 의로서비스 만족도/노인의 미치료율(병의원)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체계 검토

⑤ 국내: 정경희 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개별지표(4)

대영역	중영역-개별지표	
사회참여	경제활동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노인의 경제활동이유 노인의 종사직종/노인의 종사상 지위 노인의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 공공 노인 일자리 수/노인의 경제활동만족도
	사회참여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노인의 자원봉사욕구충족률 노인자원봉사단체 수/노인의 투표참여율 노인의 사회기부율/노인의 사회참여만족도
	여가문화활동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노인의 평생교육욕구충족률 노인의 단체활동참여율/노인의 공연문화향유율 노인의 여행경험률/노인의 평균여가시간 노인의 종교활동참여율/노인의 여가문화활동만족도

주: 볼드체는 대표지표임.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지표의 적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⑤ Helpage International의 Global AgeWatch Index(91개국 비교): 다른 연령
층과 비교한 상대적인 노인의 삶의 질

	년도	전체 순위	소득 안정성	건강상태	능력(고용과 교육)	우호적 환경
한국	2015	60	82	42	26	54
	2014	50	80	42	19	54
	2013	67	90	8	19	35
이태리	2015	37	24	6	63	74
	2014	39	25	6	69	74
	2013	27	6	15	62	53

|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③ 한국노인의 삶의 질 지표: 인구사회적 배경- 수명과 사망-건강수명

- 평균수명은 81.44세('12)이나, 건강수명은 73세('12)로 8.44년의 차이가 발생
- 이는 건강하지 못한 노년기 후반에 대한 특화된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

〈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

2011년 기준연령	기대여명	건강수명	차이
평균수명(0세시 기대여명)	81.44	73.0	8.44
50세	33.05	24.81	8.24
55세	28.58	20.79	7.79
60세	24.21	17.08	7.13
65세	20.00	13.71	6.29
70세	15.99	10.87	5.12
75세	12.36	8.45	3.91
80세	8.20	6.34	1.86
85세	6.53	4.57	2.06

자료 : 고숙자, 정영호,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보건복지 Issue&Focus 제247호, 2014.

|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③ 인구사회적 배경- 재정-정부

- 정부재정은 '15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5.5% 증가했으나, 노인복지사업(기초연금제외)은 3.4%, 장기요양보험은 6.7%, 기초연금은 46.3%의 증가율을 보임

〈 정부재정 및 노인복지예산 증가율 〉

단위 : 조원, 억원, %

구분		연도		증가율
		2014(A)	2015(B)	
예산	정부 (단위: 조원)	355.8	375.4	5.5
	보건복지부(단위: 억원)	498,995	534,725	14.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단위: 억원)	11,432	11,823	3.4
	노인장기요양보험(단위: 억원)	40,439	43,152	6.7
	기초연금(단위: 억원)	51,827	75,824	46.3

주: 1) 대한민국 정부예산안 지침에 따라, 노인생활안정, 노인의료보장, 장사시설확충이 포함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의 경우, 2014년은 결산 기준, 2015년은 예산 기준임

자료 : 국회예산처 게시자료(2015.7.16. 반출); 예결산정보시스템(<http://nafs.assembly.go.kr>); 각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각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 노인의 경제상태-소득-노인빈곤율/장기요양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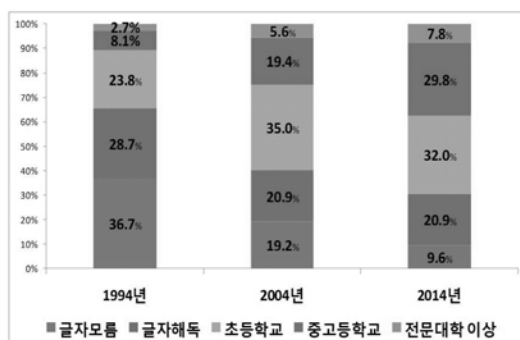
구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빈곤율(%)	노년부양비(명)	장기요양병상(침상)수(개)
OECD	전체	15.1	12.6	-	50.9
	한국	11.8	49.6	15.2	50.1
	미국	13.3	21.5	19.5	40.9
	일본	24.2	19.4	36.0	36.1

주: 1) 노인인구 2012년 기준 수치 2)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수치 3) 노년부양비는 2010년 기준 수치 4) 장기요양병상(침상)수는 2012년 수치
자료: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2013년 통계); OECD(2014), OECD Health Data; UN(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통계청(2013), 고령자통계

|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 노인의 개인 자원 및 가족·사회관계-개인역량-노인의 교육수준

- 다양화하는 노인의 교육수준 → 다양한 욕구 → 다양한 서비스/재화 요구
- 높아지는 교육수준 → 서비스 질과 수요자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2015	2025
무학	12.1	3.9
초등	32.9	12.2
중학	20.0	17.3
고등	23.3	42.7
(전문) 대학교 이상	11.6	18.4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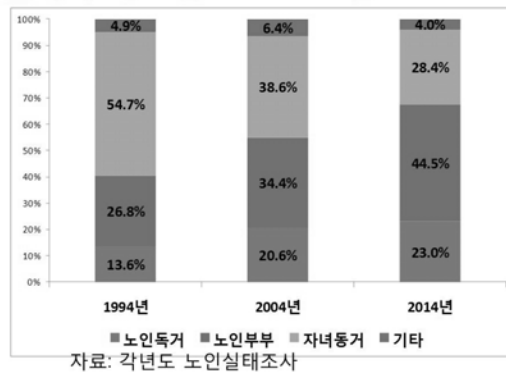
자료: 정경희·오영희 (2000).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및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pp. 55-65.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⑤ 노인의 개인 자원 및 가족·사회관계-가족관계-노인의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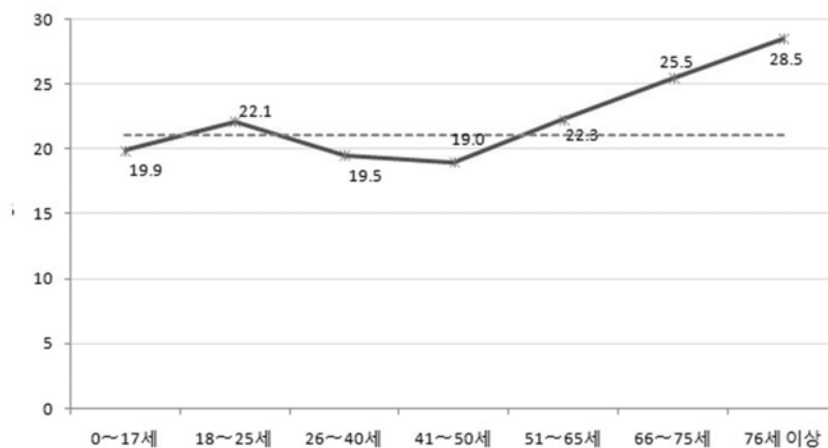
	2015	2026
1인가구 노인수	137만9천명	236만1천명
노인중 독거 %	20.8%	21.8%

⑥ 가구형태의 변화 추이: 04년 55.0% → '14년 67.5%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⑤ 노인의 물리적 안전-거주환경 최저주거기준미달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4).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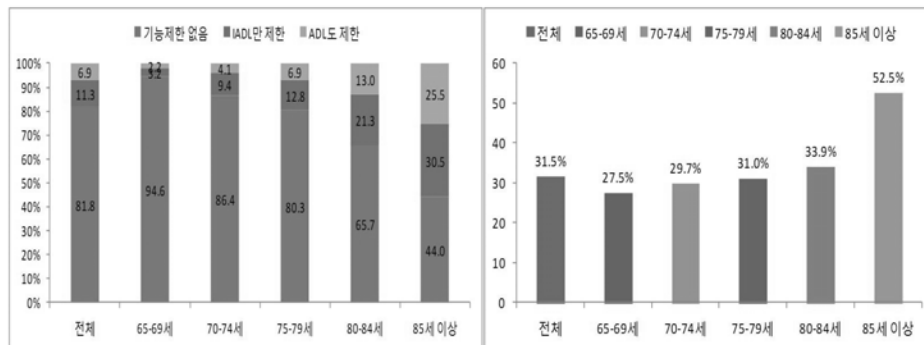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 노인의 건강-건강수준-기능제한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 연령군별 기능상태의 차이

- 80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높아지는 신체적 및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림) 노인(65세 이상)의 연령군별 신체적 기능 및 치매유병률



자료: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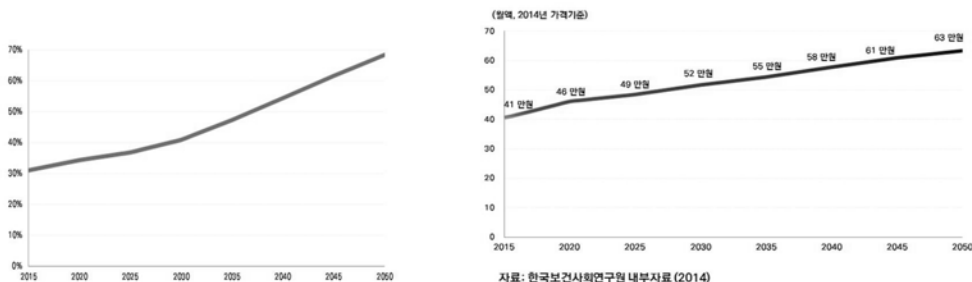
㉠ 노인의 경제상태-소득안전망-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국민연금 수급율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 30% → 2030년까지 40%대로 상향조정될 것임.

●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나 노인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기대수준에 비하여는 확대폭이 크지 않음.

● 또한 수급액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임.

(그림)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65세 이상) (그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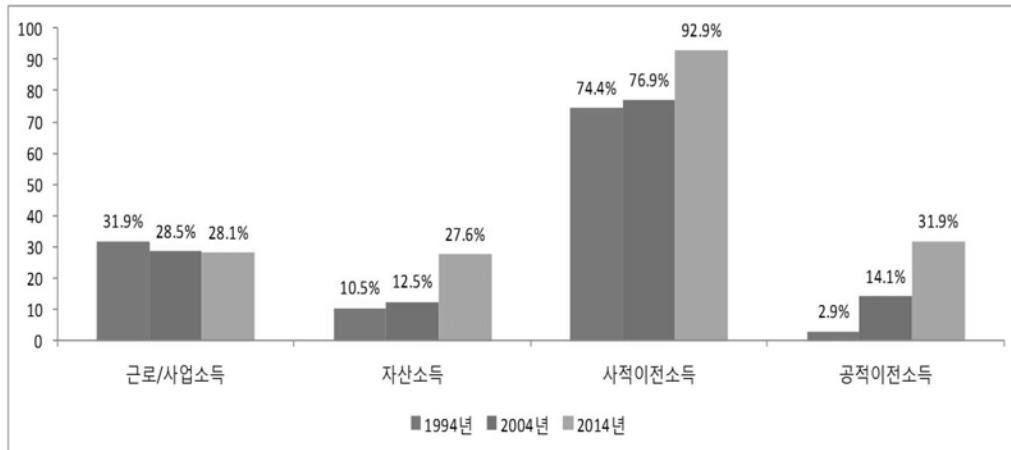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4)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 노인의 경제상태-소득안전망-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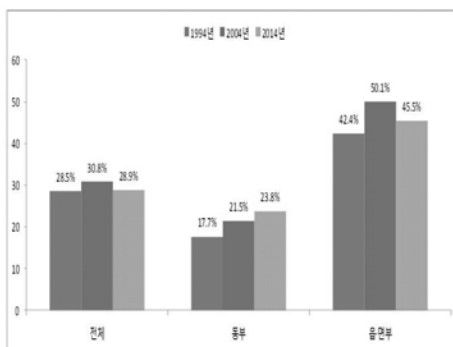
<노인의 개인 소득원별 소유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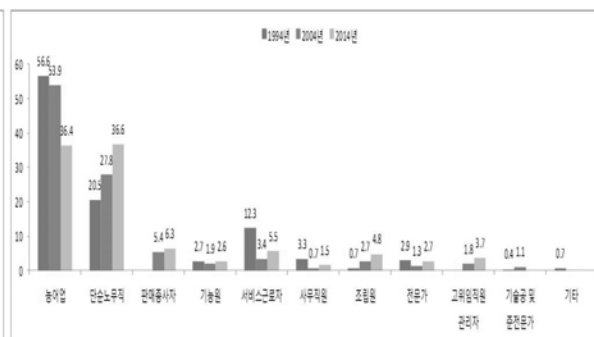
3.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현황

㉠ 노인의 사회참여-경제활동-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종사직종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근로직종>



향후 과제

| 4. 향후 과제

② 지속적인 통계생산방안

- 자료원이 전혀 없는 지표에 상응하는 통계 산출: 조사 또는 행정통계 등에 반영
- 사회조사(특히 주관적 지표)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현황 변화 반영
- 노인이 조사대상자의 일부인 조사: 노인 조사대상자 규모 확대
-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각 부처의 관심과 부처간의 협력
- 특히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종합적인 통계산출이 요구됨(예: 공공 노인일자리수)
- 민간영역의 고령화를 염두에 둔 통계산출 노력 경주
- 노인을 차별화된 관심집단으로 한 통계생산(예: 임대주택분양 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
- 통계를 산출하고 분류하는 연령기준의 표준화
- 통계산출 단위에 대한 고민(가구 vs. 개인)
- 기존에 조사되어 발표되고 있는 통계의 경우도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
- 지속적인 지표체계의 적용 및 고령화와 노인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주기적인 지표체계의 수정보완 작업

| 4. 향후 과제

④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 노인의 물리적 안전 확보
-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 모색
- 예방적 접근의 강화와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생활
- 다각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적극적 노후 문화 형성

감사합니다



1-4

지역 삶의 질 지표

(손민수, 서울대학교)



Contents 	
I	개요.....
II	지표선정.....
III	설문조사설계.....
IV	분석결과.....
V	함의, 활용, 한계.....

I. 개 요

1.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3년 7월 18일,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보고
 - 국정보고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도를 산출·관리할 것을 보고
- 지역의 행복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수의 보완 및 이를 활용한 지역 행복도 정도 제시
- 2013년 사업의 2차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역행복도의 수준을 측정하여 체감형 지역생활권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

3

I. 개 요

1.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목적

- 기초 지자체 및 지역행복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 행복 관련 지표를 구축
 - 2013년 개발, 2014년 1차 조사된 지역행복도 지표체계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를 통한 지표의 보완
-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지역의 행복도를 측정·발표
 -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행복도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4

I. 개 요

1. 연구계획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설문조사 시점인 2015년 6월 5일~26일 기준 주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12개 부문의 행복도 수준(중요도, 만족도) 측정
- 객관적 자료는 2014년 12월 기준
- 일부 자료는 2013년 자료 활용

● 대상적 범위

- 2015년 기준 기초 자치단체 230개로 설정
- 청원, 청주는 분리하여 조사 (객관적 자료 시점을 고려)

5

I. 개 요

❖ 세부 연구내용

- 지역행복생활권 지표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설정
 - 2014년 12월에 수립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중점추진분야로 제시된 5대 부문에 기초하여 지표체계 구성
- 행복도를 측정 기존 연구 사례 조사
-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 지역행복도 수준 조사
- 주관적 자료와 행정자료와의 부합성 검토
- 시군구별 GAP분석을 통한 상대적 위치 제시

6

I. 개요

2. 과업수행 방법

❖ 연구내용별 주요 수행 방법

- 지역행복생활권 지표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설정
 -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표 적용 방안 도출
 -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근거한 지역행복도 추출
- 만족도 조사의 사례 및 이론적 방법론 검토
 -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
- 만족도 조사
 - 지역별 주관적 중요도 및 만족도 실시
 -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제시

7

II. 지표선정

1. 지표구성

❖ 12개 부문

주택	안전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의료	생활인프라	주민참여

❖ 43개 정량지표

- 2014년 29개

❖ 25개 정성 지표

- 만족도 12개, 중요도12개, 전반적 만족 1개
- 2014년 12개

8

Ⅱ. 지표선정

2. 지표검토

❖ 지표 설정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중점추진분야인 5대 부문 기초
- 12개 부문으로 선정
- 전반적 만족도로 기준 설정

❖ 객관적 vs. 주관적

-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 상호성 검토

❖ 부문별 가중치 설정

- 동등가중치 적용을 통한 차등화 가중치 적용
- 반면, 종합지수 산출은 제한

9

Ⅱ. 지표선정

3. 지표구성

문항	지표	설문내용	점수	
			중요도	만족도
문1-1.	주택	(주택 등) 주거환경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2-1.	안전	안전한 환경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3-1.	교통	교통, 교통환경, 교통여건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4-1.	산업	지역산업 및 지역경기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5-1.	경제	지역일자리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6-1.	교육	교육환경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7-1.	문화	문화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8-1.	환경	깨끗한 공기와 물 등 환경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9-1.	복지	복지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10-1.	의료	병원 등 의료여건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11-1.	생활 인프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중요도 및 만족도		
문12-1.	주민참여	주민의 참여정도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

Ⅱ. 지표선정

3. 지표구성

문항	지표	설문내용
문13	종합만족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주거’, ‘환경’ 등 12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전반적인만족도

[보기] 0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

11

Ⅲ. 설문조사설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 17개 광역(230개 기초자치단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유:무=7:3)

조사규모 총 20,020표본(Sample) / 유효 표본수 기준

표본추출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만20세 이상 인구수에 따라 5개 범주구간을 설정 후, 지역·성·연령대별 인구비례 표본수 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Proportionate Random Quota Sampling)
※ 연도별 특성자료로 인하여 청주시, 청원군으로 분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pm 0.69\%$ Point
- 18대 대선 전국오차율 $\pm 3.3\%$ Point

조사기간 2015년 6월 5일~26일 (19일간)

12

Ⅲ. 설문조사설계

2. 표본설계

-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5개 범주구간을 설정 후, 성*연령대 고려 비율 할당
- 2014년 강제할당에 비해 객관적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20	100.0
성별	남성	10,006	50.0
	여성	10,014	50.0
연령대	20대	3,031	15.1
	30대	3,516	17.6
	40대	4,148	20.7
	50대	4,052	20.2
	60대 이상	5,273	26.3

13

Ⅲ. 설문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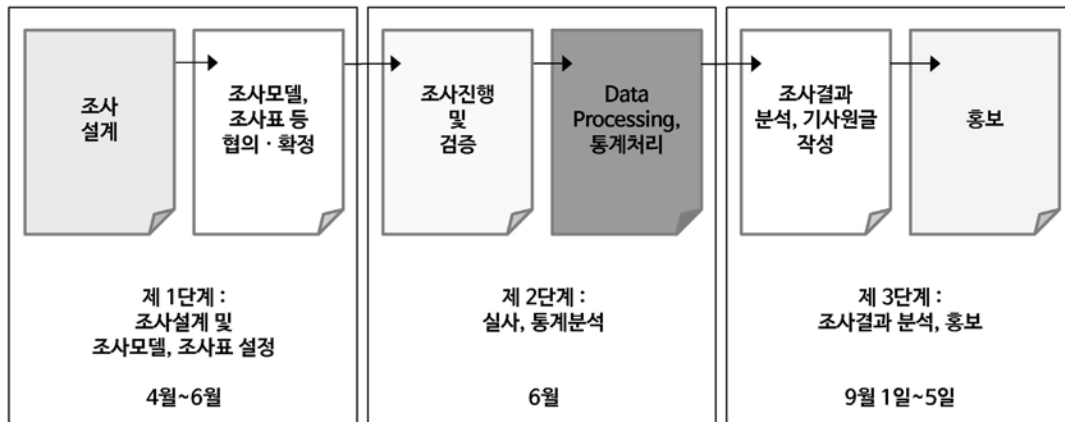
2. 표본설계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20	100.0
특광역시	시부	7,500	37.5
	도부	12,520	62.5
시군구	시	8,290	41.4
	군	4,710	23.5
	구	7,020	35.1
도농	시/구	15,310	76.5
	군	4,710	23.5
인구	5만 이하	3,100	15.5
	5만~10만 이하	3,080	15.4
	10만~30만 이하	6,750	33.7
	30만~50만 이하	4,680	23.4
	50만 이상	2,410	12.0

14

Ⅲ. 설문조사설계

3. 추진절차 및 단계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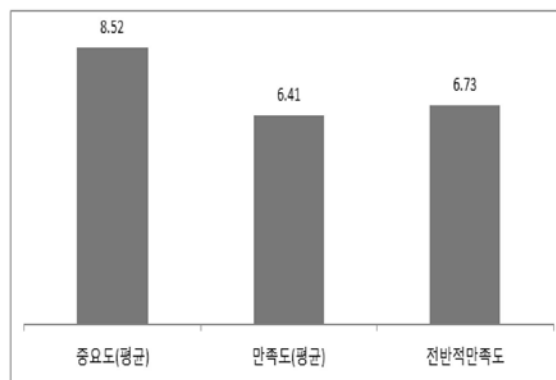


15

Ⅳ. 분석결과

1. 종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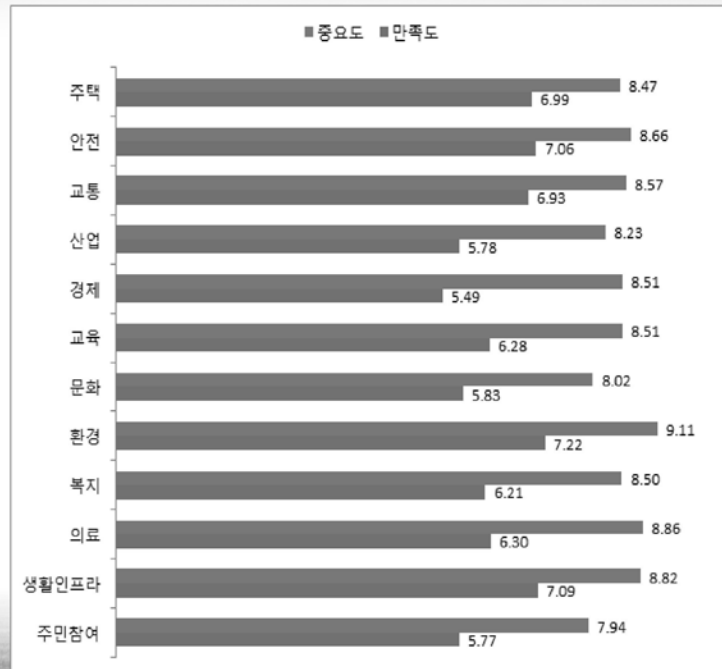
- ‘중요도’ 평균은 8.52점, ‘만족도’ 평균은 6.41점, ‘전반적 만족도’는 6.73점으로 산출
- 중요도는 ‘환경(9.11점)’, ‘의료(8.86점)’가 높은 반면, ‘주민참여(7.94점)’는 상대적으로 낮음
- 만족도는 ‘환경(7.22점)’이 가장 높고, ‘경제(5.49점)’가 가장 낮음



16

IV. 분석결과

1. 종합 결과



17

IV. 분석결과

1. 종합 결과

구분		사례수	중요도(평균)	만족도(평균)	전반적만족도
■ 전 체 ■		20,020	8.52	6.41	6.73
성별	남성	10,006	8.42	6.36	6.66
	여성	10,014	8.61	6.47	6.79
연령대	20대	3,031	8.45	6.54	6.98
	30대	3,516	8.58	6.26	6.63
	40대	4,148	8.61	6.34	6.64
	50대	4,052	8.53	6.31	6.60
	60대 이상	5,273	8.43	6.57	6.82
특광역시	시부	7,500	8.51	6.50	6.78
	도부	12,520	8.52	6.36	6.70

18

IV. 분석결과

1. 종합 결과

구분		사례수	중요도(평균)	만족도(평균)	전반적만족도
■전 체■		20,020	8.52	6.41	6.73
시군구	시	8,290	8.59	6.41	6.74
	군	4,710	8.42	6.25	6.62
	구	7,020	8.50	6.52	6.79
도농	시/구	15,310	8.55	6.46	6.76
	군	4,710	8.42	6.25	6.62
인구	5만 이하	3,100	8.38	6.22	6.57
	5만~10만 이하	3,080	8.47	6.24	6.56
	10만~30만 이하	6,750	8.55	6.40	6.74
	30만~50만 이하	4,680	8.53	6.53	6.79
	50만 이상	2,410	8.63	6.70	7.00

19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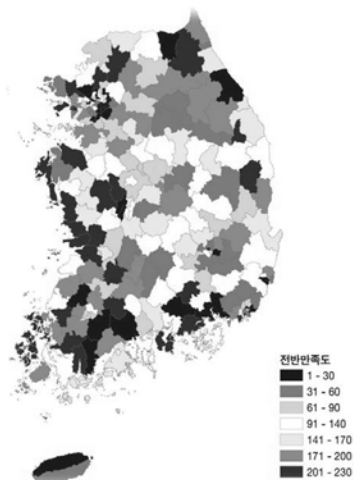
1. 종합 결과

구분		사례수	중요도(평균)	만족도(평균)	전반적만족도
■전 체■		20,020	8.52	6.41	6.73
광역시	서울	2,890	8.50	6.70	6.91
	부산	1,420	8.52	6.43	6.80
	대구	790	8.41	6.47	6.77
	인천	920	8.55	6.14	6.42
	광주	460	8.53	6.43	6.72
	대전	480	8.52	6.56	6.93
	울산	450	8.62	6.38	6.72
	세종	90	8.69	5.64	5.92
	경기	3,820	8.65	6.49	6.80
	강원	1,100	8.53	6.34	6.68
	충북	870	8.41	6.28	6.69
	충남	1,100	8.43	6.19	6.51
	전북	1,080	8.57	6.20	6.46
	전남	1,360	8.37	6.24	6.61
	경북	1,550	8.51	6.35	6.68
	경남	1,430	8.38	6.41	6.79
	제주	210	8.80	6.72	7.15

20

IV. 분석결과

❖ 전반 만족도



순위	시군구	값
1	경기 과천시	7.81
2	경기 군포시	7.62
3	서울 송파구	7.60
4	서울 서초구	7.52
5	대전 유성구	7.50
6	대구 수성구	7.46
7	경기 고양시	7.46
8	서울 강남구	7.45
9	경기 성남시	7.31
10	전남 순천시	7.30
11	서울 강동구	7.28
12	서울 종로구	7.28
13	부산 수영구	7.26
14	제주 제주시	7.24
15	강원 양구군	7.22
15	전남 장흥군	7.22
17	경남 창원시	7.20
18	대전 서구	7.18
19	강원 강릉시	7.13
19	경남 진주시	7.13

21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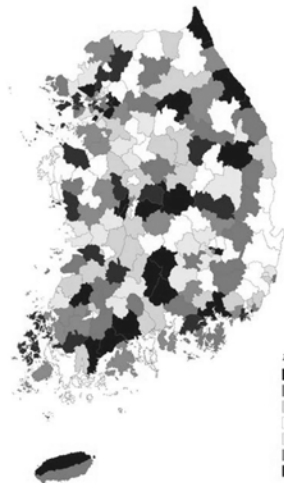
❖ 전반 만족도

일련번호	전반적만족도			만족도			중요도		
	순위	시군구	값	순위	시군구	값	순위	시군구	값
1	1	경기 과천시	7.81	1	서울 송파구	7.34	1	경기 하남시	8.94
2	2	경기 군포시	7.62	2	서울 서초구	7.32	2	경기 연천군	8.91
3	3	서울 송파구	7.60	3	경기 과천시	7.29	3	경기 군포시	8.90
4	4	서울 서초구	7.52	4	서울 강남구	7.25	4	강원 원주시	8.89
5	5	대전 유성구	7.50	5	경기 군포시	7.23	5	강원 양구군	8.87
6	6	대구 수성구	7.46	6	대구 수성구	7.12	6	강원 속초시	8.86
7	7	경기 고양시	7.46	7	경기 성남시	7.11	7	제주 제주시	8.82
8	8	서울 강남구	7.45	8	경기 고양시	7.06	8	경기 의정부시	8.81
9	9	경기 성남시	7.31	9	전남 장성군	7.04	9	전북 익산시	8.81
10	10	전남 순천시	7.30	10	서울 강동구	7.03	10	울산 동구	8.81
11	11	서울 강동구	7.28	11	서울 종로구	7.01	11	전북 진안군	8.81
12	12	서울 종로구	7.28	12	전남 장흥군	7.01	12	인천 서구	8.80
13	13	부산 수영구	7.26	13	전남 순천시	6.98	13	경기 광주시	8.79
14	14	제주 제주시	7.24	14	대전 유성구	6.98	14	제주 서귀포시	8.78
15	15	강원 양구군	7.22	15	경기 구리시	6.90	14	부산 기장군	8.78
16	15	전남 장흥군	7.22	16	대전 서구	6.88	16	전남 장성군	8.77
17	17	경남 창원시	7.20	17	부산 수영구	6.88	17	경북 문경시	8.76
18	18	대전 서구	7.18	18	서울 양천구	6.87	18	전북 임실군	8.76
19	19	강원 강릉시	7.13	19	서울 마포구	6.86	19	대구 수성구	8.76
20	19	경남 진주시	7.13	20	경남 거창군	6.80	20	강원 영월군	8.75

22

IV. 분석결과

■ 주택



만족도

경기 과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하남시
강원 영월군
경기 연천군
전북 임실군
전남 장흥군
인천 용진군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강원 강릉시
경기 군포시
경남 하동군
경북 의성군
인천 강화군
경북 청송군
경기 고양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군



중요도

전남 장흥군
경남 산청군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전남 순천시
강원 횡성군
충남 계룡시
경남 거창군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경기 군포시
전남 장성군
부산 수영구
경기 성남시
강원 고성군
대전 유성구
경북 봉화군
제주 제주시
강원 속초시

23

IV. 분석결과

■ 안전



만족도

경기 과천시
경북 청송군
강원 고성군
경남 산청군
경북 예천군
충남 계룡시
전남 구례군
강원 강릉시
전남 순천시
경남 함양군
전남 장흥군
경북 봉화군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
강원 양구군
전남 장성군
전북 진안군
충북 괴산군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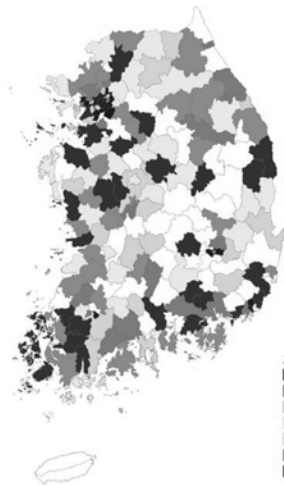
중요도

전북 진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경기 과천시
경기 하남시
강원 강릉시
제주 제주시
경북 경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봉화군
경기 김포시
서울 강남구
서울 종로구
경북 문경시
경북 상주시
경기 군포시
서울 서초구
전남 구례군
울산 동구
경북 김천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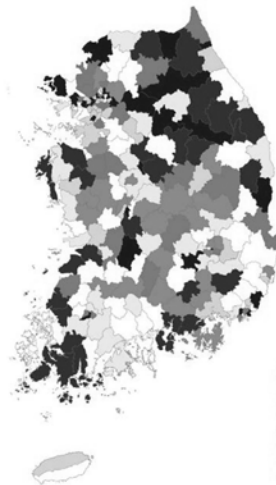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 교통



만족도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
부산 수영구
서울 송파구
경기 군포시
서울 서초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구리시
부산 동래구
부산 연제구
경기 과천시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서울 동작구
광주 동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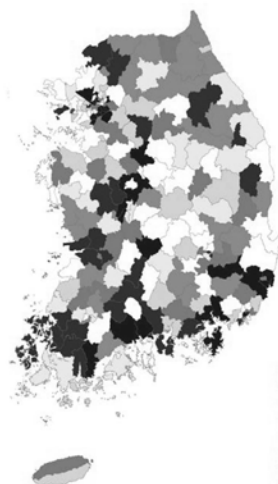
중요도

경기 하남시
강원 홍천군
강원 양구군
인천 강화군
부산 기장군
대구 중구
경기 군포시
광주 남구
경북 고령군
경기 양평군
서울 종로구
강원 영월군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대전 중구
경기 부천시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25

IV. 분석결과

■ 산업



만족도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
전북 무주군
서울 서초구
경기 군포시
울산 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과천시
경기 고양시
충북 음성군
울산 동구
전남 순천시
전남 강령군
서울 마포구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부산 부산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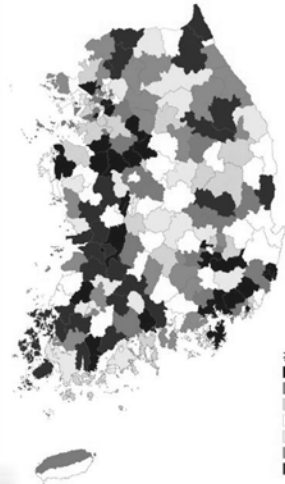
중요도

울산 동구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전북 익산시
강원 양구군
경기 포천시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인천 서구
강원 원주시
대구 중구
충남 아산시
전북 진안군
경기 의정부시
세종 세종시
경남 창원시
경북 고령군
강원 영월군

26

IV. 분석결과

■ 경제



만족도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서울 강남구
울산 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
서울 송파구
충남 서산시
경북 청도군
경남 거제시
전남 장흥군
충북 음성군
경남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천안시
전남 장흥군
경남 양산시
경남 김해시
충북 진천군
울산 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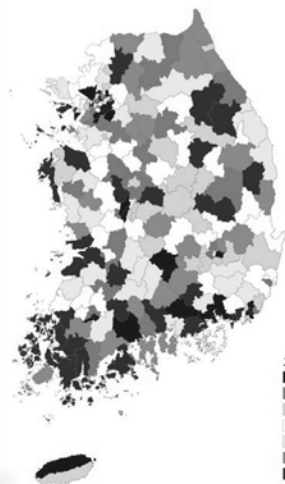
중요도

강원 양구군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울산 동구
경기 의정부시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경기 광주시
경북 문경시
부산 동구
경기 이천시
인천 서구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경기 안산시
세종 세종시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
경북 안동시

27

IV. 분석결과

■ 교육



만족도

대구 수성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대전 유성구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부산 동래구
경남 거창군
서울 양천구
서울 노원구
대전 서구
경남 진주시
경기 군포시
전남 순천시
경기 성남시
제주 제주시
서울 중로구
서울 강동구
광주 남구
인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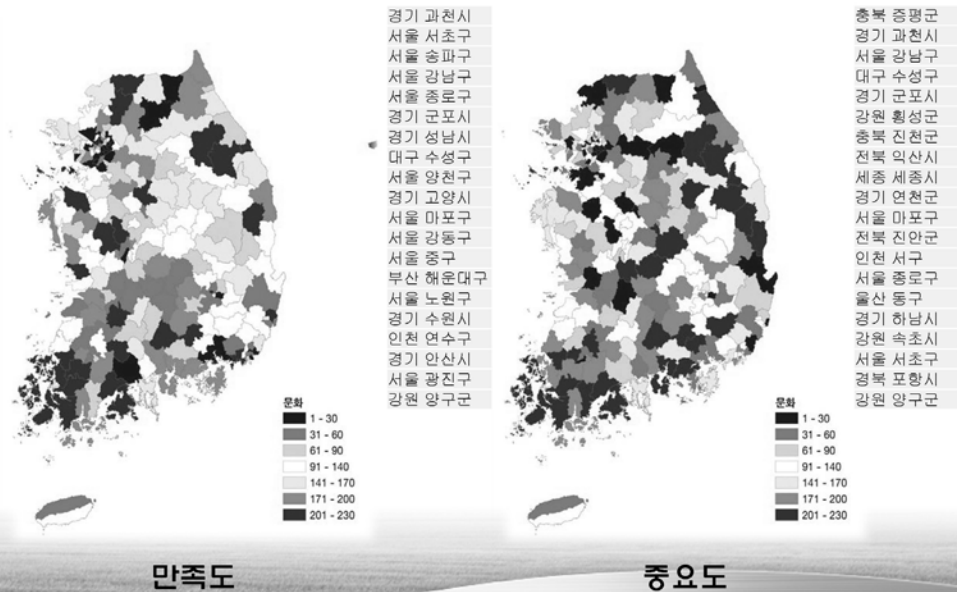
중요도

강원 양구군
강원 원주시
경기 군포시
전북 임실군
전북 익산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하남시
대구 수성구
경북 문경시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경북 안동시
제주 제주시
경기 과천시
인천 서구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부산 남구
울산 동구

28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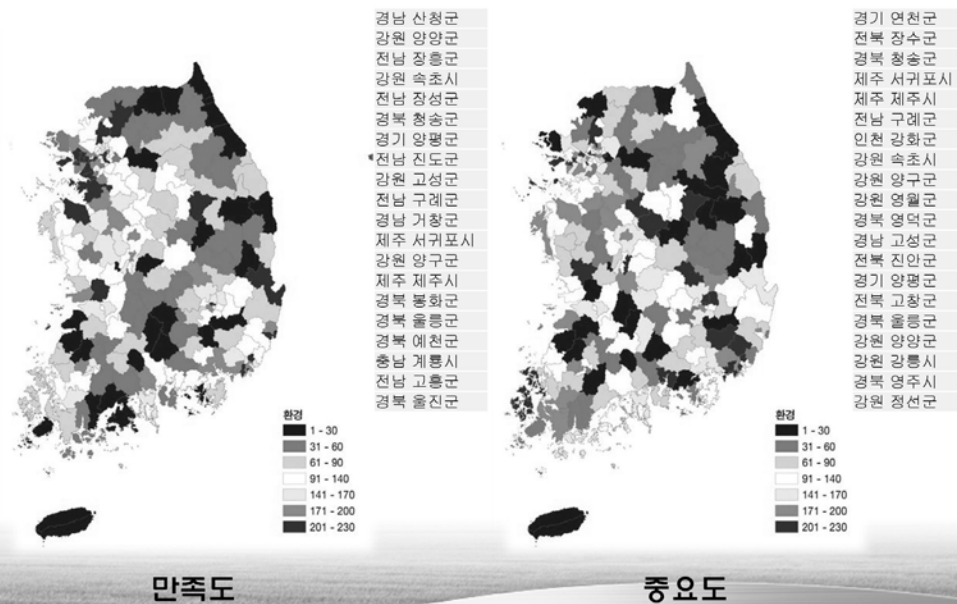
■ 문화



29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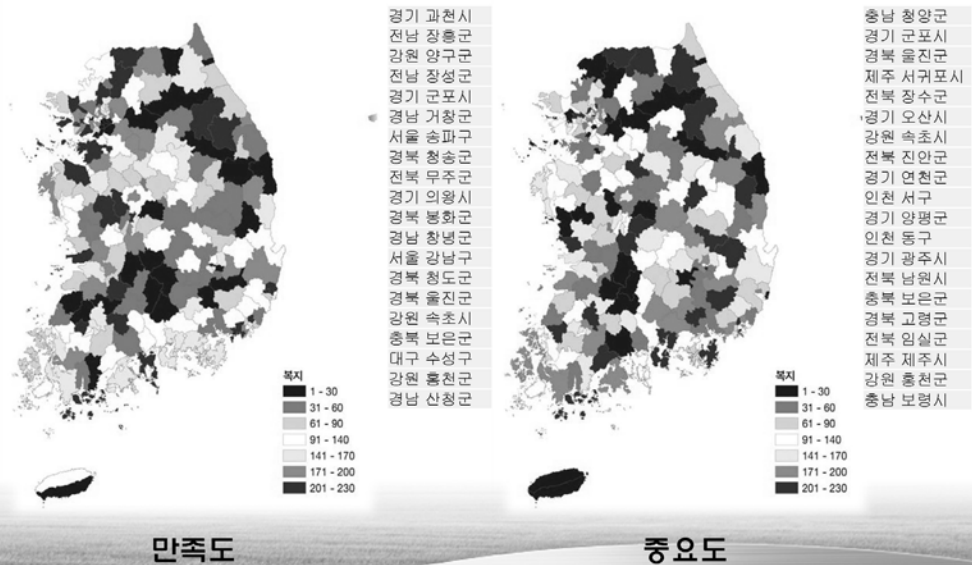
■ 환경



30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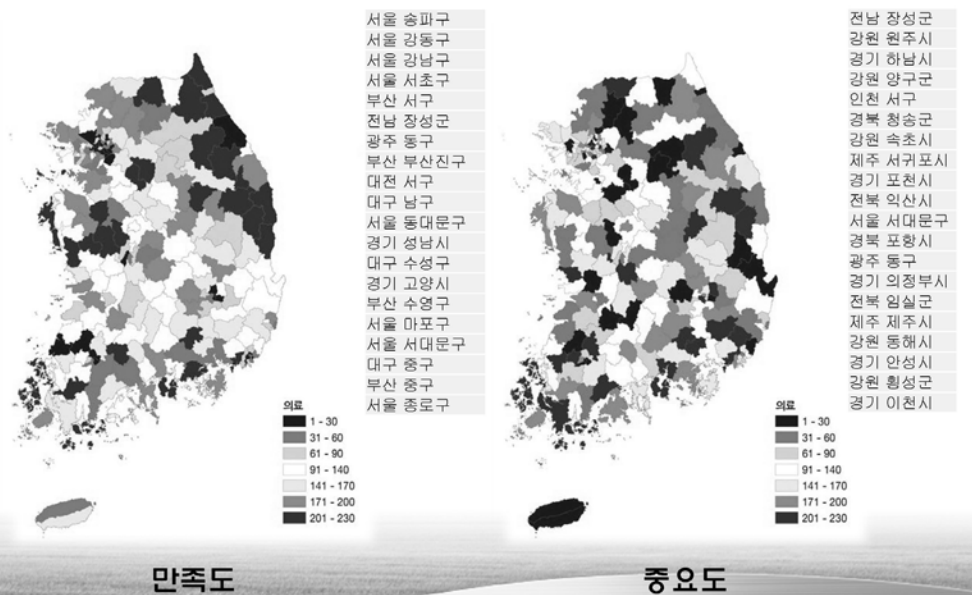
■ 복지



31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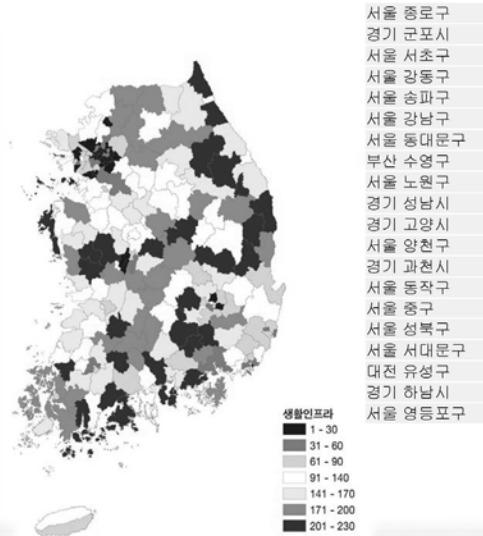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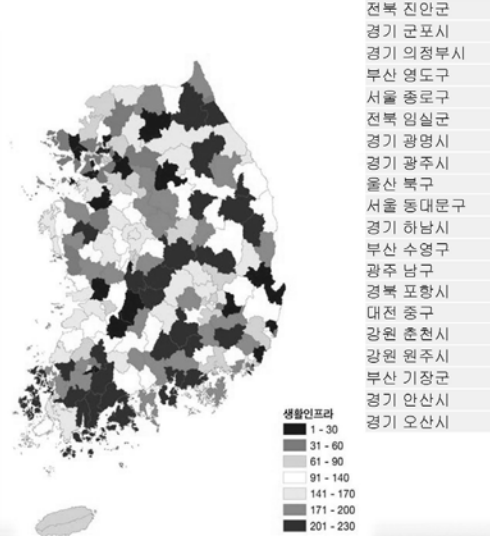
32

IV. 분석결과

■ 생활인프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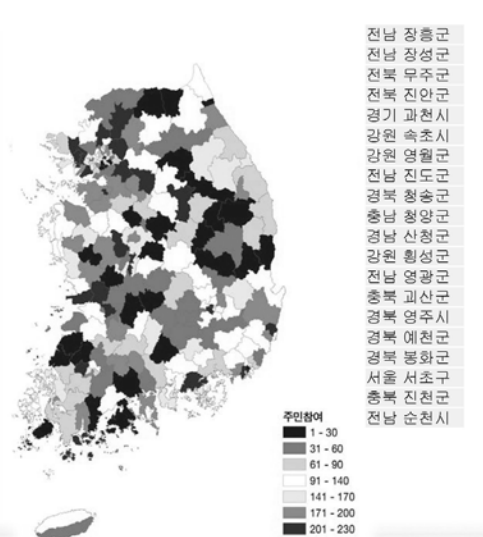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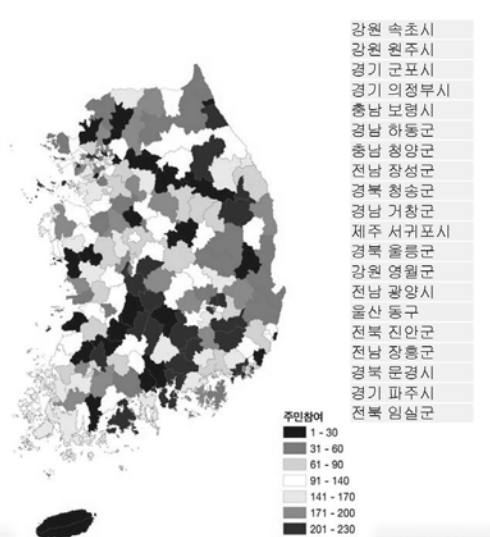
33

IV. 분석결과

■ 주민참여



만족도



중요도

34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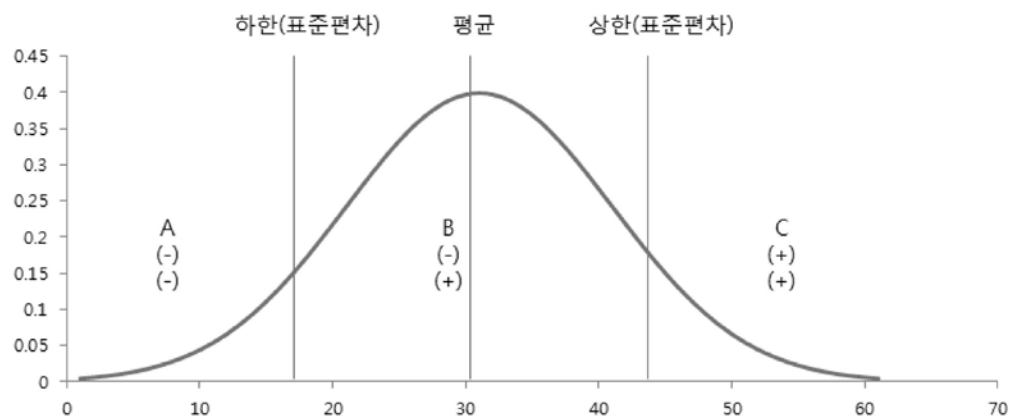
2. 종합 결과 (생활권)

순위	생활권	세부생활권	전반 만족도
1	수도권시범생활권	안양+과천	7.42
2	수도권시범생활권	군포+의왕	7.33
3	도농연계권	제주+서귀포	7.14
4	중추도시권	창원+김해+함안	6.95
5	중추도시권	원주+횡성	6.94
6	수도권시범생활권	서울+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고양+파주+부천+성남+하남	6.88
7	수도권시범생활권	성남+용인+광주+하남	6.86
8	농어촌생활권	거창+함양+산청	6.82
9	중추도시권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6.82
10	수도권시범생활권	고양+파주+김포	6.81
11	수도권시범생활권	수원+용인	6.81
12	농어촌생활권	의성+군위	6.80
13	농어촌생활권	음성+진천+증평+괴산	6.80
14	중추도시권	부산+김해+양산+울주	6.78
15	도농연계권	경산+청도+영천	6.78
16	농어촌생활권	인제+양구	6.77
17	중추도시권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6.77
18	중추도시권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6.75
19	중추도시권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6.74
20	농어촌생활권	나주+화순	6.74

35

IV. 분석결과

3. 종합 결과 (시군구별 GAP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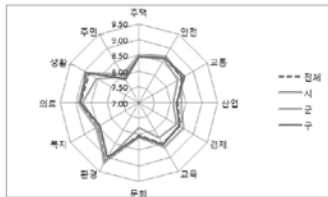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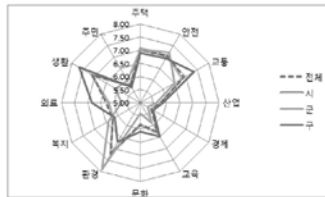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3. 종합 결과 (시군구별 GAP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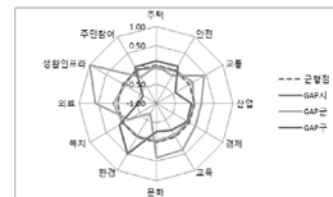
❖ 중요도



만족도



만족도 vs 전체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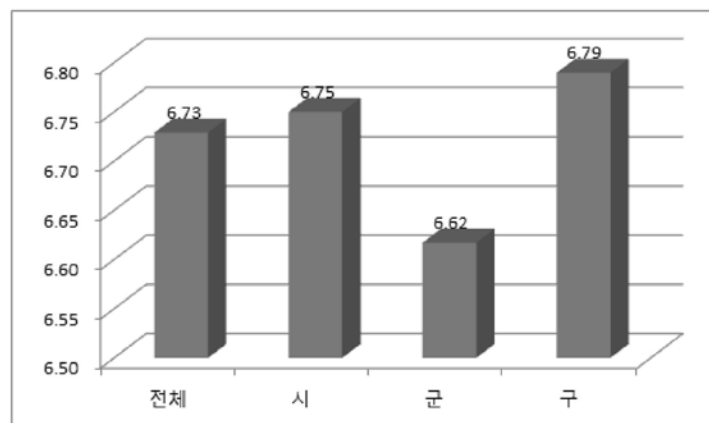


37

IV. 분석결과

3. 종합 결과 (시군구별 GAP분석)

❖ 유사지역대비 전반적인 만족도



38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행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정책의 발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로드맵 작성을 통한 추진의 실제적 추진
- 선행연구인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의 실질적 적용 및 수정 보완을 통한 2단계 지역주민 삶의질 조사
- 실제 개발한 지역 삶의질 지표를 각 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측정함으로 지역의 행복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파악
-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삶의질을 조사한 최초의 연차별 시도, 측정 결과를 지역 행복 관련 정책의 계획, 추진에 반영 가능하다는 데 의의
- 삶의질 지수 조사 결과를 시군구, 생활권으로 제시

39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시군구 측면
 - 전반적인 만족도 50위권 이내의 지역 중 서울과 경기의 시군가가 각 각 9개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호남을 중심으로 구분해본 결과는 영남이 8개, 호남이 5개로 영남 이 상대적으로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와 제주를 추가하여 고려한 경우에는 각각 11개, 7개인 것으로 나타남

40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생활권 측면

- 20,020부를 근거로 하여 생활권으로 구성한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생활권은 수도권시범생활권으로 나타남
- 전체 63개 생활권 중 수도권시범생활권은 8개로 이중 5개가 5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수도권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어촌 및 도농 연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하위권에 집중됨
- 특이한 점은 세종과 공주 세부생활권을 갖은 중추도시권이 63개 중 최하위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제시됨

41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생활권 측면

- 생활권별로는 수도권>중추>농어촌>도농 순
 - 가장 만족도가 높은 측면은 수도권과 중추로 제시되어 예상과 맞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어촌의 만족도가 도농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도농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특성별로 묶인 생활권이 아닌 이질적인 도농생활권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42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생활권 측면

- 실질적인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권에 대해서는 만족도의 순위에 변함이 없음
 - 반면, 서울+의정부+남양주에 대한 수도권시범생활권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 체감하는 실질적인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중추도시권의 실제 체감은 감소(원주+횡성)하였으며, 도농연계권 역시 감소(영주+봉화)
 - 반면, 농어촌(무주+진안+장수, 거창+함양+산청)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으나, 실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어촌과 수도권시범생활은 실제 만족도가 상승하며, 도농, 중추도시권의 실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43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전반적 만족도 vs 12개 지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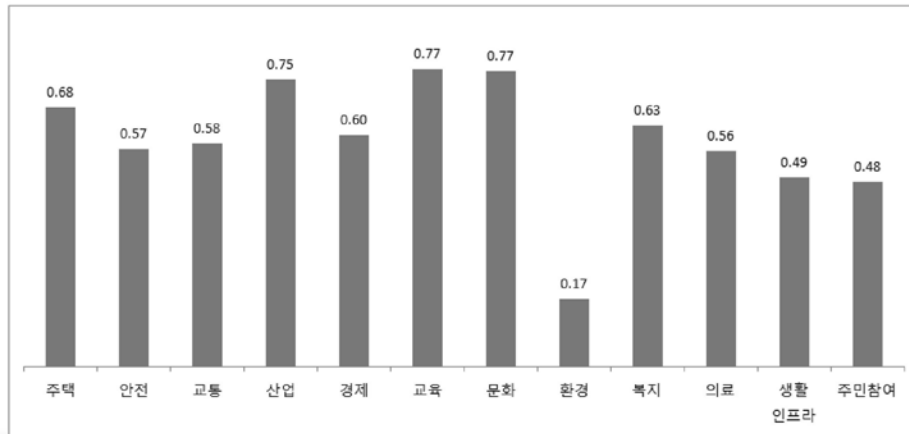
- 전반적 만족도와 12개 지표 만족도의 상관분석 결과 '산업(0.75)', '교육(0.77)', '문화(0.77)' 등이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산업, 교육, 문화가 지자체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됨

44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전반적 만족도 vs 12개 지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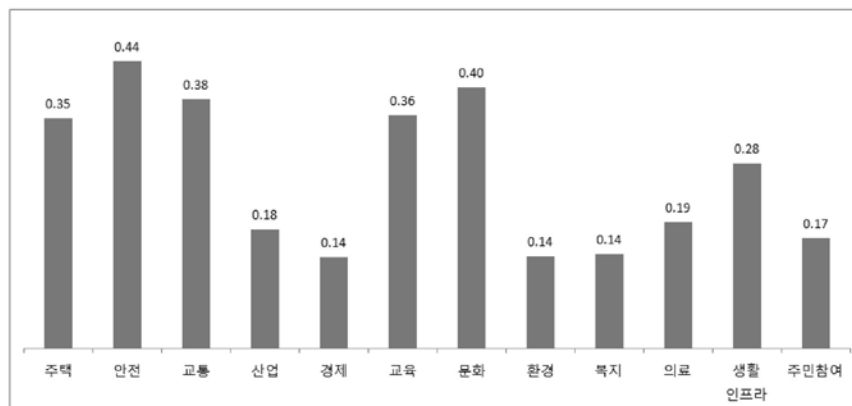


45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함의

● 전반적 만족도 vs 12개 지표 중요도



46

V. 함의, 활용, 한계

❖ 연구의 활용 방안

- 삶의질 지표 개발 및 조사를 통한 지역발전 정책에 적용하는 기본적 틀 마련
- 국가 및 지역 복리(well being)의 전반적 모니터링
- 정책형성과정(policy making process)에 반영
- 국민 요구(needs)와 목표집단(target group)의 확인
- 개별 정책의 평가(policy appraisal)에 활용
- 정책추진의 성과평가(policy evaluation) 및 모니터링
- 국가간·지역간 비교·활용
-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한 지표들과 연계한 통계적 활용이 가능

47

V. 함의, 활용, 한계

❖ 한계

- 측정한계
 - 자료 구축의 한계
 - 접근방법(approach)의 한계
 - 해석(interpretation)의 한계
 - 복합지수(composite index)의 한계
- 정책활용한계
 - 지역주민 삶의질 구성의 한계
 - 지역주민 삶의질 후속작업의 한계
 - 승인 통계화 하는 작업
 - 통계청 포함 협력체계 구축 필요

48



2세션

주관적 웰빙 측정 및 향후과제





2-1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인과 요인

(심수진, 통계개발원)

주관적 웰빙의 분포와 결정요인

심수진 · 이희길 · 석주영
2015. 11. 24

Contents

01. 연구배경 및 목적
02. 선행연구 검토
03. 분석방법 및 자료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05.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 분석
06. 결론

0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사회적 상황

-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정체
-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관심전환

국제적 흐름

- '09년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권고
- OECD, UN, Eurostat에서 주관적 웰빙 측정
- 국가단위에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 증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필요성 대두

주관적 웰빙의 측정과 관리, 정책적인 활용을 위해
낮은 주관적 웰빙의 원인 탐색 등의 체계적인 분석 필요

01. 연구배경 및 목적

◀ 주관적 웰빙의 위상: OECD 웰빙 및 발전 측정 framework



01.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핵심항목

Box B.1. Core questions

The following question asks how satisfied you feel, on a scale from 0 to 10. Zero means you feel "not at all satisfied" and 10 means you feel "completely satisfied".

A1.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ese days? [0-10]

The following question asks how worthwhile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on a scale from 0 to 10. Zero means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not at all worthwhile", and 10 means "completely worthwhile".

A2.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0-10]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how you felt yesterday on a scale from 0 to 10. Zero means you did not experience the feeling "at all" yesterday while 10 means you experienced the feeling "all of the time" yesterday. I will now read out a list of ways you might have felt yesterday.

A3. How about happy? [0-10]

A4. How about worried? [0-10]

A5. How about depressed? [0-10]

자료: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01. 연구배경 및 목적

활용자료

- OECD 주관적 웰빙 가이드라인 권고항목 분석
- 국가승인통계 자료 활용

연구내용

- 한국사회의 주관적 웰빙 분포 파악
- 주관적 웰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02. 선행연구 검토: 국가 측정 사례

통계개발원 

국가	일차 지표	추가 핵심 지표		주기	이용가능 시기	자료원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 경험	유데모니아			
캐나다	예*	예**	아니오	매년	1985	GSS, 통계청
프랑스	예*	아니오	아니오	미정	2011	INSEE
	아니오	예*	아니오	미정	2010	INSEE, 생활시간조사
이탈리아	예*	아니오	아니오	매년	2012	일상생활조사, ISTAT
한국	예*	예*	예*	매년	2013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멕시코	예*	예*	아니오	격년	2012	SWB, INEGI
	아니오	아니오	예*	분기	2013	ENCO, INEGI
뉴질랜드	예**	아니오	예**	격년	2014	NZGSS, 통계청
영국	예*	예*	예*	분기	2011	APS, 통계청
	예*	예*	예*	매년	2012	잉글랜드/웨일즈 범죄조사, ONS
	예*	예*	예*	매년	2011	부와 자산조사, ONS
미국	예	예***	예***	미정	2011	생활시간조사, BLS
EU	예*	예**	예*	미정	2013	EU-SILC 2013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를 의도, *** 미국은 6점 척도(0-6) 사용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7

02. 선행연구 검토

통계개발원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직업, 건강상태, 개인의 성격 등

경제적 요인

-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음
- 절대적인 소득보다 상대적인 소득, 계층의식의 영향력이 큼(김미곤 외, 2014)

사회자본 요인

- 사람들간의 긍정적인 관계 및 네트워크, 신뢰, 자율성, 부패정도 등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8

03. 분석방법 및 자료

◀ 사회통합실태조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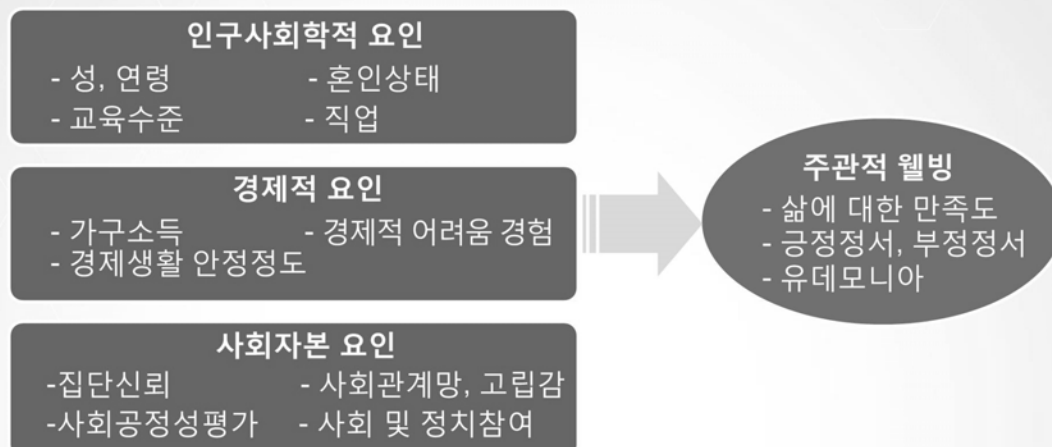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
- 조사내용
 - 사회적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공정성
- 조사대상: 만 19~69세 이하 성인남녀 대상(2014년 7,500명)
- 주관적 웰빙 측정항목

	질문내용	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10
긍정정서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부정정서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10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0~10
유데모니아*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0

* 유데모니아(eudaimonia)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주관적 웰빙으로 삶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03. 분석방법 및 자료

◀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분석모형



03. 분석방법 및 자료

통계개발원

◀ 변수설명-인구사회학적 요인(5개 변수)

항목	비율
성별	남(50.8%), 여(49.2%)
연령	평균연령: 44.2세
연령구분	20대(17.6%), 30대(20.8%), 40대(23.4%), 50대(22.9%), 60대(15.3%)
혼인상태	미혼(26.4%), 배우자 있음(64.3%), 사별(4.5%), 이혼(4.9%)
교육수준	안받았음(0.9%), 초등학교(6.9%), 중학교(9.2%), 고등학교(45.5%), 4년제 미만 대학(14.8%), 4년제 이상 대학교(20.6%), 대학원 석사(1.8%), 대학원 박사(0.3%)
교육재분류	중졸 이하(17.0%), 고졸(45.5%), 대졸이상(37.5%)
직업	관리자(3.2%), 전문가(5.6%), 사무직(14.5%), 서비스(14.2%), 판매직(9.2%), 농림어업(7.7%), 기능직(6.8%), 기계조립(2.7%), 단순노무(5.7%), 군인(0.1%)
직업재분류	전문·관리직(8.8%), 사무직(14.5%), 서비스·판매직(23.4%), 그외기타(22.9%), 무직(30.2%)(무직 13.9% / 육아가사 16.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1

03. 분석방법 및 자료

통계개발원

◀ 변수설명-경제적 요인(3개 변수)

항목	비율	표준편차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1.7%), 100만원 미만(5.8%), 100~199만원(14.7%), 200~299만원(19.8%), 300~399만원(21.3%), 400~499만원(15.9%), 500~599만원(9.9%), 600~699만원(4.3%), 700~799만원(2.4%), 800~899만원(1.4%), 900~999만원(1.1%), 1000만원 이상(1.7%)	-	-
가구소득 재분류	200만원 미만(22.8%), 200~499만원(57.4%), 500만원 이상(19.8%)	-	-
경제적 어려움 경험	끼니거름(3.8%), 진료를 받지 못함(9.8%), 학비마련 대출(15.9%), 실업(8.0%), 공과금 미납(14.0%), 집세상승으로 인한 이사(11.3%)	-	-
	6개 항목에서 '있다' 응답 합산(0~6점): 0.63점	1.21	0.63
경제생활 안정도	0~10점	1.92	4.4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2

03. 분석방법 및 자료

❖ 변수설명-사회자본 요인(6개 변수)

항목	비율	표준편차	평균
사회관계망	3개 항목(1~5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수(2.02),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2.25),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2.49)	0.68	2.25
고립감	3개 항목(1~4점):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1.99),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1.58),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1.85)	0.65	1.81
사회단체 활동	7개 항목(1~5점): 정당(1.21), 노조/사업자 단체/직업조합(1.30), 종교단체(1.88), 동호회(2.06), 시민운동단체(1.18), 지역사회 공공모임(1.48), 동창회/향우회(2.53)	0.61	1.66
정치활동	8개 항목(1~4점): 정치/사회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여부(2.99), 정치/사회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피력 경험여부(1.79), 정부/언론에 의견제시 경험여부(1.67), 서명운동참여 경험여부(2.14),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여부(1.64), 시위/집회참여 경험여부(1.65), 공무원/정치인에 민원전달 경험여부(1.72), 불매운동참여 경험 여부(1.84)	0.79	1.94
집단신뢰도	5개 항목(1~4점): 가족(3.53), 이웃(2.63), 지인(2.91), 낯선 사람(1.85), 국내거주외국인(1.85)	0.41	2.56
사회공정성 평가	11개 항목(1~4점): 교육기회(2.65), 취업기회(2.32), 과세 및 납세(2.24), 복지혜택(2.34), 지역균형발전(2.26), 법집행(2.29), 정치활동(2.12), 성별에 따른 대우(2.41), 언론보도(2.29),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2.11), 경제/사회적 분배구조(2.13)	0.48	2.29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2014년)

-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석

	삶에 대한 만족도	어제의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긍정정서(행복)	부정정서	근심 또는 걱정	우울	
평균	5.71	6.22	3.95	4.49	3.59	6.10
표준편차	1.91	1.5	2.02	2.22	2.24	1.84

* 부정정서 = 근심 또는 걱정과 우울의 평균값

❖ 측정결과 비교: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결과와 비교

-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05~'07년 5.54점, '10~'12년 6.27점, '12~'14년 5.98점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국제비교(세계행복보고서, 갤럽월드폴 자료)

	삶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지	자율성	부패	관용	건강수명	1인당 GDP
덴마크	7.53	0.96	0.93	0.20	0.14	70.32	32,333
노르웨이	7.52	0.95	0.95	0.39	0.14	70.71	48,071
캐나다	7.43	0.94	0.92	0.44	0.29	71.44	35,294
호주	7.28	0.94	0.93	0.40	0.26	72.38	34,571
코스타리카	7.23	0.91	0.92	0.80	0.03	69.80	10,440
미국	7.12	0.91	0.83	0.71	0.21	69.86	42,068
영국	6.87	0.93	0.88	0.46	0.36	71.58	32,797
독일	6.75	0.93	0.90	0.62	0.06	70.95	34,056
프랑스	6.57	0.92	0.84	0.64	-0.14	72.89	34,056
일본	5.99	0.91	0.79	0.68	-0.16	74.53	29,571
한국	5.98 (47위/158국)	0.79 (97위)	0.63 (116위)	0.84 (56위)	-0.06 (97위)	73.60 (4위)	26,789 (29위)
이탈리아	5.95	0.89	0.57	0.92	-0.01	73.21	27,000
세계 전체	5.38	0.80	0.72	0.74	0.01	61.49	13,524
OECD	6.61 (26위/34개국)	0.91	0.81	0.64	0.05	70.66	29,533

자료: UN,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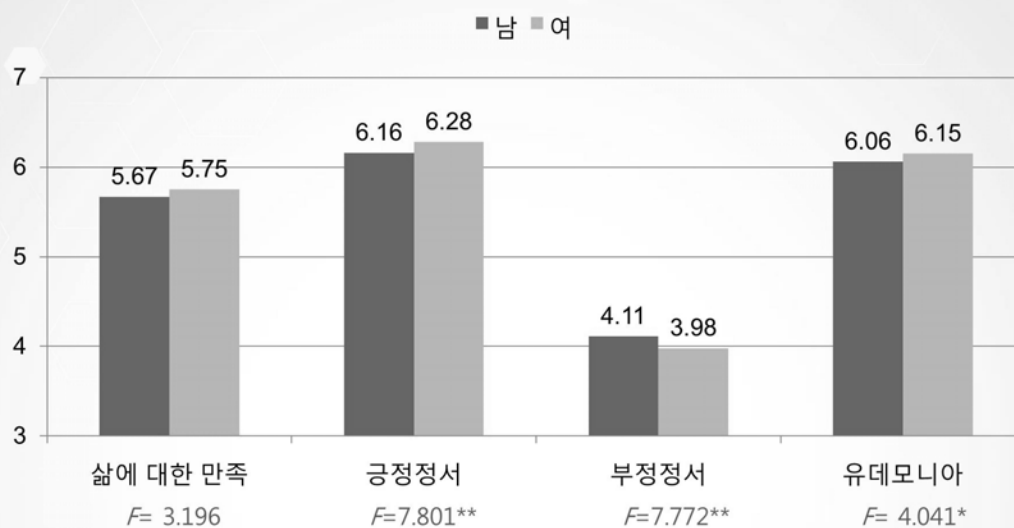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5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성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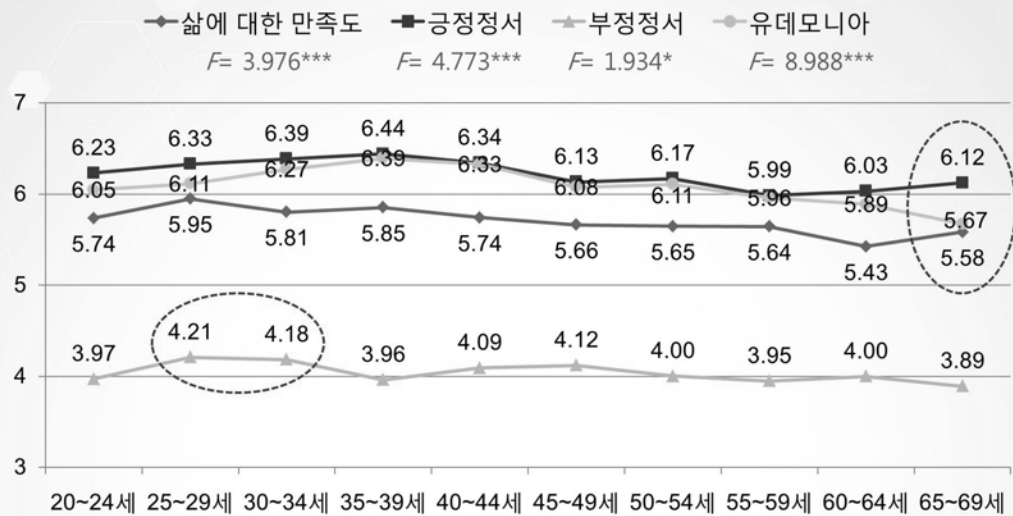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6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연령(5세별)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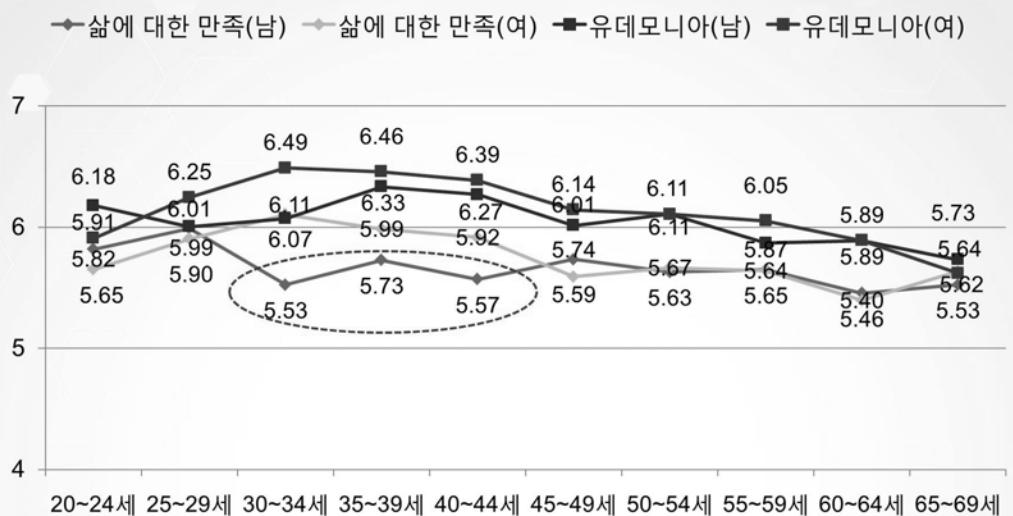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17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성과 연령(5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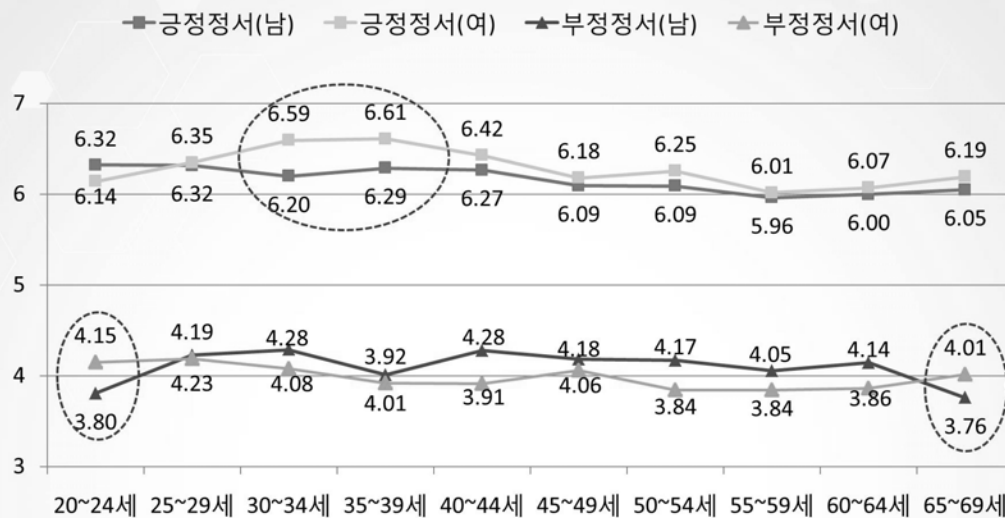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18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성과 연령(5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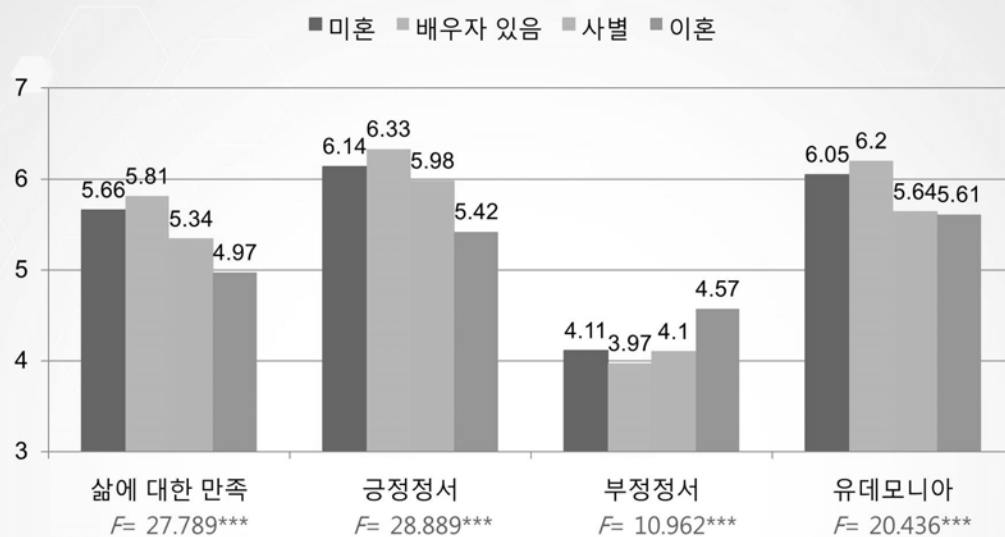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19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혼인상태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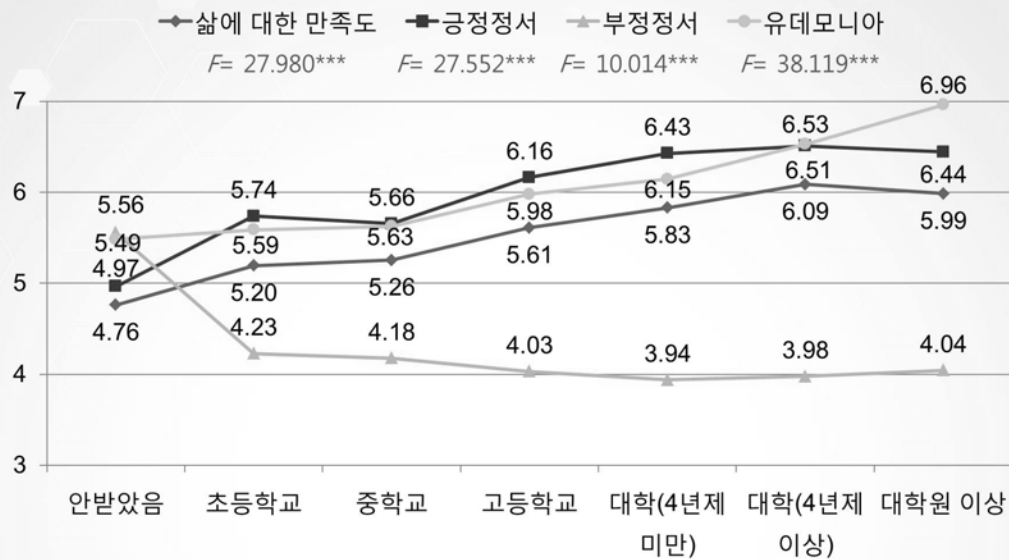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0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교육수준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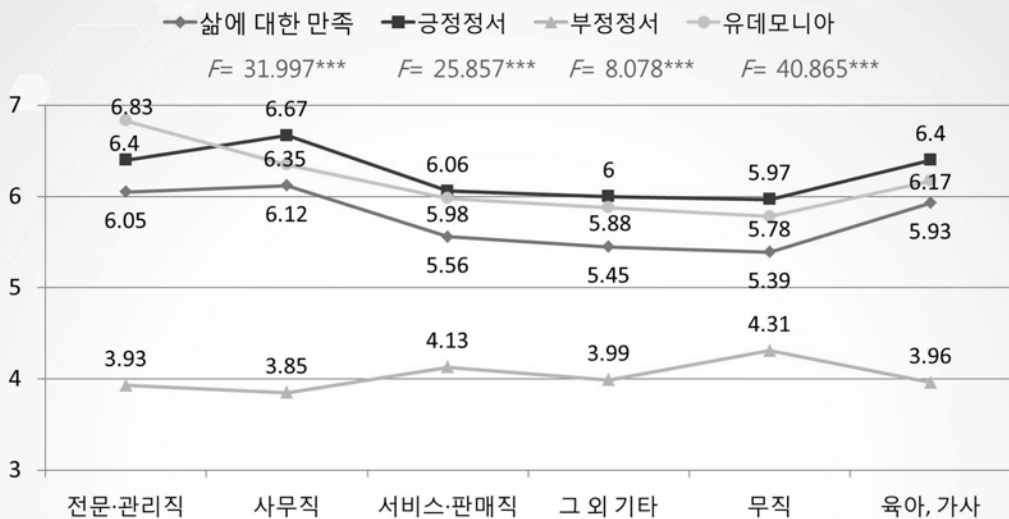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1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직업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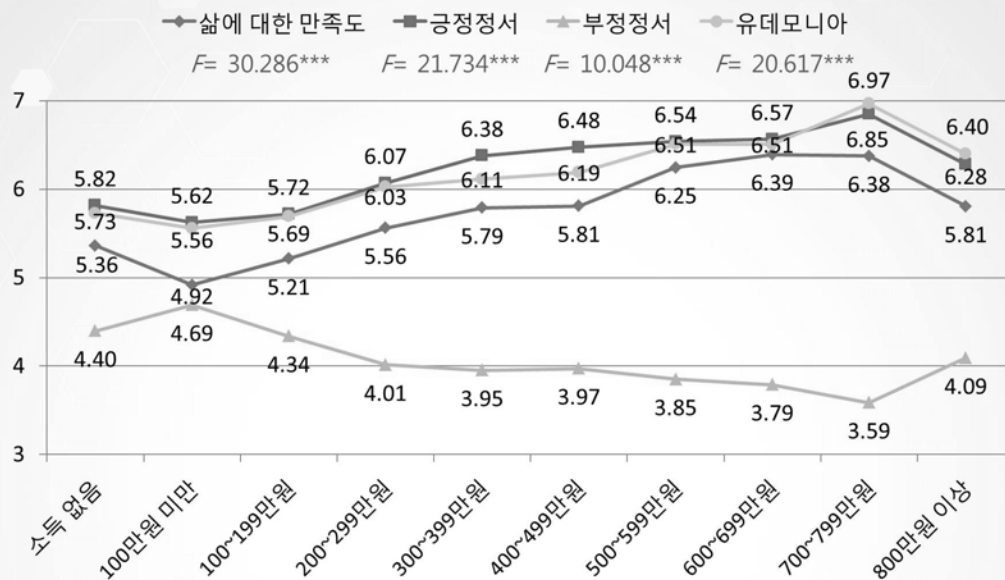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2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인구집단별 측정결과: 가구소득



* p<0.05, ** p<0.01, *** p<0.00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3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주관적 웰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미니아		긍정정서		부정정서	
	상 (8~10점)	하 (0~4점)	상 (8~10점)	하 (0~4점)	상 (8~10점)	하 (0~4점)	상 (6~10점)	하 (0~2점)
성	여성 (51.7%)	남성 (51.6%)	여성 (51.1%)	남성 (53.6%)	여성 (52.7%)	남성 (51.6%)	남성 (50.4%)	여성 (53.6%)
연령	30~44세	60~69세	45~54세	60~69세	30~44세	55~64세	25~29세 60~64세	50~54세 60~69세
혼인	유배우	이혼	유배우	미혼	유배우	미혼/이혼	이혼	유배우
교육	대학교 (4년)이상	고졸 이하	대학교 (4년)이상	고졸 이하	대졸(4년) 석사	중졸 이하	중졸 이하	-
직업	전문/ 관리자, 사무직, 육아/가사	서비스/ 판매, 무직	전문/ 관리자, 사무직	무직	전문/ 관리자, 사무직 육아/가사	서비스/ 판매, 무직	무직	그 외 기타 육아/가사
가구 소득	400~599만원	2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0~799만원, 1,000 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700~899만원, 1,000 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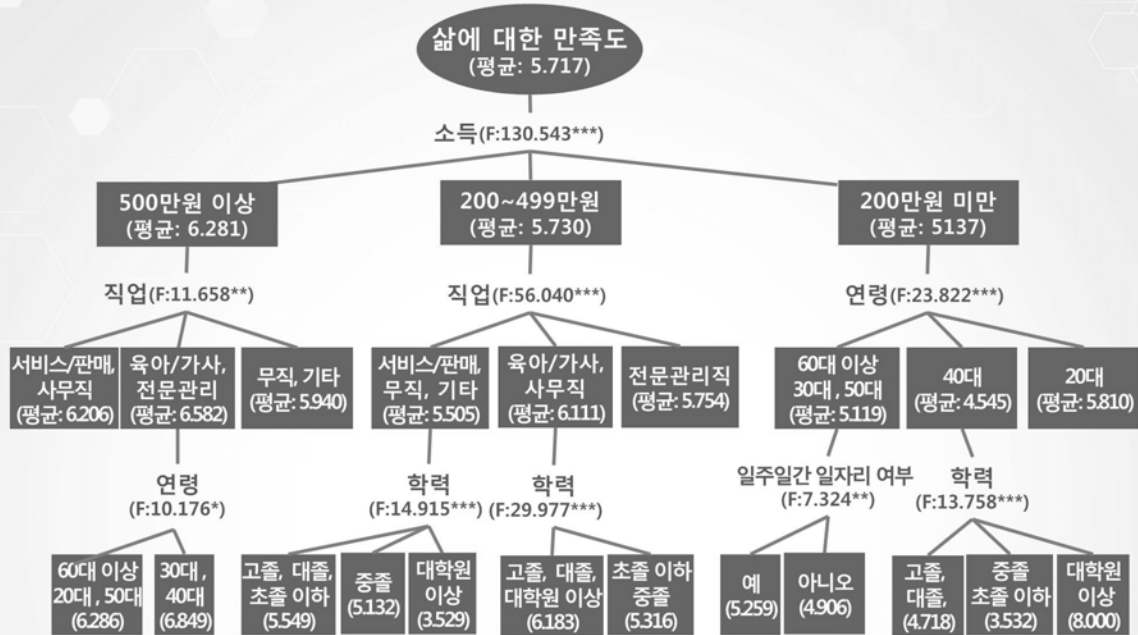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4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의사결정트리 분석결과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5

04. 주관적 웰빙 측정결과

통계개발원

☛ 의사결정트리 분석결과

-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경우 유사한 패턴
- 유데모니아는 소득이 아닌 직업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은 집단: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육아/가사,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30~40대

낮은 집단: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40대 중 중졸 이하 학력인 집단

유데모니아

높은 집단: 전문관리직 종사자 중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

낮은 집단: 무직인 40대 이상의 연령층 중 중졸 이하 학력인 집단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6

05.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 분석

회귀분석 모형

- 종속변수: 삶에 대한 만족도, 유데모니아, 긍정정서, 부정정서
- 모형 1: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모형 2: 경제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모형 3: 사회자본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모형 4: 종합모형으로 세 가지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삶에 대한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상수			5.236***		4.163***		4.992***		4.404***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남자=0) 연령		0.163***	(0.043)					0.155***	(0.041)
			-0.002	(-0.013)					-0.007**	(-0.050)
	혼인	유배우자	0.312***	(0.077)					0.115*	(0.028)
		이혼	-0.389***	(-0.041)					0.009	(0.001)
	교육 (중졸=0)	고졸	0.274***	(0.072)					0.049	(0.013)
		대졸 이상	0.465***	(0.118)					0.156*	(0.040)
	직업 (무직=0)	관리·전문직	0.194*	(0.029)					0.081	(0.012)
		사무직	0.304***	(0.056)					0.001	(0.000)
		서비스·판매	-0.155*	(-0.035)					-0.142*	(-0.032)
		그 외 종사자	-0.014	(-0.003)					-0.056	(-0.013)
경제적 요인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0)	200~499만원			0.084	(0.022)			-0.010	(-0.003)
		500만원 이상			0.207**	(0.044)			0.074	(0.016)
	경제적 어려움 경험				-0.181***	(-0.110)			-0.100***	(-0.060)
	경제상황 안정도				0.354***	(0.353)			0.270***	(0.269)
사회자본 요인	집단신뢰도						0.340***	(0.074)	0.333***	(0.073)
	사회 공정성 평가						0.374***	(0.095)	0.193***	(0.050)
	사회관계망						0.210***	(0.075)	0.060	(0.022)
	고립감						-0.972 ***	(-0.332)	-0.743***	(-0.255)
	사회단체활동						0.051	(0.017)	-0.027	(-0.009)
	정치활동						0.105***	(0.044)	0.119***	(0.051)
F			21.614***		360.740***		250.515***		120.061***	
R ²			0.028		0.171		0.167		0.256	

* p<0.05, ** p<0.01, *** p<0.001

◀ 유데모니아 회귀분석 결과

통계개발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상수			5.727***		4.716***		5.495***		5.185***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남자=0)		0.231***	(0.063)					0.251***	(0.069)
	연령		-0.007**	(-0.055)					-0.011***	(-0.084)
	혼인	유배우자	0.323***	(0.083)					0.148**	(0.038)
		이혼	-0.180	(-0.020)					0.135	(0.015)
	교육 (중졸=0)	고졸	0.230**	(0.063)					0.088	(0.024)
		대졸 이상	0.480***	(0.127)					0.268***	(0.071)
	직업 (무직=0)	관리·전문직	0.672***	(0.104)					0.548***	(0.086)
		사무직	0.252**	(0.048)					0.014	(0.003)
		서비스·판매 그 외 종사자	0.002 0.120	(0.000) (0.027)					0.009 0.089	(0.002) (0.021)
	경제적 요인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0)	200~499만원			0.143**	(0.039)			-0.018
500만원 이상					0.302***	(0.066)			0.033	(0.007)
경제적 어려움 경험				-0.065**	(-0.041)			-0.016	(-0.010)	
사회자본 요인	경제상황 안정도				0.289***	(0.298)			0.213***	(0.220)
	집단신뢰도						0.305***	(0.069)	0.278***	(0.063)
	사회 공정성 평가						0.145**	(0.038)	0.029	(0.008)
	사회관계망						0.264***	(0.098)	0.118***	(0.044)
	고립감						-0.801***	(-0.283)	-0.666***	(-0.238)
	사회단체활동						0.073*	(0.025)	0.013	(0.005)
	정치활동						0.118**	(0.051)	0.094***	(0.041)
F			30.543***		219.197***		181.810***		87.087***	
R ²			0.039		0.111		0.127		0.2	

* p<0.05, ** p<0.01, *** p<0.00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29

◀ 긍정정서 회귀분석 결과

통계개발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상수			5.859***		4.831***		5.548***		5.131***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남자=0)		0.219***	(0.057)					0.204***	(0.053)
	연령		-0.006**	(-0.041)					-0.012***	(-0.081)
	혼인	유배우자	0.311***	(0.076)					0.100	(0.024)
		이혼	-0.467***	(-0.048)					-0.135	(-0.015)
	교육 (중졸=0)	고졸	0.390***	(0.101)					0.216**	(0.056)
		대졸 이상	0.568***	(0.143)					0.343***	(0.087)
	직업 (무직=0)	관리·전문직	-0.012	(-0.002)					-0.081	(-0.012)
		사무직	0.283***	(0.052)					0.032	(0.006)
		서비스·판매 그 외 종사자	-0.157* 0.005	(-0.035) (0.001)					-0.156** -0.040	(-0.034) (-0.009)
	경제적 요인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0)	200~499만원			0.105	(0.027)			-0.053
500만원 이상					0.074	(0.015)			-0.133	(-0.028)
경제적 어려움 경험				-0.141***	(-0.084)			-0.055**	(-0.033)	
사회자본 요인	경제상황 안정도				0.324***	(0.319)			0.231***	(0.227)
	집단신뢰도						0.358***	(0.077)	0.354***	(0.077)
	사회 공정성 평가						0.389***	(0.098)	0.250***	(0.063)
	사회관계망						0.199***	(0.070)	0.060	(0.021)
	고립감						-0.963***	(-0.325)	-0.781***	(-0.265)
	사회단체활동						0.071*	(0.023)	0.058	(0.019)
	정치활동						0.043	(0.018)	0.035	(0.015)
F			25.279***		259.774***		241.384***		104.289***	
R²			0.033		0.129		0.162		0.230	

* p<0.05, ** p<0.01, *** p<0.00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30

부정정서 회귀분석 결과

통계개발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계수	β
상수			4.800***		4.609***		2.841***		3.541***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남자=0)		-0.137**	(-0.034)					-0.111*	(-0.027)
	연령		-0.010***	(-0.064)					-0.008***	(-0.054)
	혼인	유배우자	-0.028	(-0.006)					0.146*	(0.034)
		이혼	0.467***	(0.046)					0.117	(0.012)
	교육 (중졸=0)	고졸	-0.314***	(-0.077)					-0.238**	(-0.059)
		대졸 이상	-0.329***	(-0.079)					-0.284**	(-0.068)
	직업 (무직=0)	관리·전문직	-0.016	(-0.002)					-0.040	(-0.006)
		사무직	-0.295***	(-0.051)					-0.097	(-0.017)
		서비스·판매 그 외 종사자	0.032 -0.203**	(0.007) (-0.042)					-0.010 -0.126	(-0.002) (-0.027)
경제적 요인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0)	200~499만원		-0.070	(-0.017)			-0.104	(-0.025)	
		500만원 이상		0.133	(0.026)			0.061	(0.012)	
	경제적 어려움 경험				0.316***	(0.180)			0.166***	(0.094)
	경제상황 안정도				-0.180***	(-0.168)			-0.091***	(-0.085)
사회자본 요인	집단신뢰도						-0.370***	(-0.076)	-0.311***	(-0.064)
	사회 공정성 평가						-0.200***	(-0.048)	-0.056	(-0.013)
	사회관계망						0.014	(0.005)	0.038	(0.013)
	고립감						1.206***	(0.388)	1.078***	(0.347)
	사회단체활동						0.130***	(0.040)	0.130**	(0.040)
	정치활동						0.069*	(0.027)	0.043	(0.017)
F			7.727***		150.393***		273.297***		87.395***	
R²			0.010		0.079		0.180		0.201	

* p<0.05, ** p<0.01, *** p<0.00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31

05. 주관적 웰빙 결정요인 분석

통계개발원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 삶에 대한 만족도의 설명력이 가장 높음(25.6%)
- 인구사회학적 요인 보다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자본 요인의 설명력이 높음
- 유데모니아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설명력이 높음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 성별, 연령, 대졸 이상 변수는 주관적 웰빙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
- 유데모니아의 경우 전문/관리자 집단에서 통계적 영향력 높음
- 경제적 요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유의미하지 않고, 경제상황 안정정도는 유의미
- 사회자본 요인: 집단신뢰, 사회공정성 평가, 고립감 변수의 영향력이 높음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32

06. 결론

◀ 주관적 웰빙의 분포

- 고소득층 중 육아/가사 또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30~40대의 주관적 웰빙이 높음
- 저소득층 중에서도 40대의 저학력 집단, 50대 이상 무직자의 주관적 웰빙이 낮음

◀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학력집단,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고립되지 않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음
- 고연령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에서 낮음

06. 결론 : 정책과제

◀ 주관적 웰빙 개선방안

- 주요 정책 대상집단: 노인층, 무직, 경제적 취약집단
- 정책적 개선방안: 사회적 관계망 개선, 신뢰도 제고,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지원,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경험에 대한 대책

◀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시계열 비교를 위해 동일한 척도와 조사항목 유지
- 하위 인구집단별 비교와 추이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연구의 한계점

-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변수선택시 제약
- 2년치 자료만 축적되어 있어 자료의 안정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2-2

비교성향과 행복

(김희삼, KDI)

비교성향과 행복

김희삼 (KDI 연구위원)

< 요약 >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일과 지위 및 물질을 중시하고, 경제적 성과가 높았으며, 과소비와 과시적 소비경향을 나타냈다. 그런데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건강과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상향비교가 자기발전의 촉매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비교성향을 이용해 공익을 높일 수도 있지만,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인간관계, 건강, 공동체도 돌보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I.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자기가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성향(relative concern)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우선 자기보다 나은 타인과의 상향비교는 자기발전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도성장기 개발연대에는 타인이나 타지역보다 뒤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개인적·집단적 노력의 동인이 됐고 실제로 높은 성과를 안겨주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자기 소득이 늘어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만족감이 덜하다는 상대소득이론이 ‘행복의 역설’(소득 증가에 비례해 국민의 행복감이 증대하지 않는 현상, 이른바 “Easterlin paradox”)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성향은 단점도 있다. 상대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성향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social comparison)는 소득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외모, 소비 등 상대적 지위를 매길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 우리 사회에서 비교성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 탐구를 위해 필자는 행동경제학¹⁾의 실험적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2013년 10~11월에 전국 성인(20~69세) 남녀 3,000명을 조사했다. 설문지에는 필자가 만든 다양한 가상적 실험 문항들 외에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와 오사카대학 사회경제연구소의 행동경제학연구 설문조사(http://www.iser.osaka-u.ac.jp/coe/journal/survey_eng.html)에 포함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에서 비교성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치관을 분석하고, 비교성향에 따른 행태적 특성과 경제적 성과 및 소비행위, 그리고 건강과 행복감의 차이에 대해 탐구했다. 아래에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II. 비교성향에 관련된 연구결과

1. 한국인은 비교성향이 강한 편이다.

“주변의 다른 사람과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3%는 매우 중요함, 32.3%는 약간 중요함, 39.4%는 그저 그러함, 20.0%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5.0%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했다. 즉, 25%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과의 비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며, 35.6%는 비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아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동아시아인은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서구인에 비해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Chung and Mallery, 1999; Gibbons and Buunk, 1999; White and Lehman, 2005). 한국인은 전근대적 신분제가 일거에

철폐된 후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과 학교의 상대평가체제 속에서 비교성향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게임과 경쟁게임을 통해 개인의 비교성향을 파악하는 모의도박실험에서도 자기 몫에만 관심을 보인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은 경쟁자와 비교한 상대적인 몫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Kang et al. 2013).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 것이 늘어도 남보다 적은 것보다는 자기 것이 줄어도 남보다는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 위에서 5점 척도로 구분한 비교성향의 강도(전혀 중요하지 않음=1~5=매우 중요함)는 소득과 학력, 성적, 외모, 다양한 재화들에 대한 상대우위선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인 중에서도 여성과 젊은 층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성향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교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강남 고소득층 젊은 타이거맘(tiger mom)이 주도하는 열띤 자녀교육경쟁이 비교성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하의 모든 발견은 비교성향과 관련될 수 있는 배경변수들(성별, 연령대, 자녀수, 소득, 지역 외에 학력, 결혼상태, 가구원수, 종교, 군복무경험 등)을 회귀분석모형에서 모두 통제한 결과다. 즉, 배경요인들이 유사한 경우에도 5점 척도의 비교성향에 따라 가치관이나 행동 및 성취가 어떻게, 또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 것이다.

2. 비교성향은 물질주의 및 목표지상주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가상의 상황) 귀하의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식자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귀하는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귀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사장의 옆자리
- ② 평소에 편하게 어울리는 동료의 옆자리
- ③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 수습사원의 옆자리

위와 같은 가상의 상황에서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사장 옆자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편한 동료 옆자리를 선택할 확률도 높았지만 사장 옆자리만큼은 아니며, 외톨이 수습사원의 옆자리를 선택할 확률은 낮았다.

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설문에서는 비교성향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행복한 삶의 개념에 관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적 영달과 안락을 누리는 삶을 중시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도 사회공헌, 신앙, 내적 충족보다 부, 명예, 좋은 집이 강조됐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이 일이라는 응답은 많았고,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응답은 적었다.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사회공헌, 성취감, 동료, 적성 및 흥미보다 높은 보수와 위세가 중시됐다. 결혼생활의 성공요인으로서는 상호존중과 감사, 이해와 관용, 같은 취향과 흥미보다 충분한 소득, 좋은 주거환경, 시댁이나 처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중시됐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소양에 대해서는 관용과 타인 존중, 상상력보다는 열심히 공부(일)하는 것과 순종적인 태도가 중시됐다.

또한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부와 안전, 남들이 우러러볼 성공은 중시하지만, 현재를 만끽하는 것이나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더라도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다”, “자녀가 좋은 인성을 가진 것보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이 낫다”, “국익을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범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와 같은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더욱이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3.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집단추종, 극대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 주변 의견을 따르고 남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집단추종 경향을 보였으며, 그렇게 할 때 안심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가상의 상황) 귀하의 친한 지인 세 명으로부터 각각 결혼 청첩장을 받았는데, 현재 축의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이 18만원입니다. 각 결혼식에 얼마씩 축의금으로 내시겠습니까? (단, 합계는 18만원이 되어야 함)

(1)	하객들이 평균 10만원 이상을 내는 잘 사는 지인의 결혼식	__만원
(2)	하객들이 평균 5만원 내외를 내는 중류층 지인의 결혼식	__만원
(3)	하객들이 평균 3만원 이하를 내는 못 사는 지인의 결혼식	__만원
축의금 합계		18만원

위 질문은 소득 (상, 중, 하) 지인에게 각각 (10, 5, 3)만원을 내는 집단추종 배분, (6, 6, 6)만원을 내는 평등 배분, 어려운 지인에게 더 많이 내는 동정적 배분(상 $\leq$ 중 $\leq$ 하에서 6, 6, 6은 제외) 중에서 비교성향에 따라 어떤 배분이 선호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집단추종 배분 경향이 강했으며, 평등 배분이나 동정적 배분 경향은 약했다.

한편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매사의 선택에 있어 적당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는 극대주의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수요의 목적이 자녀의 순위 상승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 상대적 지위경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다른 모든 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혀 하지 않기로 하는 가상의 상황이 각각 주어졌을 때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올리고 내리는 조정을 하더라도 다른 이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가상의 상황) 귀하의 회사는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있어서 귀하는 외국어 학원의 야간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니면 연장근무를 못하게 되어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외국어 학원에 등록하시겠습니까?

- ① 외국어 학원에 등록함 ② 외국어 학원에 등록하지 않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냈다. 응답자 중 40%가 학원에 등록하겠다고 한 가운데, 5점 척도 비교성향이 1점 상승할 때마다 3.7%씩 학원 등록률이 올라갔다. 그리고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남들이 줄을 서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을 덜 주저하는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나 선행이 자신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데 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연간 기부금액이 적었다.

응답자의 이타성의 범위와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응답자 가구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게 된 처지에 놓인 경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소득의 몇 %까지 떼어줄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자녀에게 지원하려는 소득 비율은 높았지만, 부모에게 지원하려는 소득 비율은 낮았다.

한편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가능한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욕구가 강했다. 그리고 자녀만 큼은 아니지만 배우자에게도 되도록 많은 상속을 해주려는 경향도 발견됐다. 요컨대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나눔에 소극적이며,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타성이 발휘되는 범위도 부모가 아닌 자녀와 배우자에 국한됐다. 특히 자녀에 대한 강한 몰입은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자기 노후에 자녀의 돌봄을 원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기적 동기를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4.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소비성향이 높다.

소득 변수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을 통제하여 소득창출 잠재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5점 척도 비교성향이 1점 높을수록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8.9%나 높았으며, 학생과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연간 소득(장학금과 공적 부조 포함)도 15.3% 높았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한 총 가구소득은 비교성향 1점 상승에 대해 2.5% 높은 데 그쳤으나, 부동산은 22%, 금융자산은 20.7% 많았다. 비교성향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가치관에 부합하는 물질적 성과가 발견된 것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삶에서 일을 중시하고 경쟁적 환경에서 전력투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은 성과주의 보수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 강도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았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부의 축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배경으로,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시장경제는 빈부격차 심화를 유발함에도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워 모두 더 잘 살게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전술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볼 때 시장경제가 공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신념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빚을 지면서도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하려는 과소비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5점 척도 비교성향이 1점 높을수록 주당 쇼핑시간이 9.2% 증가하고, 가구수준의 월평균 총소비지출은 5.1% 증가하며, 승용차나 고가전자제품 등 지위재(positional good) 성격이 강한 내구재에 대한 연간 소비지출은 41.7%나 증가했다. 식비의 경우, 비교성향이 1점 높을 때마다 외식을 제외한 식비는 4.1% 증가한 데 비해 외식비는 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 먹는 밥보다 레스토랑 식사가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주었다.

5.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정신 건강과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가 낮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물질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비율이 높았고, 건강 습관에서도 음주하는 비율이 높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낮았다. 더욱이 비교성향이 강할 때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고독감이 높았고, 사소한 걱정, 실패감, 식욕부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리건강지수도 현저하게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경제력 상승에 따른 행복 증진 효과를 비교성향의 부정적 효과가 압도했다. 0점(매우 불행)~10점(매우 행복)으로 평가된 현재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5점 척도 비교성향이 1점 높을수록 0.237점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전반적 행복감이 0.012점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 결과와 비교할 때, 5점 척도 비교성향의 1점 상승은 약 2,000만원의 소득 감소가 행복감에 미치는 악영향에 맞먹었다. 더욱이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1년 전과 비교할 때 올해 행복해졌다는 비율이 낮았고 불행해졌다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상대소득가설이 행복의 역설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이용되듯이,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자기보다 높게 평가할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자기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이 비슷한 정도로 낮더라도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성향에 비례하여 크게 느끼게 된다는 점도 발견됐다.

한편 현재 느끼는 행복감 변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주관적 웰빙(well-being) 지표인 삶에 대한 만족도(1~5점) 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교성향의 악영향이 뚜렷했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여가활동, 배우자 및 기타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 거주 지역, 직업, 현재 경제상태 등 삶에 대한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낮았다.²⁾

6.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주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열거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중요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괄호 안은 5점 척도 중요도의 평균).

1. 각박해진 인간관계와 소원해진 가족관계에 따른 고립감 (4.30)
2. 물질주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반인륜범죄 증가 (4.27)
3. 비정규직 일자리와 조기퇴직 만연으로 인한 고용 불안 (4.22)
4.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축소와 중산층 의식 약화 (4.16)
5.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갈등 심화 (4.14)
6. 치열한 경쟁에 따른 피로와 강박 및 스트레스 증가 (4.10)
7. 사회의 급변과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안정감 저하 (4.06)
8. 정치의 후진성 및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만 (3.94)
9. 사회적 신뢰의 부족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계 심리의 고조 (3.93)
10.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에 따른 희망 약화 (3.86)
11.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둔화 (3.81)
12. 주변 사람들의 과시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증대 (3.76)
13. 기본적 욕구 충족 후에 물질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저하 (3.72)
14. 북한의 핵무장화와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 (3.41)

이처럼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의 고립, 가치관의 혼란, 고용 불안, 양극화, 사회갈등 심화 등을 불행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인간관계의 고립이나 가치관의 혼란 등을 불행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한 반면, 평균적인 응답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상향이동 제약, 경기 침체, 상대적 박탈감 증대, 물질적 만족감 저하, 안보불안 등을 불행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³⁾ 특히 상대적 박탈감을 지목할 확률이 비교성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앞의 발견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를 불행에 관한 진단에서도 재확인했다.

7. 타인을 의식하는 비교성향을 이용해 공익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이 경제력은 높지만 이타적 행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들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남의 눈에 대한 의식이나 과시욕이 비교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보다는 “자신의 선행을 남이 알 수 있게 하라”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의 상황) 귀하는 매월 어떤 자선단체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월례 후원회 모임에서 기부금 1만원을 무기명 성금봉투에 넣어 제출해왔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 귀하는 기부금 액수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단, 귀하는 현재 5천원권 1장, 1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이 있으며, 각 경우의 상황 변화는 다른 상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함)

		5천원으로 줄임	1만원 그대로	5만원으로 늘림
(1)	이번 달에 자선단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5배로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①	②	③
(2)	이번 달에 자선단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2배로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①	②	③
(3)	후원회원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이 월 5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①	②	③
(4)	후원회원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이 월 5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①	②	③
(5)	이번 달에는 성금봉투가 준비되지 않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폐를 그대로 내게 되었다.	①	②	③

(6)	이번 달에는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성금봉투를 받아 기부금을 내고 그 액수가 단체소식지에 실리게 되었다.	①	②	③
-----	--	---	---	---

위 여섯 가지 상황 중 (1)과 (2)는 더 많은 기부가 요구될 때 실제로 기부를 늘리는지(이타적 기부), (3)과 (4)는 남들을 추종하여 기부를 줄이거나 늘리는지(집단추종 기부), (5)와 (6)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기부액을 늘리는지(과시적 기부)를 각각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1)과 (2)의 상황에서는 기부를 늘릴 확률이 낮아지고 오히려 줄일 확률이 높아졌다.⁴⁾ 더 절박해진 상황에 대한 호소로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3)의 상황에서는 평균을 따라 기부를 줄이고 (4)의 상황에서는 평균을 따라 기부를 늘릴 확률이 높았다(물론 남을 따라 기부를 늘릴 확률보다는 남을 따라 기부를 줄일 확률이 더 높았다).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의 집단추종 경향을 이용한 모금은 그들이 평균 이하의 기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부를 늘리는 데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은 (5)와 (6)의 상황이었으며, 두 상황의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우발적이건 의도적이건 남의 눈에 기부액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의 과시적 기부 행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켜달라는 캠페인에서 무엇에 호소하는 것이 사람들을 절전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인지를 조사한 결과,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지구환경보존이나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슬로건은 효과가 낮고, 전기료 절감 정보를 알려주거나 절전을 실천하는 이웃들과 비교되도록 하는 슬로건에 반응할 확률이 올라갔다. 특히 비교를 통한 주변의 압력(peer pressure)을 이용하는 것은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이 절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극제로서 약간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동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었다.

III. 시사점

이상의 발견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비교성향, 행복, 행동경제학의 유용성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해보자.

먼저, 비교성향이 현 단계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현명하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둔화를 배경으로 제로섬(zero-sum) 상황의 단선적(좋은 대학→좋은 직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교성향의 순기능이 축소됐다. 오히려 사교육 과열경쟁은 아동건강과 노후대비를 해치고 불안과 저출산 및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데, 그 바탕에는 누가 사교육을 더 시키는지에 신경을 쓰는 비교성향이 있다.

상향비교가 자기발전의 촉매가 되려면 자기 위치와 비교목표 간의 간격이 너무 멀지 않고, 도달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비교목표가 경쟁자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아 때부터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환경에서는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이 발전의 자극보다는 위화감과 좌절감을 갖게 된다.⁵⁾

따라서 정부는 조기개입을 통해 학습격차의 누적과 심화를 예방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의 목표를 비교에 좌우되지 않는 자아존중감의 고양에 두고, 교육시스템에서 비교성향 각인과 협동역량 저하를 유발하는 상대평가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수평적 다양화보다는 수직적 서열화로 귀결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도입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과도한 근로조건 차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선적

지위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성공경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이 다른 가치를 희생하며 물질적으로는 우위에 섰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하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갤럽이 150여개국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도 일, 인간관계, 경제력, 건강, 공동체의 5대 웰빙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이 요구된다는 것인데(Rath and Harter, 2010), 한국인, 특히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일과 경제력에 심하게 치우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인간관계와 건강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눔의 행복감에 눈을 뜰 기회가 필요하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보람과 흥미를 고려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국정의 중심을 삶의 질 제고에 조준하여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기능 보호에 주력하며, 지자체와 함께 사회체육시설 확충과 연령대별 지역사회 모임시설 확대 및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에 더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관한 행동경제학 연구를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람들의 비교성향을 이용하여 기부와 절전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것은 미미한 예에 불과하다. 민주화된 정책 환경에서 정부의 권위적 행정집행(예: 사교육 금지 조치)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예: 보조금)을 통해 정책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재정여건의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파악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정책에 잘 활용하면, 강제적이지 않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ung, Tyson and Paul Mallery,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8 (4), 1999, pp.340~352.
- Gibbons, Frederick X and Bram P. Buunk,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 Jan 1999, pp.129~142.
- Gneezy, Uri and John A. List, *The Why Axis: Hidden Motives and the Undiscovered Economics of Everyday Life*, Public Affairs, 2013.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ang, Pyungwon, Yongsil Lee, Incheol Choi, and Hackjin Kim, "Neural Evidence for Individual and Cultural Variability in the Social Comparison Effect," *Journal of Neuroscience*, 33 (41), 2013, pp.16200~16208.
- Kim, Hisam and Fumio Ohtake,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Policy Study 2014-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4.
- Rath, Tom and James K. Harter, *Well-being: The Five Essential Elements*, Gallup Press, 2010.
- White, Katherine and Darrin R. Lehman,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 February 2005, pp.232~242.

- 1)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 전통경제학의 전제인 합리적 의사결정 외에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존 경제이론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분야로서, 현장실험, 설문조사, 기능성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촬영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 참고로 각 구성요소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비중을 추정한 결과, 비교성향이 강할수록 경제 상태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평균적인 사람들도 경제 상태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지만 비교성향이 강한 사람은 더욱 높은 가중치를 부여) 친구 관계에는 낮은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 3) 사실 이 항목들은 Inglehart(1997)가 정의한 물질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비교성향과 물질주의 가치관의 상관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4) 기부 행위와 관련된 실험연구에서는 기부 요청 메일에서 기존의 모금액이 모금 목표액에 더 많이 미달한다고 알려줄수록 기부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neezy and List, 2013). 기존 모금액이 다른 사람들의 기부 행위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타인추종성향을 가진 잠재적 기부자는 기존 모금액이 많을 때 더 쉽게

지갑을 열며, 다른 사람들 덕에 목표액에 근접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여가 화룡점정으로 목표를 완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고무된다는 것이다. 비교성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모금액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기부액을 줄이려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5)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본인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94년 5.1%→’99년 11.2%→’03년 19.8%→’06년 29.0%→’09년 30.8%→’11년 42.9%→’13년 43.7%로 세대간 상향계층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어 왔으며, 2006년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31.2%)이 2011년 이후 대부분 ‘낮다’쪽으로 흡수되어 ‘낮다’는 비율이 ‘높다’는 비율(’13년 39.9%)을 앞지르게 됐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구주에게서 비관론(’13년에 ‘낮다’는 비율은 51.5%, ‘높다’는 비율은 35.9%)이 가장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

아동의 주관적 웰빙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의 주관적 웰빙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워크숍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5 11. 24

본고는 김미숙, 김기현, 김진석, 2015.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학회) 내용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목차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적 시사점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적 시사점

- 아동복지법: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를 가짐
- 한국아동은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남
 - 2013년 현재 빈곤율: 3.6% (상대빈곤율: 8.4%)
 - OECD 상대빈곤율: 평균 13.3%('10년)
 -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상당히 개선됨
- 문제는 아동의 삶의 질
 -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10점 만점에 6점 이상 60.3%
 - OECD 평균: 85.0% (최상위 - 네덜란드: 94.2%)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이유 파악 필요
 - 이를 위해 주관적 웰빙의 개념 파악
 -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선행연구 고찰
 - 주관적 웰빙 수준 국제비교
 - UNICEF의 웰빙지표를 통한 아동 주관적 웰빙 국제비교
 -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명
 - 정책적 시사점 제안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적 시사점

주관적 웰빙의 개념

- 주관적 웰빙은 다른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됨.
 - 삶의 만족도, 행복감, 정신건강, 심리적 웰빙,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과 혼용
-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포괄
 - 인지적 측면: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것
 - Campbell과 동료들(1976): 개인의 삶에 대한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의미
 - 정서적 측면: 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사건에 의해 형성된 감정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이 있음)
 - 삶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행복감/불안, 걱정, 불면 등

7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주관적 웰빙과 객관적 웰빙과는 다름
 - 객관적 웰빙 수준이 높다고 주관적 수준이 높지 않음
 - 건강, 안전 부와 같은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지만, 필수조건은 아님
 - 즉 객관적 조건이 나빠도 주관적 웰빙은 높을 수 있음 (빈곤국)
-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권재기, 양명희, 2014)
 - 관계적 측면: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 행동측면: 음주 및 흡연(-), 인터넷 중독(-)
 - 개인내적 측면: 자존감, 자신감, 긍정적 태도, 낙관성
 - 인지적 측면: 학업성적, 학업스트레스(-)

8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문수경, 이무영(2008)
 - 연령(-), 가족유형(부모동거), 형제자매수(2-3명)와 행복감이 관련됨
- 전미경, 장재숙(2009)
 - 사교육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
- Klock, Clair, Bradshaw(2014)
 - 여아(-), 한부모가족(-), 부 무직(-), 모 무직(-), 가족의 풍요정도(+), 왕따 경험(-), 흡연 및 음주(-)
- 이봉주 외(2014)
 - 한국은 8개국 중 아동 삶의 질이 7위

9

연구문제

1.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은 어떤 수준인가?
2.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10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적 시사점

- 측정 : Bradshaw와 동료들(2013)
 - 정의: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과 경험적 요소인 긍정적 측면(기쁨, 자존감)과 부정적 측면(고통/걱정)과 행복웰빙(Eudemonic, 가치감 또는 독립된 삶에 대한 성취감) 포함
 - 한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포괄되어야 주관적 웰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 어떠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모두 포괄하여 아동의 주관적 웰빙 실태를 측정한 조사는 없음
 - 다만 WHO(2012)의 학생건강행동조사[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에서 주관적 웰빙을 지표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실시
 - UNICEF에서 이를 활용하여 29개국 비교
 - 본 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30개국 비교 시도
 -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2013) 데이터 활용

주관적 웰빙 측정지표

영역	지표	정의 (11, 13, 15세 기준)	척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해 중간이상(6점 이상) 만족하는 비율	0-10점 중 6점 이상 비율
가족관계	모와의 대화의 용이성	모와 [고민되는 것에 대해] 대화가 용이한 비율	4점 중 3점 이상 비율
	부와의 대화의 용이성	부와 [고민되는 것에 대해] 대화가 용이한 비율	4점 중 3점 이상 비율
	반 친구의 친절 및 협조정도	반 친구들은 친절하고 협조적이라고 하는 비율	5점 중 4점 이상 비율
교육적 웰빙	학업스트레스*	학업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	4점 중 3점 이상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학교를 '매우' 좋아하는 비율	4점 중 4점 이상 비율
건강 웰빙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는 비율	4점 중 2점 이하 비율
	건강관련 신체증상*	지난 6개월간 7개 신체증상(두통, 복통, 우울, 짜증, 불안, 불면, 어지러움) 중 2개 이상을 1주에 2번 이상 경험한 비율	지난 6개월간 1주간 2회 이상 비율
주관적 웰빙	4개 하위영역의 합	삶에 대해 아동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수준	평균 100점으로 표준화

주 1) * 문항은 부정적 측면을 측정함.

2) 영역별 점수는 지표를 합하여 계산함. (평균: 100으로 환산)

자료: Bradshaw, Jonathan, Bruno Martorano, Luisa Natali, and Chris de Nuebou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UNICEF.

13

종속 및 독립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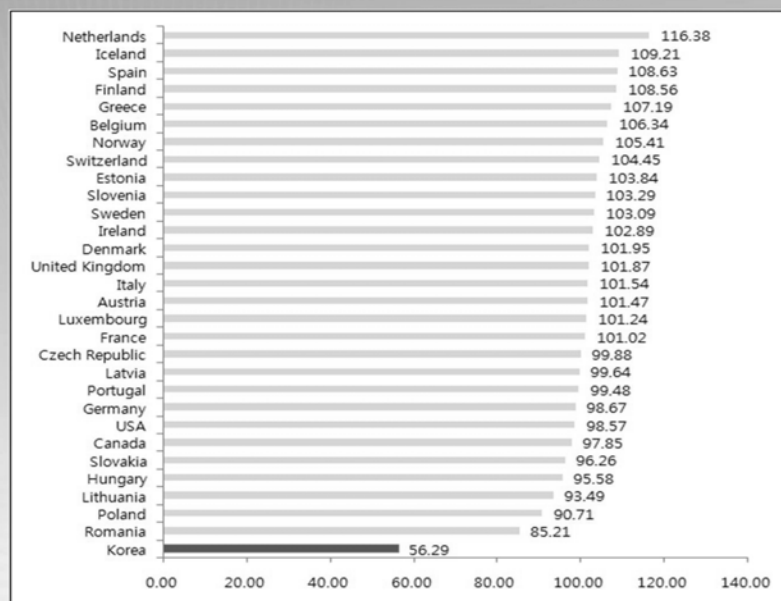
구분	변수	정의	척도
종속변수	주관적 웰빙	4영역 8지표 표준화 값의 합	앞의 표 참조
독립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성	1문항 남성=0, 여성=1
		연령	1문항 학년 (초2 ~ 고3)
		부모용: 가족구조	1문항 일반가구=0, 한부모=1
		부모용: 가구주 근로여부	1문항 근로=0, 실업=1
		아동용: 아동용	14문항의 합 14점 (높을수록 좋음)
		종교 여부	1문항 유종교=0, 무종교=1
	관계적 특성	부모관계	8문항의 합 4점
		교사관계	1문항 4점
		친구관계	2문항의 합 4점
	행동특성	비행: 흡연 및 음주여부	2문항의 합 없다=0, 있다=1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15문항의 합 4점
		왕따	2문항의 합 4점
		방임	3문항의 합 5점
		운동	1문항 5점
		수면시간	1문항 연속변수
	심리적 특성	자존감	10문항의 합 4점
	인지적 특성	주관적 학업성적	1문항 1-10점
		학업(숙제와 시험) 스트레스	1문항 4점

14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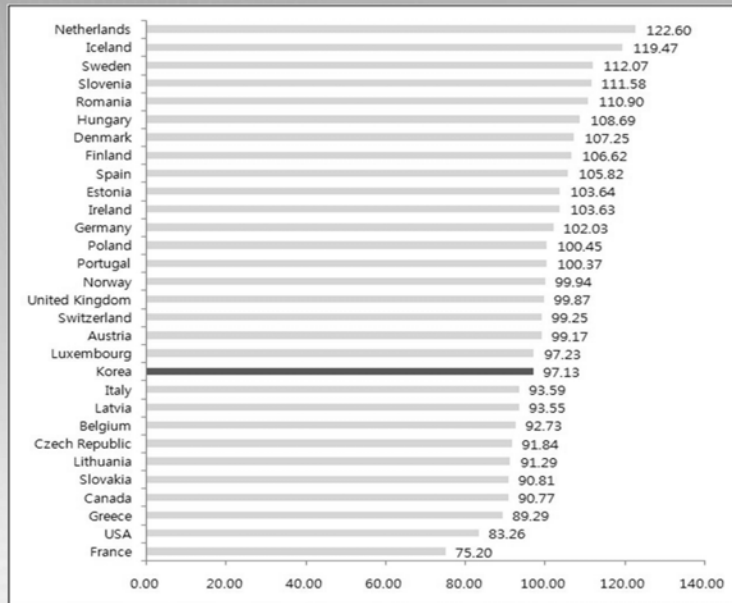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 국제비교: 1)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는 56.29로, 순위는 30개국 중 30위



2) 가족관계 : 부모 및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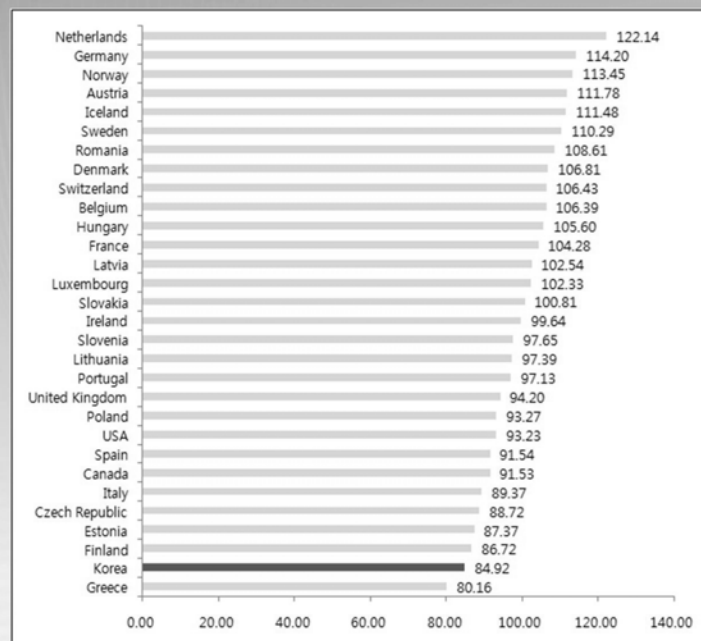
- 97.13으로 30개국 중 20위 (중하위)



17

3) 교육적 웰빙 : 학업스트레스+학교생활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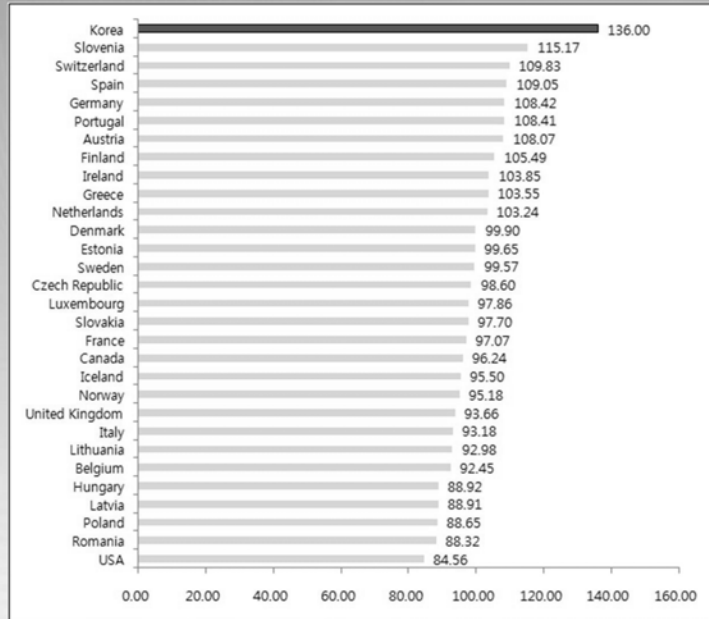
- 84.29점으로 29위 (하위)



18

4) 건강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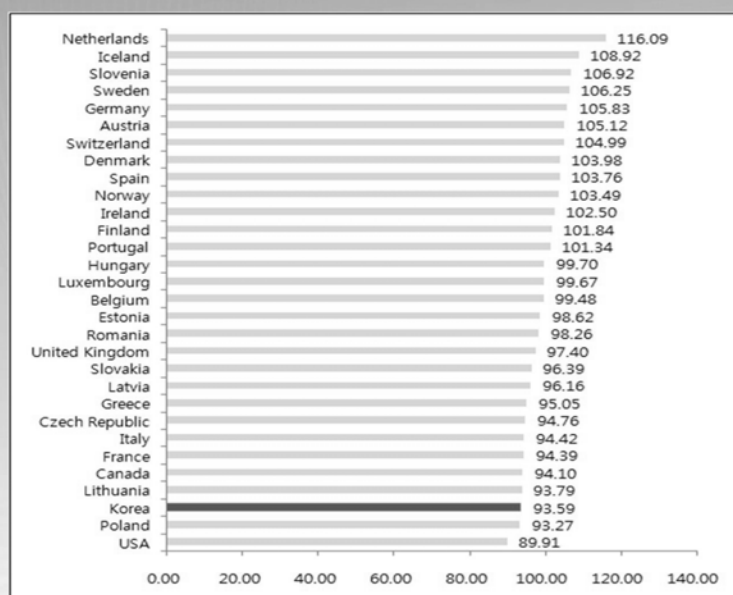
- 136.0으로 1위 (최상위)



19

주관적 웰빙 전체

- 93.59로 28위 (하위)



20

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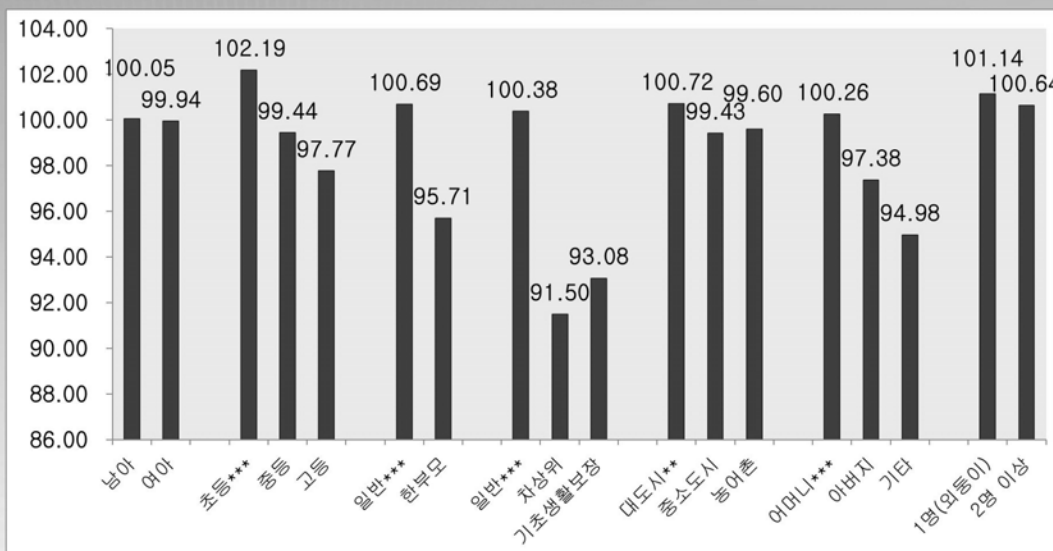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교육적 웰빙은 낮았고, 관계는 중하위, 건강의 최고 수준으로 불균형적

영역	관련 지표	표준화 점수 (평균=100)	30개국 중 순위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56.29	30
2) 가족관계	모와의 대화의 용이성	97.13	20
	부와의 대화의 용이성		
	반 친구의 친절 및 협조정도		
3) 교육적 웰빙	학업스트레스*	84.92	29
	학교생활만족도		
4) 건강 웰빙	주관적 건강상태 (불건강)*	136.00	1
	건강관련 신체증상*		
주관적 웰빙	4개의 하위영역의 합	93.59	28

21

집단 간 주관적 웰빙 수준 비교

- 학령(초등생), 가족형태(양부모), 소득수준(일반), 거주지역(대도시), 주양육자(어머니)가 높음



22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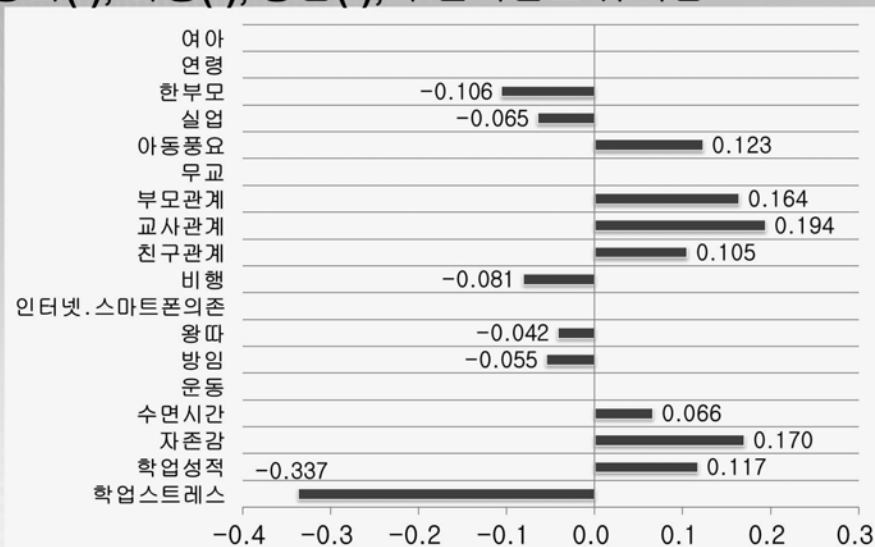
	구분	모델1: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델2: 관계특성	모델3: 행동특성	모델4: 심리적 특성	모델5: 인지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여=1)	-.019	-.042*	-.044*	-.039*	-.029
	연령	-.126***	-.057**	.005	.001	.019
	가족구조(한부모=1)	-.075***	-.082***	-.091***	-.080***	-.106***
	가구주 근로(실업=1)	-.052**	-.062***	-.075***	-.077***	-.065***
	아동풍요	.280***	.169***	.135***	.124***	.123***
	종교(무교=1)	-.040*	.013	.011	.017	.003
관계적 특성	부모관계		.271***	.245***	.191***	.164***
	교사관계		.268***	.254***	.229***	.194***
	친구관계		.150***	.135***	.109***	.105***
행동 특성	비행경험(유=1)			-.091***	-.089***	-.081***
	인터넷.스마트폰의존			-.087***	-.025	.033
	왕따			-.092***	-.086***	-.042**
	방임			-.059***	-.058***	-.055***
	운동			.028	.014	.015
	수면시간			.075***	.084***	.066***
심리특성	자존감				.203***	.170***
인지특성	학업성적					.117***
	학업스트레스					-.337***
	F	55.533***	124.116***	87.796***	92.400***	127.501***
	R ²	.135	.345	.384	.412	.523

주: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p<.05, ** p<.01, ***p<.00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원데이터

23

표준화 계수 비교

- 학업 스트레스(-.337) > 교사관계(.194) > 자존감(.170) > 부모관계(.164) > 아동풍요(.123) > 학업성적(.117) > 가족구조(-.106) > 친구관계(.105)의 순.
- 왕따(-), 비행(-), 방임(-), 수면시간도 유의함



24

- I. 문제제기
- II.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론고찰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정책적 시사점**

- **주관적 웰빙 국제비교**
 -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 93.59 (28위)
 - 최고: 네덜란드(116.09) 최저: 미국(89.91)
 -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건강 웰빙은 최상위로 매우 기형적 상황
 - 객관적 물질수준은 양호한데 심리적 수준은 열악함을 시사
 - 핀란드, 루마니아 등의 점수도 불균형적
 - 우리 국민 특성 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높은 인내력
 - 아울러 국민건강지원체계의 건실에 의한 것으로 보임
 - 높은 영유아 예방접종율, 산전사후관리제도의 양호, 건강보험제도의 보편화 등

- 집단별 비교
 - 고연령, 한부모가족, 차상위 및 기초수급, 부 또는 친인척 양육의 경우 낮음
-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큼. 학업성적도 유의
 - 교사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영향이 많았음
 - 자존감도 매우 유의함
 - 비행과 왕따 및 방임 등도 유의. 수면시간도 유의함
 - 한부모(-), 가구주 실업(-), 아동풍요도 유의
 - 성별차이, 연령별 차이, 운동여부는 유의하지 않음.

27

- 학업스트레스 완화
 -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자율학기제 전면 도입, 수업시수 하향조정, 예체능 학습 확대 등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편
-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혁
 - 공교육 개혁과 입시제도의 개선, 대학의 평준화 등 재검토

28

- 여가인프라 및 여가시간 확충
 - 여가 인프라 확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 근린공원을 설치할 때 아동을 위한 여가 인프라를 둘 수 있도록 의무화 함.
 - 공원 설치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의무적 설치
 - 여가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부모들은 자녀의 방과후 여가시간 보장
 - 수면시간 확보
 - 우리나라 아동의 수면시간은 세계 최저
 -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수면시간 확보

29

- 관계의 질 개선
 - 교사, 부모, 친구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 웰빙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아동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짐
 - 부의 경우 자녀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는데, 이는 공사기업의 초과근무시간 지양, Family Day 활성화 등 필요
 - 교우 간에는 과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도모하는 학교생활 조성이 필요.
 - 협력 및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교과과정 필요

30

• 자존감 제고

-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
 -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시각,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교사의 태도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 » 교사들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도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가정내에서는 자녀의 인격 존중 및 친밀성 도모
 - » 방임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돌봄 및 방과후 돌봄 강화
-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동:
 - 학교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기타 민간 상담센터 등의 자원 활용.

31

- 비행 및 왕따, 방임 예방
 - 아동의 음주 및 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스트레스 완화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왕따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필요
 - 방임예방을 위해 방과후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필요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 빈곤아동의 다양한 결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김미숙, 김기현, 김진석, 2015)

32

참고문헌



- 권재기, 양명희. 2014.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프로파일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3): 201-227.
- 김미숙, 김기현, 김진석. 2015.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학회.
- 문수경, 이무영. 2008.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3): 19-33.
- 이봉주, 김선숙, Joan Yoo, 유민상, 최창용, 이연정. 2014.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3): 103-118.
- Bradshaw, Jonathan, Bruno Martorano, Luisa Natali, and Chris de Nuebou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UNICEF.
- Campbell, Ed A.,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locke, Andreas, Amy Clair, and Jonathan Bradshaw. 2014. "International variation in child subjective well-be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7(1): 1-20.
- WHO.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eds) Currie, Candace, Cara Zanotti, Antony Morgan, Corothy Currie, Margaretha de Looze, Chris Roberts, Oddrun Samdal, Otto R.F. Smith, and Vivian Barnekow.

33



감사합니다!



2-4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 제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운숙 연구위원

본 조사결과는 성운숙, 홍성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개발 및 조성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므로 본문 인용은 추 후 보고서 발간 후 가능합니다.



국무총리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목차

- I 연구 개요
- II 지표의 정의와 측정
- III 청소년·부모·교사의 주관적 웰빙 인식 비교
- IV 청소년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 V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지수
- VI 정책제언



연구 개요

배경

-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009년부터 6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 (한국방정환재단, 2014)
-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를 보면 주관적 행복지수가 74점으로 2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음
- 2015년 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학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OECD 평균 100점에 74점으로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
- 나아가 2015년 'The Good Childhood Report'에 따르면 요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15개국 10세, 12세 아동 5만 3천명을 조사한 결과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음(9.8%)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임(헤럴드 경제 2015, 4. 28).

목적

- 세계 행복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낮은 소득, 식량부족, 보건의료에의 낮은 접근성, 안전한 의식주 부족, 교육기회의 부족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가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즉,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짐.
- 높은 학업성취, 경제소득,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행복도가 높지 않은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음. 지역사회의 청소년 행복정책은 보편적 인프라를 구축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인식전환, 가치교육, 긍정적 인성함양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6~7월 사이 중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 청소년과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목적은 청소년의 주관적웰빙을 측정하고 지역별 청소년 주관적웰빙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II

지표의 정의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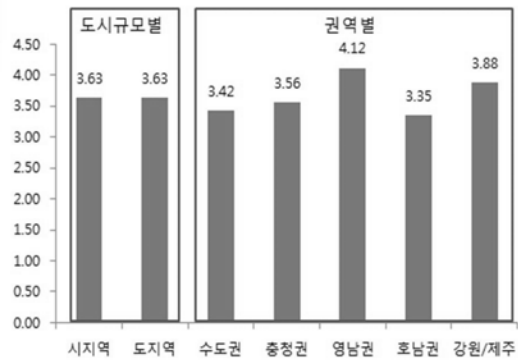


정서상태

〈표 1〉 지표정의서

설문 문항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출처	OECD(2013)
척도	-15점(불안한, 슬픈, 우울한 3문항 5점) ~15점(즐거움, 편안한, 행복한 3문항 5점) 5점(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지표방향	+

〈그림 1〉 도시규모별·권역별 정서상태



- ◆ 높은 지역: 부산(4.58), 대구(4.25), 충남(4.09), 경남(4.17)
- ◆ 낮은 지역: 울산(3.13), 충북(2.87)
- ◆ 시지역 = 도지역
- ◆ 영남권(4.12) > 강원/제주(3.88) > 충청권(3.56) > 수도권(3.42) > 호남권(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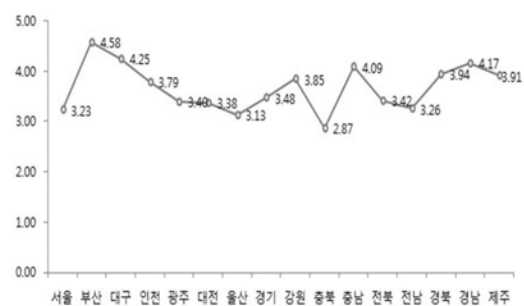
〈표2〉 정서상태

시도	정서상태
서울	3.23
부산	4.58
대구	4.25
인천	3.79
광주	3.40
대전	3.38
울산	3.13
경기	3.48
강원	3.85
충북	2.87
충남	4.09
전북	3.42
전남	3.26
경북	3.94
경남	4.17
제주	3.91

〈그림 2〉 정서상태



〈그림 3〉 정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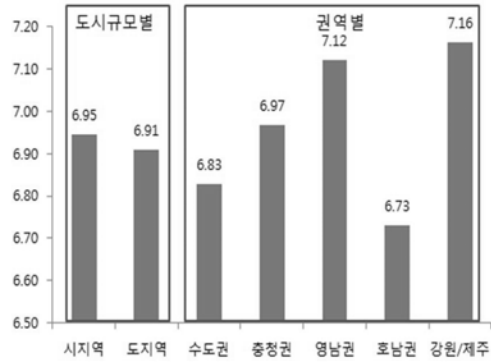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

〈표 3〉 지표정의서

설문 문항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출처	OECD(2013)
척도	11점 척도(0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은 매우 만족한다)
지표 방향	+

〈그림 4〉 도시규모별·권역별 삶의 만족도



- ◆ 높은 지역: 부산(7.4), 대구(7.2), 인천(7.1), 강원(7.2), 경남(7.2), 제주(7.2)
- ◆ 낮은 지역: 울산(6.7), 전남(6.6)
- ◆ 시지역(6.95) > 도지역(6.91)
- ◆ 강원/제주(7.16) > 영남권(7.12) > 충청권(6.97) > 수도권(6.83) > 호남권(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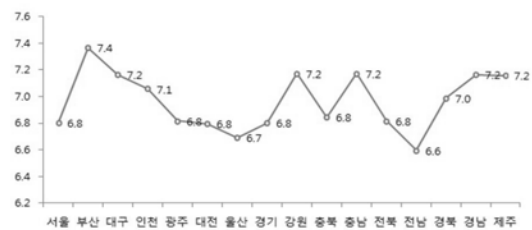
〈표 4〉 삶의 만족도

시도	삶의 만족도
서울	6.8
부산	7.4
대구	7.2
인천	7.1
광주	6.8
대전	6.8
울산	6.7
경기	6.8
강원	7.2
충북	6.8
충남	7.2
전북	6.8
전남	6.6
경북	7.0
경남	7.2
제주	7.2

〈그림 5〉 삶의 만족도



〈그림 6〉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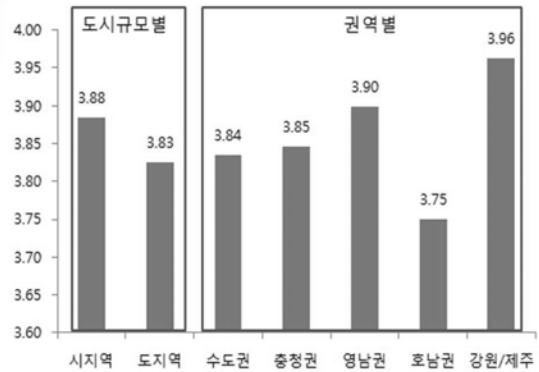


유데미니아

〈표 5〉 지표정의서

설문 문항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출처	OECD(201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 방향	+

〈그림 7〉 도시규모별·권역별 유데미니아



- ◆ 높은 지역: 부산(4.04), 대구(3.94), 인천(3.90), 강원(3.99)
- ◆ 낮은 지역: 울산 (3.74), 전북(3.76), 전남(3.70)
- ◆ 시지역(3.88) > 도지역(3.83)
- ◆ 강원/제주(3.96) > 영남권(3.90) > 충청권(3.85) > 수도권(3.84) > 호남권(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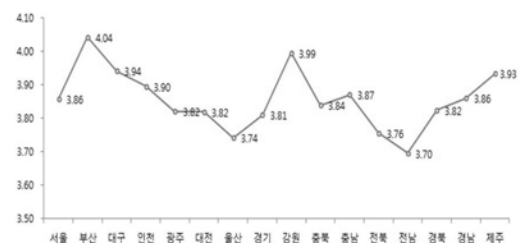
〈표 6〉 유데미니아

시도	유데미니아
서울	3.86
부산	4.04
대구	3.94
인천	3.90
광주	3.82
대전	3.82
울산	3.74
경기	3.81
강원	3.99
충북	3.84
충남	3.87
전북	3.76
전남	3.70
경북	3.82
경남	3.86
제주	3.93

〈그림 8〉 유데미니아



〈그림 9〉 유데미니아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집단별, 지역간 차이

- 연구 대상인 전체 9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인 관계영역, 주관적웰빙 영역, 건강영역, 그리고 교육영역 모두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양부모가정, 한 부모가 직업을 가질수록, 대도시 거주자이고, 종교를 가질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고, 주관적 웰빙의 수치가 높았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학교교육과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부산지역에서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 전남, 인천. 울산지역에서는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가, 전남지역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인천에서는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도시규모별 특징은 정서상태(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음)를 제외한 모든 하위 지표에서 도지역에 비해 시지역이 높게 나타냄.
- 권역별 특징은 영남권에서 주관적 웰빙의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강원/제주권에서 삶의 만족도와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이에 반해 호남권에서 주관적 웰빙의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Ⅲ 청소년·부모·교사의 주관적 웰빙 인식비교



<표 7>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주관적 웰빙 인식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정서상태 (감정)	즐거움	10,796	3.9	0.9	2,346	3.8	0.7	361	4.0	0.7	36.630***	청소년,교사>학부모
	편안함	10,794	3.6	1.0	2,348	3.7	0.7	361	3.8	0.7	29.885***	학부모,교사>청소년
	불안함	10,792	2.7	1.0	2,342	2.4	0.9	361	2.6	0.8	91.606***	청소년,교사>학부모
	슬픈	10,789	2.5	1.0	2,343	2.2	0.8	361	2.2	0.7	108.838***	청소년>학부모,교사
	우울함	10,779	2.5	1.1	2,342	2.2	0.9	360	2.3	0.8	76.870***	청소년>학부모,교사
	행복함	10,782	3.9	0.9	2,339	3.7	0.8	361	3.8	0.7	15.674***	청소년>학부모
삶의 만족도		10,703	6.9	2.3	2,327	7.1	1.8	358	7.0	1.8	2.971	-

***p<.001

- ◆ 청소년>학부모 : 불안함, 슬픈, 우울함, 행복함 ▶ 청소년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행복함
- ◆ 청소년>교사 : 슬픈, 우울함 ▶ 청소년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슬프고, 우울함
- ◆ 청소년<학부모 : 편안함 ▶ 청소년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편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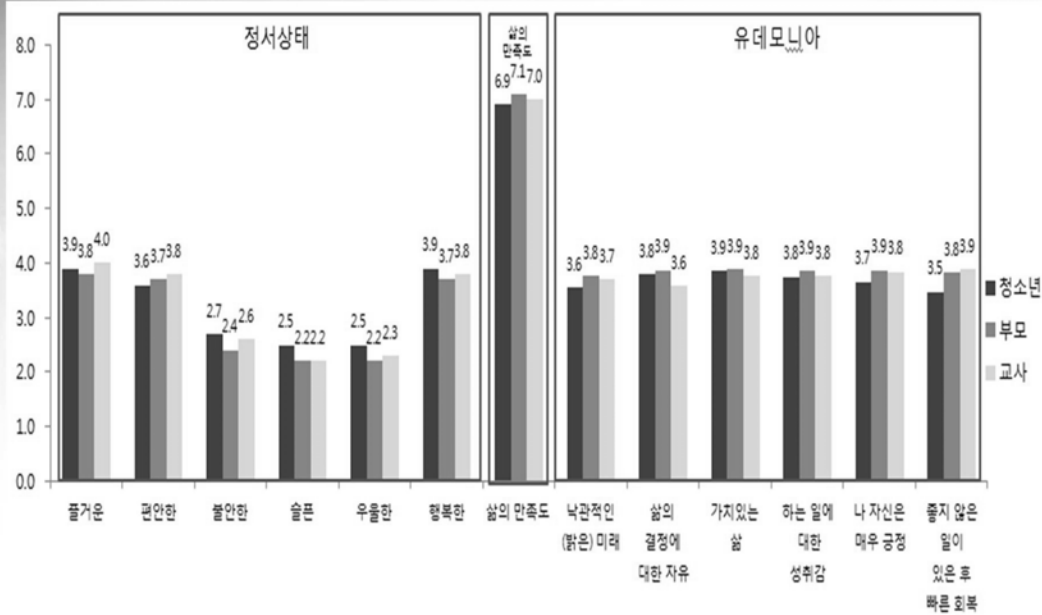
<표 8>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주관적 웰빙 인식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유데모니아	낙관적인(밝은) 미래	10,799	3.6	1.0	2,349	3.8	0.9	360	3.7	0.9	48.398***	학부모,교사>청소년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10,799	3.8	1.0	2,350	3.9	0.8	361	3.6	0.9	18.803***	학부모>청소년>교사
	가치있는 삶	10,792	3.9	0.9	2,348	3.9	0.8	360	3.8	0.8	2.685	-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10,779	3.8	0.9	2,346	3.9	0.8	360	3.8	0.8	14.552***	학부모>청소년
	나 자신은 매우 긍정	10,784	3.7	1.0	2,345	3.9	0.8	361	3.8	0.8	47.793***	학부모,교사>청소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10,779	3.5	1.0	2,348	3.8	0.8	361	3.9	0.8	151.611***	학부모,교사>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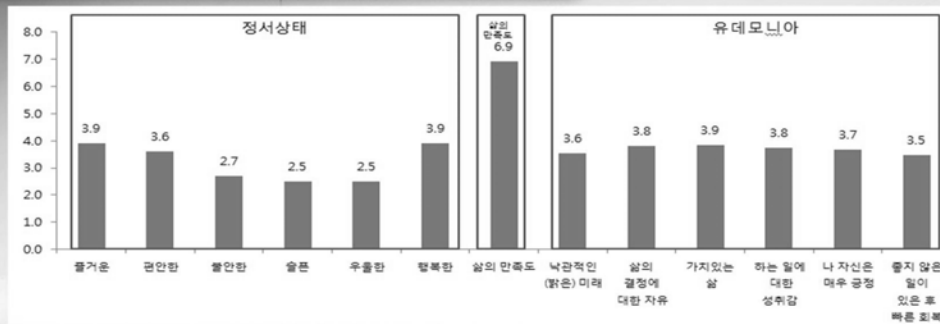
***p<.001

- ◆ 청소년>교사 :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 청소년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을 결정할 때 자유롭다고 생각
- ◆ 청소년<학부모 : 낙관적인(밝은) 미래,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나 자신은 매우 긍정,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 청소년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삶을 결정할 때 자유롭지 않으며,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이 높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이 어려움
- ◆ 청소년<교사 : 낙관적인(밝은) 미래,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 청소년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긍정적이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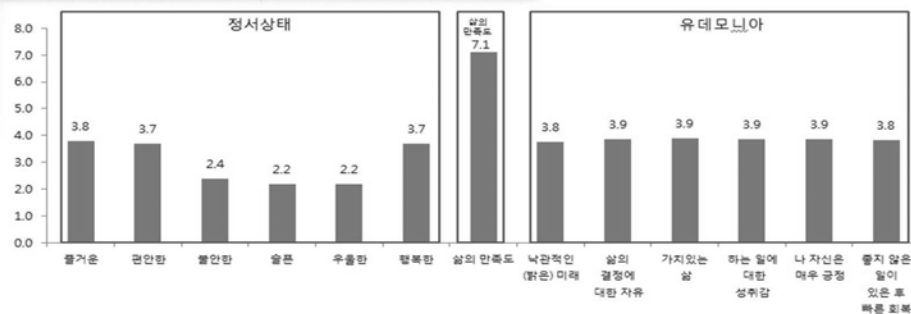
<그림 10>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주관적웰빙 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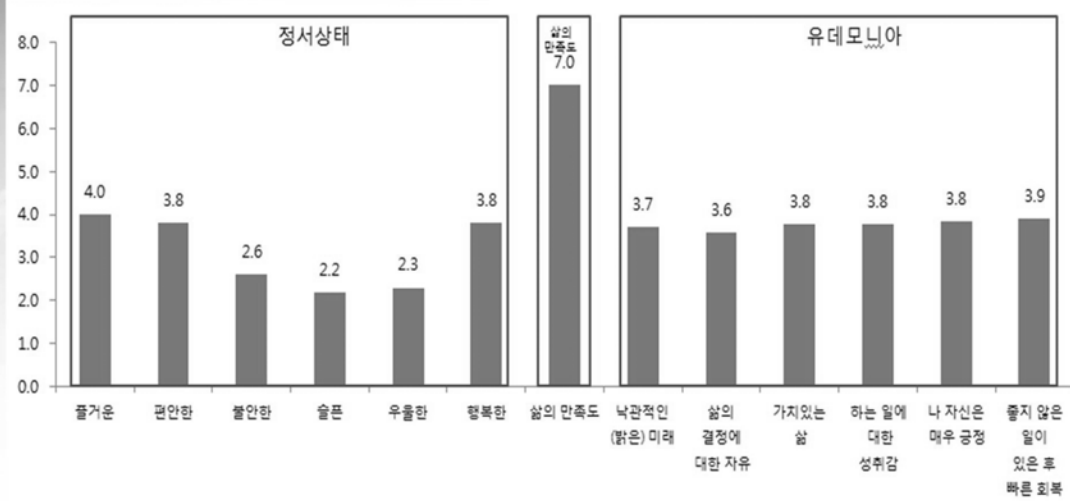
<그림 11>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영역 인식 비교



<그림 12> 부모의 주관적웰빙 영역 인식 비교



<그림 13> 교사의 주관적웰빙 영역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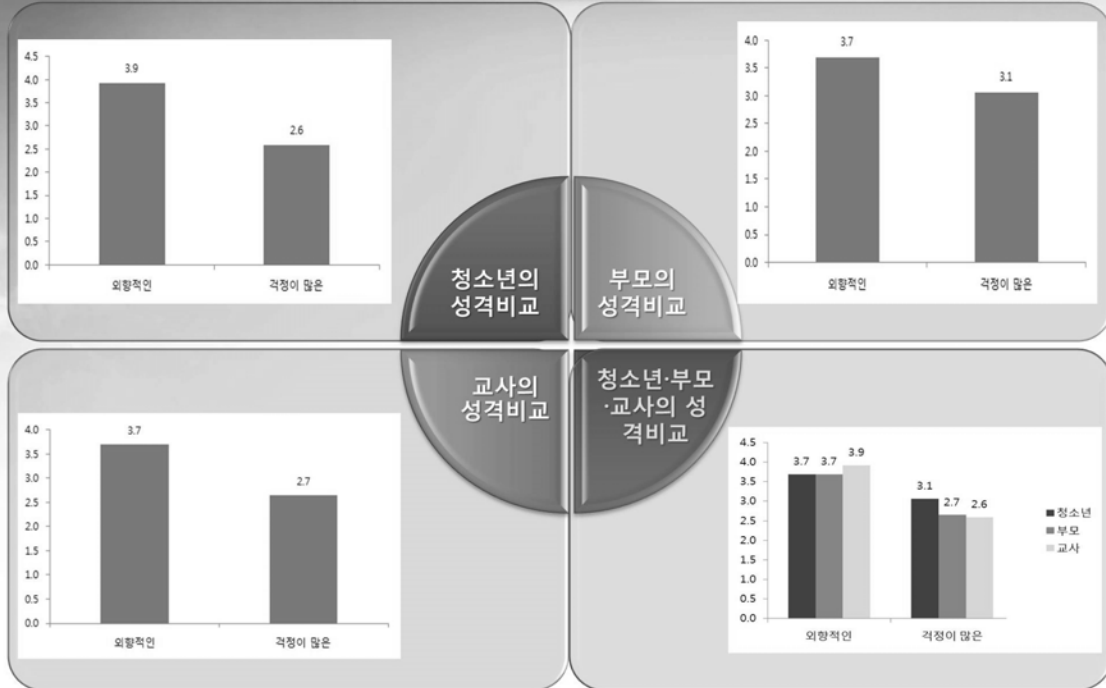
<표 9>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성격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격	외향적인	10,795	3.7	1.0	2,347	3.7	0.9	361	3.9	0.7	9.795***	교사>청소년, 학부모
	걱정이 많은	10,791	3.1	1.1	2,327	2.7	0.9	358	2.6	0.8	174.679***	청소년>학부모, 교사

***p<.001

- ◆ 청소년>학부모, 교사: 걱정이 많은 ▶ 청소년은 학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이 많음
- ◆ 청소년<교사: 외향적인 ▶ 청소년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향적이지 않음

<그림 14>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성격 비교



IV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분석



<표 10> 개인의 특성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0.231**	0.231**	0.219**	0.013	0.204**	0.443**
	(5.13)	(5.22)	(4.93)	(0.17)	(3.19)	(3.91)
연령	-0.204**	-0.204**	-0.168**	-0.149**	-0.149**	-0.177**
	(-14.87)	(-14.83)	(-14.34)	(-3.64)	(-2.64)	(-4.33)
외향적인 성격	0.640**	0.640**	0.666**	0.666**	0.603**	0.518**
	(32.52)	(32.69)	(33.00)	(15.17)	(16.72)	(15.46)
질병	-0.351**		-0.325**	-0.428**	-0.238*	-0.235*
	(-10.57)		(-10.15)	(-6.01)	(-2.23)	(-2.60)
선천적		-0.304**				
		(-3.12)				
후천적		-0.377**				
		(-7.51)				
선천적 + 후천적		0.482				
		(0.69)				
친부모 동거			0.37**	0.535**	0.256	0.365**
			(4.82)	(3.93)	(1.71)	(3.04)
부의 직업			0.008	-0.071	0.108	-0.042
			(0.37)	(-0.40)	(0.74)	(-0.28)
모의 직업			-0.124*	-0.105	-0.110	-0.175*
			(-2.23)	(-1.33)	(-1.27)	(-2.73)
학급 내 성적			0.393**	0.309**	0.394**	0.367**
			(11.54)	(9.81)	(9.19)	(10.34)
자가 주택			-0.054	-0.021	-0.038	-0.038
			(-1.24)	(-0.23)	(-1.44)	(-0.33)
종교			-0.011	-0.009	0.000	0.005
			(-0.41)	(-0.33)	(0.00)	(0.03)
상수항	7246**	7240**	5330**	5335**	5331**	5608**
	(36.51)	(36.36)	(28.59)	(11.91)	(6.10)	(7.37)
N	1085	1085	1084	0152	0149	0120
관측수	10803	10803	10803	3135	3381	3397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 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개인의 특성

-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두 번째 열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남.
-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은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과 종교 유무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
-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학교급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혹은 동일한 요인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받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짐.
-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함.
-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음.

<표 11> 영역별 중요성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계	0.238** (22.63)	0.301** (12.36)	0.243** (8.30)	0.203** (10.61)
건강	0.082** (6.28)	0.048* (2.56)	0.084** (8.22)	0.101** (4.16)
교육	0.292** (16.44)	0.225** (7.17)	0.245** (10.21)	0.362** (27.02)
안전	0.105** (6.93)	0.149** (4.87)	0.112** (3.38)	0.070** (3.42)
참여	0.037** (7.49)	0.030+ (2.12)	0.042* (2.57)	0.040** (3.15)
활동	0.113** (9.92)	0.089** (5.42)	0.151** (9.01)	0.101** (3.88)
경제	0.112** (9.23)	0.082** (3.37)	0.120** (4.98)	0.128** (5.93)
환경	0.014 (1.13)	0.034 (1.68)	-0.001 (-0.07)	0.014 (0.79)
상수항	-0.327+ (-1.92)	0.041 (0.10)	-0.824+ (-1.86)	-0.359 (-0.48)
Adj. R ²	0.5825	0.5650	0.5589	0.5397
관측수	10,503	3,135	3,381	3,98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함께 개인의 특성들-성별, 연령, 성격, 질병 유무, 친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여부, 종교 유무-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영역별 중요성

-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
-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
-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임.
-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침.
-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됨.
-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냄.

<표 12>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남학생	0.272** (10.40)	0.258** (6.73)	0.142** (3.18)	0.223** (5.15)	0.116* (2.20)	0.381** (7.26)	0.053 (1.26)	0.027 (0.64)
연령	-0.074** (-8.51)	-0.117** (-8.88)	-0.168** (-17.05)	-0.175** (-18.08)	-0.331** (-19.42)	-0.300** (-29.32)	-0.223** (-21.20)	-0.193** (-16.63)
외향적인 성격	0.923** (71.16)	0.715** (37.85)	0.728** (38.63)	0.565** (41.78)	0.500** (24.27)	0.589** (24.22)	0.477** (23.50)	0.525** (27.12)
질병	-0.273** (-5.39)	-0.978** (-14.63)	-0.325** (-5.51)	-0.406** (-9.02)	-0.445** (-8.71)	-0.347** (-9.57)	-0.273** (-4.64)	-0.386** (-6.04)
친부모 동거	0.275** (3.42)	0.253* (2.18)	0.301** (3.36)	0.235** (3.86)	0.115 (1.25)	0.107 (1.43)	0.573** (6.37)	0.324** (3.98)
부의 직업	0.030 (0.43)	0.056 (0.47)	-0.006 (-0.07)	0.055 (0.86)	0.080 (0.66)	0.093 (1.11)	0.585** (4.95)	0.148 (1.56)
모의 직업	-0.066+ (-2.11)	-0.005 (-0.12)	-0.143** (-4.74)	-0.041 (-1.33)	-0.081+ (-2.11)	-0.081+ (-1.78)	-0.112+ (-1.90)	-0.095 (-1.37)
학급 내 성적	0.193** (9.25)	0.256** (17.24)	0.329** (9.91)	0.211** (11.01)	0.119** (3.55)	0.160** (5.87)	0.286** (22.12)	0.213** (7.75)
자가 주택	0.045 (0.98)	0.035 (0.97)	0.035 (0.98)	0.022 (0.61)	-0.101+ (-2.00)	-0.068 (-1.51)	0.500** (17.59)	0.210** (4.86)
종교	-0.050 (-1.43)	0.015 (0.44)	-0.005 (-0.19)	-0.008 (-0.24)	0.004 (0.11)	0.030 (0.82)	-0.135** (-3.60)	-0.014 (-0.31)
상수항	4.208** (25.10)	5.290** (20.52)	5.583** (29.65)	6.634** (35.25)	8.437** (25.11)	8.206** (47.25)	6.818** (26.96)	6.506** (27.38)
Adj R2	0.2959	0.2163	0.2431	0.2053	0.1971	0.2142	0.2178	0.175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 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는 10,503명에 해당함.
*p<.05, **p<.01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

- 질병이 있는 경우는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아짐.
-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
-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에 의해 측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
-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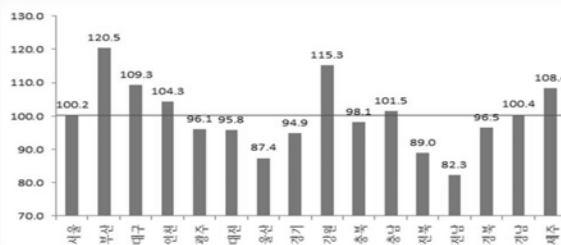
주관적웰빙 지수



〈그림 15〉 정서 상태



〈그림 16〉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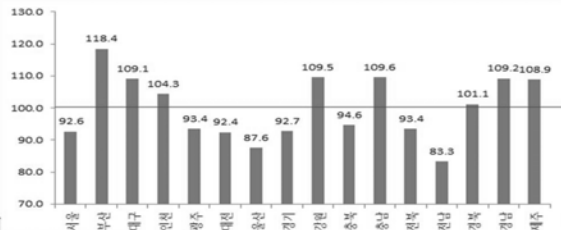


정서상태는 최근에 느낀 즐거운 감정, 편안한 감정,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행복한 감정에 의해 측정되며, 유데모니아는 삶의 가치에 의해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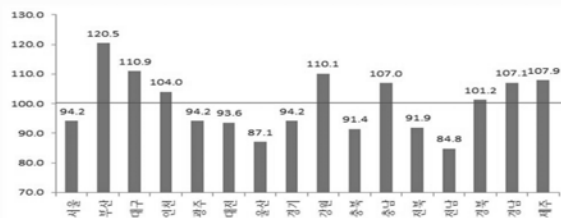
정서상태는 부산, 대구, 경남, 충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 울산, 서울 등에서 낮게 나타남

삶의 만족도는 부산, 충남, 강원 등에서 높고, 전남, 울산, 대전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유데모니아



〈그림 18〉 주관적 웰빙



- ◆ 유데모니아는 부산, 강원, 대구에서 높은 반면에 전남, 울산, 전북에서 낮게 나타남
- ◆ 주관적웰빙 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경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남, 울산,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VI 정책 제언



• 행복도가 낮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여자 청소년, 고등학생, 맞벌이 가구 청소년, 내향적인 청소년임.
-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학생과 차별받는 학교 및 사회 풍토의 지양이 요구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적과 연관성이 크다고 추정됨에 따라 입시제도의 개선이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생활만족도가 제고되도록 개입하는 방안
- 맞벌이인 경우 방과후 방임 등이 우려되므로 방과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내향적인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인간관계 기술 훈련 등을 지원 하는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

• 이해당사자들(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행복에 대한 인식의 개선

- 청소년 행복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 상당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청소년 행복지수의 측정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논의나 토론의 기회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입시위주 혹은 성과위주의 교육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음

• 청소년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 전개

- 자치단체별 행복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친화적 지역정책을 위한 관련 인력·조직·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을 전개할 필요
- 최근 성북구나 군산, 광주 등 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라도 할 수 있음

•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행복지표의 관리

- 행복은 개개인의 기질이나 타고난 천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행복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행복지표·특히, 주관적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해당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임에 주장(hedonic adaptation)
- 일본의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사카대학의 나오토 야마우치교수 역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필요성을 제기. 실제로,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이나 영국의 가구패널이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행복 증진과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미흡한 자료나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 수행계획이 마련
-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를 활용 할 수 있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들을 적용(김신영, 2015).
- 후속 연구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지역별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 결과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

• 지자체별 주관적웰빙 향상을 지자체별 권고안 개발과 모니터링

-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권고안 및 대응책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팀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 만들어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권고안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장치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전담센터는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주기적인 포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
-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임. 부산지역에서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함, 불안함, 슬픈, 우울함,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향후 부산지역의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층분석하거나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관계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다른 지역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주관적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 전남, 인천임. 울산지역에서는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함, 불안함, 슬픈, 우울함, 행복한), 전남지역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인천에서는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음. 특히 여성청소년과 내향적인 청소년들이 주관적웰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기회제공과 행복교육과 행복가치관 교육이 학교에서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이 요구 됨.

• 지역별 청소년 주관적웰빙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전담기구가 설치·운영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관련 무수한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줌. 하지만,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성과지표로의 설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예산의 집행이 청소년 행복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세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의 행복지수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 행복을 위한 지역사회 지표와 관련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함. 즉 자료수집, 구축,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문의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 행복지수의 작성과 관리는 객관적인 견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설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조사팀과 조사자료팀 2팀제가 필요하며 전임 연구원이 배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행복지수의 지역 간 차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치적 간섭에 독립적인 국책연구기관에 부설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함.
- 지속적인 지역사회청소년지표 생산을 위해 관련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 기타 청소년발달지표의 주요 수요자 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청소년지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지표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청소년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관적웰빙 향상을 위한 대상별 행복교육 교재 개발 및 활성화

- 주관적 웰빙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 나아가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 교육이 요구됨.
- 무용정보와 유용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사고력 수업 필요. 서유럽의 경우처럼 수능 중심이 아닌 가치와 사고 중심의 역사교육, 철학적 사유, 인문학 및 토론문화의 학교 내 정착 등이 요구됨.
- 행복한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예비교육 활성화
-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활성화
- 청소년의 주관적웰빙 향상을 위한 앱개발 및 홍보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청소년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일부를 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결정과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실행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예산 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 사례로 에라도르는 청소년참여예산제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의 6번 원칙「아동관련예산확보」, 핀란드 헬싱키시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의제와 예산가지 확정」, 필리핀 「청소년의회: 지자체 예산의 10% 지역 청소년 예산의 분배」, 브라질 바라만사시 「어린이참여예산 평의회」 등 국제사례 참조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 2015년 현재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내용의 시행여부를 감시하고 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 혹은 자문기구의 역할과 청소년들의 참여 통로 확보 필수,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맨(행정 감시 및 민원도우미) 제도 및 정책모니터단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 필요함

•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제시 및 인포그래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정립

- 각 영역별 또는 각 지역별 청소년 행복인식에 대한 최저선(Minimal Line), 적정선(Optimal Line)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처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등과 같은 기준선을 제시하거나, 보다 발전적으로는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
- 이에, 기존의 각 영역별 점수에서 최저점수(예를 들어, 평균점수 또는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최저선 설정)와 적정점수(예를 들어, 상위 25%를 기준으로 설정)를 설정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제시 및 인포그래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정립

- 각 영역별 또는 각 지역별 청소년 행복인식에 대한 최저선(Minimal Line), 적정선(Optimal Line)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처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등과 같은 기준선을 제시하거나, 보다 발전적으로는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
- 이에, 기존의 각 영역별 점수에서 최저점수(예를 들어, 평균점수 또는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최저선 설정)와 적정점수(예를 들어, 상위 25%를 기준으로 설정)를 설정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